

발간관리번호

CYDA-Act-2013-6

제15회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수상작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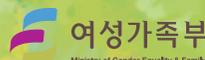
주최



주관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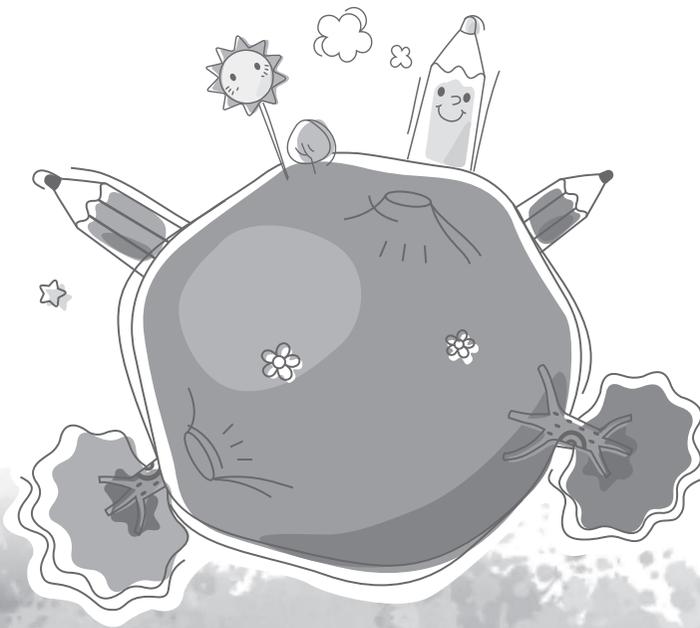


발간관리번호
CYDA-Act-2013-6

제15회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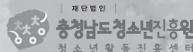
수상작모음집



주최



주관



후원



제15회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개요

1 목 적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모범 청소년과 우수동아리를 선발·포상하여 가시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활성화

2 사업개요

- 응모기간 : 2013. 9. 2(월) ~ 10. 4(금)
- 서류심사 : 2013. 10. 10(목), 본 원
- 면접심사 : 2013. 10. 19(토), 공주교육지원청
- 시 상 : 2013. 11. 23(토), 충청남도청 대회의실
- 응모대상 : 충청남도 내 청소년 개인 및 청소년자원봉사동아리, 봉사활동 업무 담당 지도자
- 응모부문 : 실천부문(개인·동아리 봉사활동), 지도자 부문(봉사활동 우수지도자)

3 공모부문

구 분	부 문	내 용	심사
실천 부문	개인 봉사활동	교내.외 및 지역사회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천사례	1차 서류, 2차 면접
	동아리 봉사활동	교내.외 및 지역사회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천사례	1차 서류, 2차 면접
지도자 부 문	동아리 우수지도자	동아리부문의 대상.최우수상.우수상에 선정된 동아리 지도자에게 표창함	해당사항 없음
	봉사활동 우수지도	봉사활동 우수지도자 표창	1차 서류 (공적조서)

4 시상내역

구분	부문	구분	여성가족부 장관	충청남도 지사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남도 청소년 진흥원 이사장상	계
					청소년	우수 지도자 표창		
실천 부문	개인 봉사활동 (상장)	중	1	1	1	.	1	4
		고	1	1	1	.	.	3
	동아리 봉사활동 (상장)	중	1	1	1	3	.	6
		고	1	1	1	3	2	8
봉사활동 우수지도자(표창)		성인	.	2	.	.	.	2
훈격별 시상수			4	6	4	6	3	23

제15회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수상자

□ 개인 봉사활동

상명(훈격)	성명	소속
여성가족부장관	방유빈	탕정중학교
	오현숙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충청남도지사	조지향	정안중학교
	오영석	온양고등학교
충청남도교육감	박범수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배예니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사장	김지아	대천여자중학교

□ 동아리 봉사활동

상명(훈격)	동아리명	소속
여성가족부장관	희망공감	정안중학교
	크레용(CRAYON)	천안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지사	친따꿈따	천안시자원봉사센터
	두드림(Do Dream)	예산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교육감	3H를 실천하는 반포지효 봉사단	기민중학교
	ConGo	북일고등학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사장	해피투게더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온여베이크	온양여자고등학교

CONTENTS

1. 개인 봉사활동

| 여성가족부장관상

- 009 - 방유빈(탕정중학교)
- 018 - 오현숙(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 충청남도지사상

- 027 - 조지향(정안중학교)
- 031 - 오영석(온양고등학교)

| 충청남도교육감상

- 038 - 박범수(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 042 - 배예니(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사장상

- 044 - 김지아(대천여자중학교)

2. 동아리 봉사활동

| 여성가족부장관상

- 051 - 희망공감(정안중학교)
- 054 - 크레용(CRAYON)(천안여자고등학교)

| 충청남도지사상

- 063 - 친따꿈따(천안시자원봉사센터)
- 071 - 두드림(Do Dream)(예산여자고등학교)

| 충청남도교육감상

- 081 - 3H를 실천하는 반포지호 봉사단(기민중학교)
- 085 - ConGo(북일고등학교)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사장상

- 099 - 해피투게더(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 105 - 온여베이크(온양여자고등학교)

1. 개인 봉사활동

여성가족부장관상

- 방유빈 (탕정중학교)
- 오현숙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충청남도지사상

- 조지향 (정안중학교)
- 오영석 (온양고등학교)

충청남도교육감상

- 박범수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 배예니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사장상

- 김지아 (대천여자중학교)

방유빈

탕정중학교 2학년

환경과 음악을 연주하는 유빈이의 콘체르트(협주곡)

<환경봉사>

I. 앞마당에서 시작된 환경동아리

저희집은 분리수거를 아주 철저히 하는 엄마가 계십니다. 저와 동생이 잘못 버리면 쓰레기를 다시 꺼내어 다시 하라고 하시고 특히 비닐도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 잘 안된다고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학교 쓰레기의 분리수거나 대형마트의 분리수거함을 유심히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앞이 바로 분리수거장이었는데 저희 집 앞마당과 같은 분리수거장에 가보면 항상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들이 신경을 쓰셔서 잘 정돈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때 우연히 지나가다 잘 정돈된 분리수거장을 자세히 가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걸만 깨끗하게 정돈을 하였지 종이 분리수거에 코팅된 종이가 있고 플라스틱함에 비닐이 있어 사실은 걸만 깨끗하고 실제로는 잘된 분리수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의 옳은 방법과 비닐이 수거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선 동네의 친한 친구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우리들의 할 일을 알리고 함께 활동하자고 하여 환경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아리의 일은 아파트의 올바른 분리수거를 홍보하는 모임입니다. 올바른 분리수거를 위한 방법을 회지로 만들어 동마다 부치고 우리 동네의 육교도 청소하였습니다. 회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버려진 캔으로 작품을 만드는 캔아트도 하였고 회원간의 친목을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II. 동아리 활동 중단과 재탄생

이렇게 시작된 환경동아리는 처음에는 관심 속에 잘 운영되었지만 한 달에 두 번 토요일에 정기 모임을 하였는데 각자의 일이 있고, 토요일에 영재수업을 받는 아이들, 이사는 아이들 이런저런 일로 친구들이 잘 안 모였습니다. 모임일정을 알리고 모임에서 할 일을 정하는 일도 어린 저에게 힘든 일이었지만 친구들이 모임에 잘 안나오는 일이 제일 힘들고 어린맘에 원망스럽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쯤 활동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아 주위의 여러 환경캠프를 참여 하였습니다.

시민모임에서 하는 새 관찰을 통하여 새의 생태환경과 인간의 환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

다는 것도 알았고 특히 일년간 참여한 아산시에서 주최하는 영인산 생태공부에서 나무와 곤충, 새, 흙, 모든 자연이 장난감인 동시에 공부할 것이 되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재미와 자유로움을 체험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아산의 어린이들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라면 환경동아리 활동을 잘 할 것 같고 동네 동아리가 아닌 아산시로 확대하여 동아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교내가 아닌 학교를 떠나 교외에서의 동아리 운영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경험한 제가 다시 용기를 내서 하기는 좀 두려웠습니다. 저는 조류 보호협회 김상섭 선생님께 상담을 드렸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중단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선생님께서는 훌륭한 리더란 어려운 일을 중단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며 실패를 경험삼아 어려움을 주위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이겨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경험이 다음에 제가 성장하였을 때 갖추어야 할 리더의 덕목을 지금부터 연습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힘을 내어 친구에게 동아리 소개를 하고 같이 활동하도록 권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들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고 엄마와 선생님들께도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단되었던 동아리 활동을 다시 하게 되었으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또 동아리 일들을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임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 활동의 보람은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환경보호 실천자가 많아진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Ⅲ. 우리나라 청소년환경리더와의 만남에서 세계청소년환경리더와의 만남까지

저는 더욱 환경에 대한 정보와 지도를 받기위하여 유엔의 환경위원회 유넫의 어린이 모임인 <툰자>의 모집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3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우리 동아리 활동을 발표하고 지도받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한국 대표로 유엔어린이환경회의(인도네시아)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곳 회의가 가서 세계적으로 환경활동하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특히 나무를 많이 심은 조너던 리의 환경운동에 관한 연설을 듣고 환경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들었습니다. 만화를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실제로 나무를 심는 활동까지 이어지는 연설을 듣고 자신의 재능으로 환경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나도 우리 동아리 회원들의 재능과 나의 재능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아산을 넘어 우리나라의 환경운동과 세계적 환경운동도 꿈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유엔의 환경위원회인 유넫의 사무총장인 아킴 슈타이너의 연설을 직접듣고 행사를 진행하는 유엔의 직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유니세프의 일은 의외로 한국의 3D 업종과 같이 힘든 일이며 제3국의 천재지변이나 물질적 어려움을 통한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며 봉사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아 환경의 일을 하는 유엔직원이나 유니세프의 일을 하는 진로도 마음을 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IV. 2013년 프로젝트 버드세이버 활동

동아리 모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1부터 연간 프로젝트를 정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2011에는 아산시 곡교천개발 탐사에서는 우리가 사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개발사업을 통하여 새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탐사하였고 수질을 맑게 하는 방법을 토론하고 곡교천의 물을 떠서 부레옥잠을 키워 보았으며 우리가 탐사하기에 불가능한 것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성공적인 개발 사례들을 찾아내어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아산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우수동아리로 선정되어 각 학교선생님과 교육감님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를 하기도 하였고 2012년에는 동아리 부문으로 충청남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3년의 연간 프로젝트는 버드세이버로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고 지내고 우리 동아리를 지도해 주시는 아산시 조류보호협회 회장인신 김상섭 선생님과 대화중에 새를 보호하는 버드세이버 활동 설명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이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하였고 나도 잘 모르는 활동이어서 관심이 갔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우리 가족은 새에 관하여서도 관심이 많아 새도 길러보고 새를 보러 서산 천수만도 자주 갔습니다. 새가 많이 찾아오고 새의 종이 많이 살아야만 우리 인간이 살기에도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새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종 개발과 함께 새의 생존환경이 좋지 않아 새가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사람이 사는 환경도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버드세이버 활동은 바로 조류충돌을 방지하자는 운동입니다. 조류충돌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순항중 조류가 항공기 엔진이나 기체에 부딪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요즘은 항공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로 외벽을 시공하는 건축물이 많아 고층건물들에도 새들이 조류충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새들은 사람보다 혈압도 높고 복잡한 뼈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돌 할 경우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지난 해 에코센터 부산 야생동물치료센터에 따르면 치료를 받은 새 중 30%가 건물에 충돌해 다친새 라고 합니다. 이에 에코센터는 조류충돌 사고 방지를 위해 독수리 모양의 검은색 스티커 버드 새이버 (Bird Saver) 50여 장을 붙였는데, 이후 조류충돌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외의 경우 불투명 유리를 사용하거나 유리의 각도를 조정해 반사율을 최소화한다니 우리나라도 유리건물 건축시 법률적으로 새를 보호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이것이 추진 중이라 합니다.

우선 우리 동아리는 운영자금이 없어 아산시조류협회의 도움을 받아 함께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은 맹독류, 새의 천적과 같은 것이고 스티커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임전에 어디에 붙여야 할지 탐사하고 붙이는 곳의 허락을 받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붙이는 곳이 공공건물일 경우 시의 환경과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아파트일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선 우리 동아리 소개와 버드세이버 소개 자료를 만들어 아산시의 환경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아산시 환경행사에 많이 참여하여 시청의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며 항상 저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서 어려움 없이 아산시 관공서에서 버드세이버를 붙이는 일을 주선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에만 그렇게 찾아가고 다음에는 담당자에게 전화만 하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선 연초에 모임을 갖고 버드세이버에 관하여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하여 회원들에게 알려주었으며 동아리 회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새가 죽어있는 것을 보았거나 주변에서 어느 곳에 붙이면 효과적일지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회원들이 아산시 평생학습관, 용화중학교쪽 대로변, 서해그랑블아파트 방음벽, 또 회원들의 아파트에 돌아가며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붙이는 것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스티커에 기포가 생기지 않게 잘 밀면서 붙이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포가 많이 생겨 자꾸 다시 붙이며 작업을 하였는데 지금은 자꾸 하다보니 잘 붙이는 회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청의 공무원께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게 설명을 해놓으면 좋겠다고 지도해 주셔서 버드세이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우리동아리에 관한 설명도 적어 코팅하여 함께 부착시키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관리실방문은 좀 긴장되긴 했지만 활동사진과 함께 버드세이버 설명을 하면 허락을 해 주셨고 개인회원들의 아파트 관리실은 회원과 경험이 있는 제가 함께 동행하여 방문했으며 공문화해서 가져오라고 하시는 곳도 있어 아빠께 도움을 받아 공문이라는 것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때 그때 해야만 하는 일은 간단한 것과 좀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조류보호협회 선생님과 부모님께 여쭙보며 도움을 얻어 활동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V. 5년 동안의 활동에서 얻어진 앞으로의 계획

5년간의 환경활동에서 얻어진 것은 환경봉사는 결과가 눈에 띄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해드린다거나 나 자신이 뿌듯하게 와 닿는 기쁨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른 활동은 어른신을 만나 봉사하면 어르신께 해 드린 봉사에 서로가 기쁜 마음과 흐뭇한 마음이 생기는데 환경봉사는 멀리보고 하는 것이고 버드세이버 활동시 새가 찾아와 고맙다고 하지도 않고 분리수거를 잘하여 재활용되는 경로를 직접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온난화로 인하여 우리가 여름이 길어지고 날씨가 좋은 아름다운 봄과 가을이 짧아지며 국지성 폭우와 폭설은 우리의 생활에 불편으로 찾아옵니다. 그 피해와 변화가 우리생활 큰 틀을 바꿔놓습니다.

우선 동아리 회원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실외 활동과 함께 실내모임을 갖고 많은 환경정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저와 회원들이 환경에 대하여 주제를 가지고 자신들이 공부한 것을

<음악지도와 연주봉사>

I. 동네 이웃집으로 악기지도 봉사

우리 동네에는 이상한 집이 있었는데 사교육기관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지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그곳을 방문하여 여쭙보니 그곳은 청각장애인들의 자녀들이 모여서 방과후를 보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은 손으로 말한다는 뜻으로 손말지역아동센터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의 선생님께서 이곳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언어력과 음악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초등학생이고 악기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다음에 중학생이 되어서 이곳에 와서 동생들에게 악기를 지도해주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중학생이 된 저는 저의 생각을 그 곳의 선생님께 말씀드렸고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한 마음속의 약속을 지키었습니다. 동생들에게 클래식기타와 하모니카를 지도하고 있으니까요.

II. 쉽지 않은 악기지도

그곳의 동생들은 말을 할 수는 있어도 부모님과 수화로 소통하며 지냈습니다. 그 후에 봉사를 하며 느낀 것인데 아이들이 부모님과 소통하는 것을 답답해하며 서로의 대화가 안 통할 때에는 조금 신경질적으로 저항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동생들과 지내는 시간이 흐를수록 청각장애인 자녀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그들의 어려움을 악기연주를 잘하여 음악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니 길에 가다가도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아동센터에서 보다가 길에서 보면 매우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동생들이 부모님께 수화로 저를 소개해 주면 부모님은 자신들은 듣지 못해도 자녀들이 음악을 배우는 것에 대하여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기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저희 집에 있는 기타 2대를 들고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악기가 있어야 연습도 하고 동생들도 흥미를 느낄 것 같았습니다. 그곳의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시청의 여성복지과 과장님을 찾아가서 저의 사정을 얘기했더니 칭찬해 주시고 기타 4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하모니카 악기는 비싸지 않았기에 학생들이 준비하고 저희 집에서 쓰던 악기도 주었습니다. 이제 악기는 다 구해졌고 열심히 하는 동생도 있어 참 기특하고 가르치는 기쁨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보였다가 점차 연습도 하지 않고 결석도 가끔 하였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꾸준히 연습해라! 수업 전에 악기 준비와 조율을 해놓아라! 수업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하며 지도하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충고의 말이 어디에선가 들었던 소리인데... 엄마와 악기선생님께서 저에게 했던 얘기였습니다. 저를 뒤돌아 보며 나의생활과 학습, 악기연습에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Ⅲ. 힘내라! 음악회 개최

동생들이 열심히 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님이시기에 가족과 함께 음악회를 갈 기회가 없었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음악을 들을 기회가 적어서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아직 어려서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열심히 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 생각되어 그곳 교실에서 음악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악기를 잘하는 선배에게 음악회에서 연주해 줄 것을 부탁하고 제가 배우는 악기선생님들에게도 연주를 부탁하였습니다. 또 하모니카를 배우는 제 동생과 문화센터에서 만난 하모니카의 고수도 초청하였습니다. 사회는 내가 보고 악기의 특징과 곡의 설명도 인터넷을 뒤지며 PPT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간식비와 약간의 교통비가 필요했는데 엄마에게 부탁드리면 주시겠지만 이웃들과 함께 좋은 일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다니는 치과와 약국, 회원에 가서 후원을 부탁드렸더니 칭찬해주시고 흔쾌히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이 주신다는 것도 사양하고 모두 10만원이 필요하여 3곳에서 10만원만 후원받았습니다.

연주회 하는 동안 동생들과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님들도 오셨으며 그곳에 계신 분이 수화로 통역을 해 주셨습니다.

음악회는 연주자나 관객들도 모두 흐뭇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연주회가 끝나고 간식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Ⅳ. 연주회의 기쁨은 쪽 ~ 계속 되고파

연주회가 끝나고 연주회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다음에 또 그런 음악회 안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찾아가서 음악회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능을 가진 주위의 학생들도 재능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음악을 직접 들을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일은 참 좋은 일 같은데 제가 리더가 되어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고 스마트폰이라는 편리한 소통의 방법을 빌리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번 해 보았으니 경험을 살려 해보리라 생각하고 회원을 확보하거나 동아리의 이름을 짓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지난번의 음악회 출연자를 중심으로 각 악기 연주를 잘 한다는 학생을 찾는 일은 생각같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존 회원의 어머니들께서 학생을 소개해주시어 어렵지 않게 15명의 학생들을 모아졌습니다. 그중에서는 음악전공을 꿈꾸는 학생들과 전공하지는 않지만 음악이 좋아서 연주 실력을 쌓은 학생도 있어 자신이 연주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는 것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나의 작은 노력과 수고가 많은 학생들이 마음에 하고 싶었던 일들에 실현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신문기사나 1365나눔센터의 동아리로 등록되어 있어 그곳에 찾아와 연주봉사를 하겠다는 문의를 하여 오디션을 봐야 할 정도로 많은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의 이름은 레가토입니다. 여러 음악용어 가지고 이름을 생각해 보았는데 레가토는 음악용어로 부드럽게 연주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좀더 전문적인 음악표현은

앞뒤의 분위기를 잘 살리어 서로 이어주라는 뜻입니다. 소통을 중요시하는 사회 속에 음악으로 서로 부드럽게 소통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우리 회원이 아이디어를 내어 지었습니다.

연주 장소를 선택하는 문제도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경써서 보니 동네의 지역아동센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곳에 찾아가 동아리 소개를 하였고 음악회 사진을 보여주며 허락을 받아 일정을 잡았습니다. 물론 아산과 천안에 흩어져 있는 회원이지만 핸드폰의 메시지로 일정을 알리는 일과 장소를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고 부모님께서도 네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잘 찾아 오셨습니다.

연주회의 스폰서를 찾는일도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동네의 피자가게, 단골 미용실, 악기점, 문방구등 나눔의 의식이 높아져 칭찬과 격려의 말씀과 함께 경제가 힘든 요즘에도 나눔을 위하여 돈을 쓰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 주셨습니다. 방송뉴스 나오는 위험한 소식을 들으며 항상 긴장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생각되었는데 우리 동네 이웃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든든함을 느꼈으며 나도 이 다음에 경제활동을 하면 이웃에게 봉사와 함께 물질적으로도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박하게 무대 없이 지역아동센터의 교실에서 연주가들이 악기소개와 곡 소개도 하며 자신들이 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하며 자연스런 진행형식으로 진행하니 진행자인 나도 부담도 덜 느꼈으며 저의 연주파트도 더욱 열심히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초보 연주자이지만 자신감과 음악적 의욕을 일으키기 위하여 손말지역아동센터의 동생 제자들에게도 연주기회를 주었습니다.

3회의 음악회를 치룬 지금 이제는 회원과 저 모두 음악회의 준비 상태나 연주회 날 진행이 익숙해졌으며 더욱 성숙한 연주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V. 앞으로의 계획

아산의 지역아동센터는 약 50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1년에 5번 연주하면 10년이 걸리겠네요? 우리는 10년 후 이곳에 살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겠죠?

또 50개의 지역아동센터는 학생이 바뀝니다. 연주회는 우리가 계속하지 못해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어주는 것이 저의 숙제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삶의 화음이고 이런 화음이 세상에 울릴 때 이것이 아름다운 협주곡으로 연주될 것입니다.

활동일시	주요활동내역	활동장소
2013/02/03	악기지도(기타반,하모니카반)	손말지역아동센터
2013/02/17	악기지도(기타반,하모니카반)	손말지역아동센터
2013/03/03	악기지도(기타반,하모니카반)	손말지역아동센터
2013/03/10	악기지도(기타반,하모니카반)	손말지역아동센터
2013/03/23	환경동아리 소개 및 2013버드세이버 프로젝트설명	아산자원봉사센터
2013/03/24	악기지도(기타반,하모니카반)	손말지역아동센터
2013/03/31	악기지도(기타반,하모니카반)	손말지역아동센터
2013/04/07	악기지도(기타반,하모니카반)	손말지역아동센터
2013/04/14	악기지도(기타반,하모니카반)	손말지역아동센터
2013/04/21	악기지도(기타반,하모니카반)	손말지역아동센터
2013/04/27	악기지도(기타반,하모니카반)	손말지역아동센터
2013/04/27	악기지도(기타반,하모니카반)	손말지역아동센터
2013/04/28	악기지도(기타반,하모니카반)	손말지역아동센터
2013/05/05	버드세이버 활동	아산자원봉사센터
2013/05/12	악기지도(기타반,하모니카반)	손말지역아동센터
2013/05/26	연주봉사 리어설	꿈자리지역아동센터
2013/05/26	악기지도(기타반,하모니카반)	손말지역아동센터
2013/05/30	악기지도(기타반,하모니카반)	손말지역아동센터
2013/06/01	연주봉사실시 및 뒷정리	꿈자리지역아동센터
2013/06/09	환경의 날 부스 운영 (흙공 만들기)	아산자원봉사센터
2013/07/27	버드세이버 활동	아산자원봉사센터
2013/09/05	연주봉사 리어설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2013/09/06	연주봉사 리어설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2013/09/07	연주봉사 실시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오현숙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소중한 추억 함부로 얻을 수 없는 값진 행복

① 동기

나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많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추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과의 인연과 추억이다. 어르신들과의 인연과 추억을 제일 소중히 생각하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열심히도 하고 경험도 쌓아 왔던 봉사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처음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엔 단순히 학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해서든 늘리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이젠 어떻게 하게 되었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여러 사람들을 내가 하는 행동과 내 모든 면으로 인해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고 그만큼 경험도 쌓고 싶었기 때문 이었다.’ 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늘 혼자 지역 지구대나 우체국, 복지시설에 찾아가 직접 일손을 도와 경험을 쌓았다. 그 땐 생활기록부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에는 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 봉사활동에 대해 재미와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 상반되게 어르신들에 대해 슬픈 감정 또한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나에 의해서 행복하고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을 보며 나 또한 행복해졌고 그 시간만큼은 스트레스나 누구에게 압박받지 않는 시간이여서 편하고 너무나도 좋았다.

그래서 봉사활동에 더 애착을 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자주 찾아뵙려고 노력을 하고 방학 때에도 계획한 일정이 아닌 날에도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보러가는 나 자신을 보며 스스로가 신기했다. 그 이유는 바로 할머니들의 진한 인심과 푸근한 할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저절로 느끼게 되었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기분이 좋은 것 인지 깨달았다. 내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가게 된 이유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된 이유도, 내 미래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또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과 뿌듯함과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었던 봉사활동 이었다. 이젠 단순히 생활기록부 채우기가 아닌 내 진심을 담아서 하는 봉사활동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지 거창한 계기가 아닌 ‘내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한다.

② 활동내용 및 실적

나는 처음에 혼자 막연하게 아무 것도 모르는 채로 시작했었다 혼자 다녔던 거라서 계획조차 없었고 그냥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한 봉사활동이었다. 그러다 보니 원래 계획했던 것 중에 지속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질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봉사활동이었다. 또한 그 상태로는 내가 상상했던 추억과 활동이 되지 않았었다. 그 이유는 확실한 계획이나 하고 싶은 것이 없으니 기관 쪽 에서도 불편해 했었고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아서 하고 싶었던 날에도 봉사활동을 하지 못했던 사태도 발생했었다. 그 때에는 내가 미리 눈치 채지 못하고 무작정 행동했던 것에 후회도 많이 하고 적지 않게 당황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었다.

작년에 그랬다면 2013년은 다르게 시작하고 싶어서 1월이 되기 전에 미리 계획표를 세웠었다. 위 사진을 보면 내가 1년 계획표를 미리 세워보았다.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난 미루고 미뤘었던 일이었다. 그래서 왜 이제야 했을까 했는데 그 때라도 깨달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작년엔 계획 없이 간 봉사활동 이어서 항상 같은 활동만 했었다. 지루한 로비청소나 유리창 청소 뿐 이였지만 1년 계획을 하고 미리미리 기관 쪽에 연락을 하니 평소엔 내가 하지 못했던 활동도 할 기회를 주셨다. 작년엔 청소 뿐 이였다면 2013년엔 어르신들과 직접 대화도 하고 말문을 트이게 되고 식사보조도 하며 소통을 하다 보니 여러 경험도 생기게 되고 애정도 생기게 되었다.

또한 욕심은 있었지만 내가 할 리라는 상상은 하지 못했던 이런 자원봉사 대회에도 직접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닌 순전히 내 추억과 이야기 거리로는 나갈 수가 없을 줄 알았다. 그렇지만 그 상상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기도 하고 담임선생님께서도 봉사상이라는 큰 상을 주기도 하셨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나 혼자 봉사활동 하는 것이 아닌 친구들과 친 동생에게 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같이 봉사활동을 가는 친구들과 동생들이 있어서 든든하고 친구들에게도 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추억은 단 할머니와 나와의 추억 이였다. 그 할머니는 나와 함께 깊은 추억과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 할머니의 사연은 가족이 없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셨고 거동이 불편하셨다. 더군다나 치매도 있으셔서 감정기복이 심하셨다. 처음에 뵈었을 때는 화도 내시기도 했고 웃기도 웃으셨고 그러다가 울기까지 하셨고 신세한탄을 하셨다. 그렇지만 이젠 다르다. 예전보다 치매증상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고 날 기억해 주시고 내 사진을 한쪽에 두고 계셨다. 다른 사람들 에겐 사소한 것 이지만 나에게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 이였고 너무 감사했다.

또한, 나는 요즘 손맛사지를 자주 해 드리곤 한다. 다른 사람들의 손을 만지면 그 사람의 체온을 느낄 수 있고 친근감이 들곤 한다. 그래서 인지 나는 손맛사지 활동을 좋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꽤 좋아하셨다. 그래서 더 정성스럽게 만져 드렸고 손맛사지 할

때마다 나는 대화를 이끌어 갔다. 손녀딸처럼 친근하게 다가가 밥은 드셨냐며 안부도 묻고 아픈 곳은 없는지 직접 물어보고 장난도 쳤다. 처음에는 불편해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았고 나도 어르신들이 날 피할까봐 두려웠지만 그래도 도전해 보자는 마음을 먹고 한 마디 한 마디 붙이니 어르신들은 많이 만나 본 사람처럼 날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대답도 잘 해주셨고 어떤 때는 어린아이처럼 보이기도 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어린아이가 되간다는 말을 세삼스레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았다. 사소한 장난만 으로도 매우 좋아하는 것을 보고 과자, 음료수를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가끔 챙겨 가기도 하지만 나에게 하나씩 쥐어주시는 것을 보면 짱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어떤 날은 간호사 분들도 질투를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는 할머니들에게 애교를 떨곤 한다. 그럴 때마다 이런 면이 있었나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의미로 하는 애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저절로 병원 관계자 분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장난으로 지나가는 말로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어떻겠냐며 종종 물어보시기도 하신다. 그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사소하다고 생각한 것인데 언제 부터인지 너무도 큰 이유가 되어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앞으로 도전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도 너무 좋았다.

또한,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에서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다. 회장으로써 큰 책임감도 있고 대표라는 이유로 큰 자부심도 있고 요구하는 것도 많았지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지난 8개월 동안 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할 것이다. 나는 동아리 회장으로써 행사 계획도 해보고 직접 행사 사회도 맡아 동아리를 소개하고 나 자신을 동아리 회장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듣고 보고 느껴보면 뿌듯하다. 또한 나는 동아리 회장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홍보용 피켓을 직접 만들기도 한다. 주위에서 손재주가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피켓 작업을 많이 했다. 그리고 내가 동아리 회장이라는 것을 솔직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난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난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의 이름으로 자원봉사축제에 참여도 했었다. 동아리 이름이 아닌 문화센터 이름을 내놓고 하는 부스운영이라서 떨리기도 하고 사고 칠까봐 두렵기도 했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잘 해내고 즐기고 왔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봉사활동과 내 추억들과 내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활동을 할 것이다.

③ 활동평가

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감정과 자주 걸리는 질병, 감정변화 등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 처음 봉사활동을 갔을 때엔 나를 거부하는 어르신들의 손길에 대해 두려움도 많았고 쉽게 봉사활동을 하지 못했었다. 그렇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날이 늘어갈수록 애정이 싹트고 내가 더 활발하게 다가 갈수록 어르신들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갈 때마다 수고한다며, 그리고 미안하다면서 쥐어주시는 어르신들의 손길 이었다

이것저것 받으며 괜찮다고 정중히 거절도 했지만 이내 서운해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난 하나하나 받다보니 집에 갈 때는 올 때보다 더 무겁게 가는 느낌 이었다. 나는 어르신들께 드렸던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르신들은 나에게 손녀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다. 활동이 너무나도 수월하게 이루어 질 때면 나도 모르게 처음 봉사할 때처럼 조신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혼자 신나서 나도 모르게 붕 떠있을 때가 있다. 그럴 땐 어르신들과의 첫 만남을 생각하곤 한다. 그 땐 너무나도 답답했고 내가 봉사활동을 다녀야 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니길 잘 했다는 생각뿐이다.

어르신들 덕분에 나에게도 소중한 추억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을 만나면서 어르신 개개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좋았다. 또한 어르신들 덕분에 나는 얻은 것도 많았다. 주위 사람들의 신뢰도가 있다는 것과 봉사를 한 경력도 많다며 칭찬도 많이 들었고, 봉사꾼이라는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나는 봉사활동으로 인해 내 새로운 장래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 직업은 '사회복지사'이다. 주위에서 힘들다고 말리긴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내 장래희망으로 꿈꾸고 싶다.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된 계기도 어르신들과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 선생님들 덕분이였다. 노인 복지 뿐만 아닌 나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처음 봉사활동을 갈 때에만 해도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걱정만 있었는데 그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 이었다. 저절로 어르신들의 마음은 열렸고 자연스럽게 나와 어르신들과의 사이도 가까워지고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또한 어르신들은 나이가 더해질수록 어린아이가 된다고 들은 만큼 정말 어린아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린아이가 된 어르신들을 돌보다 보니 나에게도 많은 노후우려가 생기기도 했다. 그 눈높이에 맞게 행동을 하거나 어린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줄 때처럼 앞에 앉아서 즐겁다는 듯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활동으로 인해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어린이들과의 캠프도 가게 되었다. 비전 트립이라는 캠프였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가는 캠프였다. 그 캠프 또한 걱정이 많이 되었다. 내가 걱정한 대로 처음 만난 아이들과 나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한마디도 없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에게 눈높이를 맞췄던 만큼 아이들에게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는 나타났다. 강의를 듣는 아이들에게 힘내라고 곧 마칠 것이라는 말과 사탕 같은 굳것질 거리를 나눠주었다. 그리고 아이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장래희망 이야기나 스트레스 이야기 학교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지도자와 학생들이 아닌 친구가 된 느낌 이었다. 아이들도 날 편하게 느끼고 첫 만남이 좋았는지 설문조사 마지막 바라는 점에 '2차 캠프 때에도 오현숙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써 놓았다. 나는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처음 만난 아이들과 함께 처음엔 길다고 느꼈던 1박2일 캠프 여정이 짧은 1박2일 동안의 여정으로 바뀌고 헤어질 땐 아쉬웠던 캠프를 재밌고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2차 캠프 때 아이들과 꼭 다시 지도자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다.

그리고 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회장으로써 많은 일을 겪어왔다. 그만큼 힘든 점도 많았다.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일과 짊어진 짐은 내려놓질 못했다. 해결 할 방법도 쉽게 찾지 못했고 모든 일을 어렵게 해 나가기만 했었다. 일이 하나도 풀리지 않고 점점 꼬여가기만 할 때마다 포기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생각보다 잦았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내가 포기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꾸느라 더 힘들 것이고 나와 한 약속은 다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이라도 나는 내 자리를 질풍지경초처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질풍지경초는 바람을 만나 모든 풀이 꺾이는데도 그 중에 꼳꼳이 서 있는 풀의 굳셈을 안다는 뜻이다. 그 뜻을 보고 나도 포기하고 싶은 이유가 많아도 꼳꼳이 서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내가 봉사활동 하는 것 만 아닌 나는 동아리 회장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름길로 행동하지 않고 바른길로 행동하려 노력한다.

나는 봉사활동을 다녀올 때마다 활동일지를 작성한다. 그 활동일지를 매일매일 작업할 때마다 그만두고 싶지만 나는 그날 있었던 사진들을 보며 위로하곤 한다. 그 활동일지를 작업하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대화를 통해 웃고 떠들었는지 떠올려 보고 생각하게 되고 어르신들 생각에 일요일 저녁이 행복하고 재밌었다. 항상 이 작업을 할 때마다 나는 하루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 평소에는 너무 정신없고 허비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이 작업을 할 때는 이 생각만 하다 보니 저절로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서 나에겐 일거양득의 효과였다.

또한 활동내용에서 말 했듯이 나는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동아리회장을 맡으면서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크고 힘든지를 깨달았다. 항상 먼저 연락을 하고 인원을 모으고 마치 선생님같이 또래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나도 모르게, 억지로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잔소리를 하는 내내 그 친구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나중에는 내 생각보다 오히려 더 잘해내는 친구들을 보면서 더 뿌듯했었다. 이제는 그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먼저 내고 더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 키우는 느낌이 날 때도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기분이고 또 나 자신도 성장해 나간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곤 한다. 여전히 답답하기도 하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언젠간 끝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쌓이기도 하고 친구들이 나와서 사이를 좁히며 회의를 할 때마다 문제점이 해소되는 느낌이다. 이제는 모든 일이 거의 익숙해져서 일도 척척 해낼 때도 있고 많은 발전을 통해 리더의 자격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문화센터 선생님들도 나에게 일도 맡기실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은 내년에 대학생이 되면 동아리 회장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보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해주시기도 한다. 나는 그 위원장의 일보다 지금 일에 더 충실하게 행동해서 지금의 동아리 회장 일을 누구보다 마지막까지 역시 내가 동아리 회장들 중에 제일 충실하고 최고라며 칭찬 받는 일을 하고 싶다.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 만큼 나는 칭찬을 받았던 만큼 성장한 것 같다. 앞으로 성장할 기회가 많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나는 작년에 했던 자원봉사 대축제에 참가할 것이다.

그 축제에 참가해서 동아리의 매력을 뽐내고 홍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우수동아리 표창도 목표이지만 준수표창을 받고 싶었다. 작년에 내 또래가 그 표창을 받는 것을 보고 나도 욕심이 났다. 그래서 그 동안 추억도 만들고 목표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봉사활동도 봉사활동이지만 나는 내 목표를 위해 열심히 활동 할 것이다. 내가 열심히 활동 할수록 남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싶었다.

셋째. 그리고 나는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서 찾아가고 싶다. 저번에 한번 준비하고 찾아갔었는데 너무나도 반응이 좋았었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하고 싶다.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정성도 가득히 담아가고 싶다. 어르신들이 나에게 해준 만큼 나도 어르신들에게 기억이 남는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양손 가득히 가져가면 내 마음도 두둑해 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고 포장하는 절차마저 너무나도 즐거웠었고 어르신들의 표정도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꼭 다시 하고 싶다.

넷째. 나는 불과 한 달 전에 했었던 동아리 자선콘서트를 다시 하고 싶다. 이 행사를 했을 때에는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관람객과 성금은 많이 없었지만 모두가 뿌듯하고 만족하는 행사였다.

직접 계획도 하고 포스터도 만들어보고 직접 홍보도 다녀보고 포스터를 이곳저곳 붙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처음 하는 거라 서툴고 많이 부족했지만 그만큼 많이 해보면 좋은 결과도 있고 익숙해 질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한다면 더 완벽하게 하기위한 노력과 모든 동아리 회장들과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홍보도 하고 참가하는 팀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고 친밀감이 생긴 어르신들 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은 시간동안 열심히 봉사활동을 다니며 어르신들과의 소통에 대해 힘을 쓸 것이다. 평소에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은 어르신들과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준비해 간다 해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이 된다.

어르신들과의 소통과 내가 할 수 있는 소중한 재능의 폭을 넓히며 알려드리고 싶다. 글을 잘 알지 못하시고 미술과 공예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교재와 각종 준비물을 챙겨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피우며 활동 하고 싶다.

내가 아무리 이것저것 하고 싶다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동안 많이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어르신들과의 소통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 볼 것이다.

여섯째. 나는 병원 봉사활동만이 아닌 아동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나는 평소에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꿈해랑 아이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간다. 봉사활동 가는 장소 또한 노인복지관 이지만 나는 복지관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도 아동들을 위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아동을 위한 봉사도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고 그 아이들에게 맞춰주어야 한다. 그렇지
만 너무 맞춰주면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맞춰주어야 하는 것이 6개월
동안 같이 봉사활동을 다니면서도 쉽사리 맞춰줄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
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아이들과도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은 내 만족이 아닌 아동들과 나 사이
를 연결해주는 고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두 쪽 다 만족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일 보다 더 중요
할 것 같아서 꼭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섯 가지를 통틀어 내 미래 계획은 2013년에 모두 끝낼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 힘쓰고 관심을 가지고 더 들여다 볼 것이다. 다 끝낼 수 있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예측이고 확신이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도전 할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모두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며 도전하고 그 도전에 마치
해답같이 맞는 성공을 꿈꾸고 경험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힘든 일을 겪어야 하
는 것도 알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이번 년도를 목표로 잡고 실행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봉사활동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
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므로 나는 고등학교 시절을 끝낸 후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예정이다.

■ 봉사활동 실천내용

개 인	성명 : 오현숙 (서천여자) 고등학교 3 학년	
주요활동요약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 병원 외,내부청소, 식사보조, 식자재손질 등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 행사부스진행, 시설안내봉사	
활 동 일 시 (2012 년)	주요활동내역	활동장소
09월 08일 10:00 ~ 13:00	병동청소 및 어르신 말벗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09월 22일 10:00 ~ 13:00	시설청소 및 어르신 말벗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10월 27일 10:00 ~ 13:00	병동청소 및 어르신 말벗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11월 03일 14:00 ~ 17:00	제 9회 청소년 인권문화제 참석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월 10일 10:00 ~ 13:00	식자재 손질, 어르신 말벗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11월 10일 13:30 ~ 19:30	독서캠프 참여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11월 17일 12:00 ~ 16:00	자원봉사자 축제참여 및 자원봉사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11월 24일 09:40 ~ 10:40	시설청소 및 어르신 말벗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12월 15일 14:00 ~ 18:00	동아리축제 참여 자원봉사활동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12월 22일 10:00 ~ 13:00	병동청소 및 어르신 말벗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2 0 1 3 년		
03월 10일 11:00 ~ 13:00	병원 내 청소 및 일손돕기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03월 17일 15:00 ~ 18:00	청소년문화센터 안내봉사 및 정리활동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03월 24일 11:00 ~ 13:00	시설청소 및 일손돕기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03월 30일 13:00 ~ 18:00	청소년문화센터 토요대소동 행사진행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04월 14일 11:00 ~ 14:00	청소 및 식사보조, 말벗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04월 20일 11:00 ~ 13:00	청소년문화센터 안내봉사 및 정리활동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04월 20일 11:00 ~ 13:00	청소 및 일손돕기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05월 04일 11:00 ~ 13:00	말벗 및 시설청소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05월 19일 11:00 ~ 13:00	청소 및 식사보조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05월 31일 14:00 ~ 17:00	드림맵 3차 행사부스 운영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06월 09일 11:00 ~ 13:00	청소 및 식사보조, 말벗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06월 15일 11:00 ~ 16:00	한여름밤의 꿈 동아리 축제 진행 및 봉사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06월 22일 11:00 ~ 13:00	청소 및 주방보조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07월 14일 11:00 ~ 13:00	청소 및 식사보조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07월 30일 11:00 ~ 13:00	청소 및 식사보조, 말벗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07월 31일 18:00 ~ 21:00	청소년문화센터 안내봉사 및 정리활동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08월 02일 09:30 ~ 15:30	청소년문화센터 안내봉사 및 정리활동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08월 14일 11:00 ~ 13:00	식사보조 및 일손돕기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08월 16일 11:00 ~ 13:00	청소 및 일손돕기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08월 24일 12:00 ~ 17:00	청소년문화센터 안내봉사 및 도서관 정리활동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09월 01일 11:00 ~ 13:00	식사보조 및 일손돕기, 말벗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09월 07일 11:00 ~ 13:00	청소년문화센터 안내봉사 및 정리활동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09월 29일 11:00 ~ 13:00	식사보조 및 일손돕기, 말벗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조지향

정안중학교

제 목 : 행복 충전소

- 나를 거듭나게 한 소망공동체 숙식봉사활동

가. 동기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주위가 이상했다. 웃고 장난치며 떠들던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눈치를 보며 나를 피했다. 여럿이 말하다가도 내가 가면 푹 멈추고, 핸드폰으로 보내오는 문자마다 욕설이 시작되었다. ‘이게 소의 말하는 왕따라는 거구나!’

중간고사가 코앞인데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 나한테 이러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열 번 스무 번을 생각해도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 아이들에게 똑같이 욕을 해주고 패고 싶었다. 중간고사는 내가 본 시험 중에 최악이었다.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학교를 그만 두고 싶었다. 엄마 품에 안기니 몇 달 동안 힘들었던 나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영영대며 울었다. 학교가 가기 싫었고 학교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히고 숨이 찼다. 그런 상황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은 상처를 주어 즐거워야 할 학교가 지겹고, 저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힘겹게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그러던 어느날, 현정호 선생님께서 저에게 장애인 시설인 소망공동체 가족 봉사활동을 안내해주셨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활동 내용 및 실적

어느 날, 장애를 가지신 어른이 수저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바닥에 얼굴이 거의 닿을 정도로 옆드려서 밥을 드시고 있었다. 손과 발이 비틀려있는 뇌성마비 분이였다. 그 순간 뭔가에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였다. 가슴가득 꽉 막혀 숨도 쉬기 어려웠다. 내 고민은 이분에 비하면 정말 사치스러운 장난처럼 느껴졌다.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고민거리들이 정말 하찮게 느껴지고 저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도 힘겹게 드시면서도 저렇게 행복한 감정으로 웃고 있는데 나의 고민들은 저런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지내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너무 작아 보였다.

그날을 계기로 가족들과 함께 소망의 집에서 숙식봉사를 하며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며 언제나 얼굴에 해맑은 웃음을 지니고 계시는 소망식구들을 보며 ‘나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왜 그동안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며 나 자신을 아프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감

사해야 할 이유가 많아졌고, 다른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고 나를 보고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또한 가족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다.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이렇듯 숙식봉사는 행복함과 뿌듯함을 가득 담아오는 저만의 '행복충전소'입니다.

우리 학교는 홀몸노인들과 결연을 맺어 전교생을 7개의 조로 나누어 매달 첫 번째와 세 번째 토요일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봉사활동을 갑니다. 소망공동체에서 총진해온 사랑을 이웃 외로운 할머니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보답의 시간입니다. 마을회관에서 친구들과 엄마와 할머니들과 함께 김밥을 만들 때 한 할머니께서 '내가 말이며, 내 새끼들 어디 갈 때나 김밥을 싸봤지. 이렇게 나 먹으려고 싸는 거는 이게 처음이여.'라고 말씀하시며 굼뜨신 손으로 김밥을 만드시던 모습이 아직도 새록새록 기억한다. 그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저분들께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물건과, 선물이 아닌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과 관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주위의 정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자'라고 결심했다. 이렇게 봉사를 통해 상처받은 제 마음이 치유되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다 보니 저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도 용서하게 되었고, 제 주위의 저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 활동평가

매주 소망공동체 분들과 밥도 같이 먹고, 손잡고 산책하고, 사진첩 보며 이야기 하는 모든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였고, 다시 태어난 기분이 되었다. 빨래를 하며 더럽게 묻혀 있던 속옷도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이 대견스럽고 놀라웠다. 한 수저 먹으면 반은 흘러내리는 장애우의 턱을 휴지로 닦아가며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눈이 마주치면 활짝 웃는 그들을 보며 나도 모르는 용기가 생겼다. 소망공동체를 다니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 내 마음에서 미움, 욕심, 불만을 내려놓으니 친구들도 한 명, 두 명 말을 걸어왔고 학교생활이 즐겁게 되었다. 성적도 향상되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해 중학교에 와서도 적응을 못해 쉬는 시간이나, 공부시간도 전혀 같이 참여 못하는 친구가 있었다. 매 시간 옆드려 자기 일쑤였고 외톨이었다. '난 몇 달 동안도 힘들었는데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그 친구에게 소망공동체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첫날 숙식봉사를 했다. 첫 날, 그 친구는 말없이 바라보더니 잠만 잤다. 비위가 상했는지 저녁도 먹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난 저 사람들 보다는 좀 낫네'라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그곳으로 놀러 다니게 되었다. 봉사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낫게 하고, 그 자리에 예쁜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채우기 위해.....

얼마 전에 학교에서 하는 보충수업을 끝나고 집에 가다가 길에 봉숭아꽃이 예쁘게 피어있었다. '소망식구들과 함께 물들이면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비닐봉지를 가져와 봉숭아꽃을 담아 말렸다가 주말 작은 절구와 백반과 비닐장갑과 테이프를 준비해 소

망식구들에게 달려가 봉숭아물들이기를 했다. 준비해온 작은 절구에 봉숭아꽃을 넣고 백반을 넣어 으깨어 소망식구들의 손가락에 올려드려 비닐장갑으로 씌워 테이프로 감아드리니, 혹시나 안 예쁘게 들까봐 걸을 때도 조심조심, 잠을 잘 때도 조심하시는 소망식구들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뿌듯하고,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되어 기분이 좋았다.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저밖에 모르는 우리집의 어리광쟁이 막내 이었는데 이제 조금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멋진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렇게 봉사활동이 행복하다보니 중학교에서 봉사활동한 시간이 350시간이 넘었다. 봉사활동이 의무가 아닌 행복충전소이기에...

라. 향후 활동계획

나도 왕따를 당할 그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억울한 심정뿐이었다. 누구의 위로나 이야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통해 감사한 조건이 너무 많아 주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행복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되니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저는 이러한 깨달음을 힘들과 아파하는 친구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얻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안내 할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또 그 작은 배려가 또 다른 배려를 낳아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테니.....

저는 장애인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어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깨달은 소중함은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깨우쳐주는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개인의 선행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유도하고 파급시켜 사회적 공감대와 제도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제도화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이 지역의 기피시설이 아니라 삭막해지는 현대사회에 장애인을 통해 치유와 재충전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교육시설로 탈바꿈하고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미를 재충전할 수 있는 복지교육시설로 바꾸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공부하고 싶습니다.

캠프 힐에서 1년간 활동한 대학생처럼, 저는 대학에 진학하여 영국의 캠프 힐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들 때부터 도와주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다면 우리사회가 훨씬 밝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엄마와 나는 소망공동체에 봉사하러 갑니다. 나의 행복을 충전하여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

■ 봉사활동 실천내용

개 인	성명 : 조 지 향 (정안중학교) 3 학년
주요활동요약	소망공동체에서 가족과 숙식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감사와 기쁨을 어려워하는 반 친구들과 주변의 아이들에게 숙식봉사를 인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였음, 또한 지역 노인회관노인들과 결연을 맺어 월 2회씩 음식만들어 나누는 봉사활동을 실시함

오영석

은양고등학교

open view open mind

I say volunteer work you say crazy

동기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1. 동기

어릴 때부터 가정형편이 가난하여 아버님과 어머님이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1996년생)

그래서 저는 이웃들에게 돌봄을 받아 왔습니다. 어릴 땐 몰랐지만 서서히 커가면서 이 과정을 알게 되었고, 충격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린나이 때부터 이웃에게 봉사를 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상에는 저 보다 더한 아이들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많이는 아니겠지만, 제가 손이 닿는데 까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획을 정하는 이유는

획기적인 활동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다

가-2. 활동계획

각자만의 방법이 있듯이 저는 달력에 미리미리 할 것과 그때그때마다의 상황을 써 놓습니다. 그리고 저의 봉사단이 있는데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팀원의 개인사정을 들어보고 참가할 수 있을지를 우선적으로 본 후 우리들이 앞으로 할 계획과 그 계획으로 끼치는 영향을 신중히 생각 한 후 계획을 마칩니다. 계획이란 것이 봉사활동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틀이 잘못 잡힌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 갈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 팀원들과의 장시간의 회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올바른 계획을 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봉사활동을 해보셨나요?

적절한 시간을 내어 봉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나-1. 활동 내용 및 실적

1. 대한민국이 전체 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날이 갈수록 감소가 되지만 청소년 남자 흡연 그래프를 보니 처음 조사한 년도보다는 증가 큰 그래프를 보았습니다. 지금이 16.3%지만 위험한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저는 조금이라도 이 위험한 사태를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캠페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 이였고, 처음 하는 캠페인이라 매우 걱정이 크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소를 섭외한 후 1차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해로운 지식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담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캠페인활동을 해 나갈지 생각했습니다.2차 회의 끝에 우리는 아산시 보건소에 도움을 받기로 결정한 후 많은 자료들과 홍보자료를 만들어 바로 캠페인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아산에 있는 관내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고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담배를 많이 피는 것을 목격하는 학생들도 많았었고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날을 잡아 아산시 관내를 돌아다니며 담배의 유해성을 많이 알리는 캠페인을 활동하였습니다.

2. 주기적으로 효 요양병원을 다녔습니다. 토요일 날 시간을 조금 내어 오전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셔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봉사를 하였을 땐 정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한다면, 여기 계신 어르신과 이별이라는 생각을 하여 슬프고 내가 이 어르신을 꼭 간병을 해주어야 맘이 편해 질 것 같아서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사진도 찍고, 저를 손자처럼 여기여 주셔서 매일 찾아 뵈 때마다 얼마나 즐거운지 끝나고 집으로 발걸음을 향할 때는 다음 주에 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요양병원봉사에 자주 가는 이유는 정 이라는 것도 있지만 항상 사람이 쉬운 일만하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요양병원 봉사를 다니며 마음의 양식을 더 쌓은 것 같습니다.

3. 저는 헌혈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헌혈 같은 나라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 때라 제한이 걸려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동안 체중미달이기도 하여 남들 보다는 늦게 헌혈을 시작하였지만 꾸준히 지금까지도 헌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 인데 오래 지속되었던 피를 좋은 곳에 쓰이고 새로운 피를 받는 것인데 이 얼마나 좋은 활동입니까, 앞으로 꾸준히 피를 뽑고 뽑아 은장을 넘어 금장까지 받아 볼 생각입니다.

4. 최근에 갔다 왔던 꽃동네 봉사활동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꽃동네 봉사를 지원해 봉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작년 1학년 때에도 가본 적이 있어 그만큼 꽃동네가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꽃동네는 충북 음성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봉사를 하러 가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 년에 한번쯤은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 년 만이라 그런지 감회가 새로웠고 기관들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희망의 집, 사랑의 집, 천사의 집 등…….저는 25살에서 60살까지 계시는 희망의 집으로 배정 받았습니

다. 사전교육을 듣고 바로 봉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제가 지정 된 방을 들어가 봉사를 시작하였고 가자마자 어느 한분이 저를 찾으셔서 어깨를 주물러 달라 하시고 어르신이 시키는 일에는 열심히 다했습니다. 어느 덧 점심시간이 되고 음식을 받아서 모두 배분 시켜 드린 후 한분을 정해서 밥을 먹여 드렸습니다. 말을 못하시는 분이라 조금 힘이 들었지만 몸으로 표현을 하며 밥도 먹여드리고 양치도 해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빨래도 널어드리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방청소도 열심히 하여 다시 방으로 들어가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렸습니다. 끝나가는 시간이 거의 되어 전체적 기관을 청소를 한 후 다시 교육을 받은 곳으로 돌아와 우리가 장애인 체험을 해보고 또 다시 장애의 불편함을 느껴보고 활동을 마쳤습니다.

평소 사람들은 건강한 몸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꽃동네를 가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몸이니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였는데 봉사를 가본 후 나의 신체구조가 똑바로 되어있고 건강하게 있어 다시 소중함과 고마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오고 싶은 봉사활동 같습니다.

5. 저의 휴일을 다 반납 해버린 아동복지관 봉사활동입니다. 제가 4월~7월 까지는 토요일에 쉬는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쉬지는 못하였지만 그만큼 행복했습니다. 처음 아이들과 만났을 때는 어색한 단계여서 서먹서먹하게 지내다 어느덧 매번 보고 챙기다보니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뒤론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며 놀고,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시키고, 예절도 가르쳤습니다. 마치 내 동생이 된 듯한 기분이어서 하루하루 나갈 때 마다 행복했습니다. 제가 막내라 동생이 없어 아쉬웠는데 그런 영향도 끼친 것 같습니다. 봉사를 매번 올 때마다 8시간 봉사를 하였지만 그 시간마저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커서 아동복지관에서 지도 교사로 일을 한다면 매일 매일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사진을 많이 찍지 못하여 그게 가장 아쉬웠고 좋았던 점은 그 아이들과 함께 했던 100여 시간이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으로 쌓인 것 같아 그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 경제?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1. 새롭게 인식하게 된 사실

봉사활동 중 새롭게 인식하게 된 사실은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을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금연 캠페인을 하였을 때의 느낀 점 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 보건소 측에 도움을 요청을 하였고 흔쾌히 도움을 주신다고 해주셔서 이 점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나라에 대한 무관심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사례로는 흡연 증가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사람들은 무관심의 태도를 가지셨고 그 무관심이 이렇게 ‘암’ 이라는 큰 재앙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피가 부족합니다. 항상 헌혈을 하러 가면 직원 분들이 매일 걱정하고 계십니다.

옛날보다는 헌혈하는 사람이 조금 증가하였지만 서서히 인구가 늘어 피가 부족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나라에 대한 무관심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새롭게 접한 사실입니다.

잘된 활동을 통하여 저를
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점점 증진 시키는 것은 봉사입니다

다-2. 잘된 점

잘된 적은 항상 뿌듯함과 많은 영향을 끼쳤다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뿌듯함은 그 어느 것 보다 달콤한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봉사를 자주 나가며 느끼는 것인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답답한 병실에서만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 울컥합니다. 그런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산책을 나가며 추억을 쌓을 때가 가장 뿌듯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로 인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그것이 정말로 행복할 일 인 것 같습니다. 사례로는 아동복지관에 꾸준히 봉사활동을 나가 행복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어린 갓난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키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힘든 일 뒤에는 예상 밖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르쳐준 단어를 암기를 하여 말을 하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금연 캠페인을 하였을 때 우리들 앞에서 피우던 담배를 버린 후 담배 갑까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로 인하여 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신 그 분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였고 행복했었는지 모릅니다.

힘이 들 때는 언제나
튼튼한 팀원이 있었기에
점차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로 이런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3.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

어려운 점은 봉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에는 자신감과 용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느꼈지만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 올 순 없습니다. 우리들이 시민에게 먼저 자신감 있게 다가가 용기 내어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봉사를 하였을 때는 자신감이 없어 정말 힘들고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활동을 해오며 해왔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금저의 봉사에 대한 자신감은 누구보다 더 뛰어 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바로 한 번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실패로 일어나는 과정을 걸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람은 많은 경험을 해야 능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의사소통입니다.

효 요양병원에서 봉사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고로 인해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신 분들이 간혹 가다 있으신데 말을 못하시는 어르신들 간병을 해드리면 의사소통이 어려워 저를 힘들게 한 적도 있습니다.

다-4. 개선방안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많은 활동을 꾸준히 참가하여 경험을 쌓아 어색함이라는 것을 배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리더십 같은 경우도 많은 활동의 경험으로 새로 들어온 신입생을 바로 휘어잡을 수 있게 앞으로의 활동을 리더라는 직책에 손색없는 그런 활동과 리더적 면모를 보여줄 것입니다.

변해가는 사회에서 우리들은 꺼지지 않는
화로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다-5.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변화

개인 많은 활동으로 제가 변화한 것은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봉사를 좋아해서 그냥 봉사만 하였습니다. 봉사자리가 남으면 하고 자리가 없으면 하지 않고, 하지만 지금의 변화 된 저는 제가 봉사를 알아보고 우리 봉사단 아이들에게 봉사를 파견 보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출선수범으로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역의 이슈는 무엇일지 생각해 장소를 섭외한 후 같은 팀원들과 장시간의 회의를 하며 활동계획을 세워봅니다. 이젠 목표가 그냥 좋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팀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주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지역사회의 변화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초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활동을 많이 하며 경험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 더욱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지역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저희는 불씨가 꺼지지 않는 화로 같은 정신과 꾸준한 노력을 지속성 있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향상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봉사대회가 끝난 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몸 바쳐 노력해보겠습니다

라-1. 향후 계획

저의 향후계획은 아직 저희 봉사단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캠페인활동을 무사히 마친 후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봉사단을 각종 행사나 SNS를 통해 알리는 홍보 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리고 난 후에는 그 상황에 가서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지 않고, 미리미리 활동계획을 세워 알찬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산지역의 여러 신문을 통해 지역이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 항상 열린 시각으로 지역의 이슈를 찾아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 봉사활동 실천내용

개 인 성명 : 오 명 석 (온양)고등학교 2 학년

주요활동요약 헌혈, 청소년자기주도적봉사단, RCY강습, 대한적십자사, 선거관리위원회, 아동센터

활 동 일 시	주요활동내역	활동장소
3월23일 09:00 ~ 12:00	환자들봄 봉사활동	아산 효 요양병원
4월6일 09:00 ~ 12:00	환자들봄 봉사활동	아산 효 요양병원
4월13일 10:00 ~ 18:00	초등학생 놀이지도, 청소	구세군아산지역아동센터
4월20일 10:00 ~ 18:00	초등학생 놀이지도, 청소	구세군아산지역아동센터
4월27일 10:00 ~ 18:00	초등학생 놀이지도, 청소	구세군아산지역아동센터
5월4일 10:00 ~ 18:00	초등학생 놀이지도, 청소	구세군아산지역아동센터
5월11일 10:00 ~ 18:00	초등학생 놀이지도, 청소	구세군아산지역아동센터
5월18일 09:00 ~ 12:00	환자들봄 봉사활동	아산 효 요양병원
5월24일	기아체험 24시	온양고등학교
5월25일 10:00 ~ 18:00	초등학생 놀이지도, 청소	구세군아산지역아동센터
6월1일 10:00 ~ 18:00	초등학생 놀이지도, 청소	구세군아산지역아동센터
6월6일 08:00 ~ 14:00	자연정화봉사	아산비전
6월8일 10:00 ~ 18:00	초등학생 놀이지도, 청소	구세군아산지역아동센터
6월15일 10:00 ~ 18:00	초등학생 놀이지도, 청소	구세군아산지역아동센터
6월22일 10:00 ~ 18:00	초등학생 놀이지도, 청소	구세군아산지역아동센터
6월29일 10:00 ~ 18:00	초등학생 놀이지도, 청소	구세군아산지역아동센터
7월6일 10:00 ~ 18:00	초등학생 놀이지도, 청소	구세군아산지역아동센터
7월13일 10:00 ~ 18:00	초등학생 놀이지도, 청소	구세군아산지역아동센터
7월20일 10:00 ~ 18:00	초등학생 놀이지도, 청소	구세군아산지역아동센터
8월3일 13:00 ~ 17:00	헌혈(전혈)	천안 헌혈의 집
8월6일~8월9일	창립60주년 기념 국제캠프 참가 및 환경정화활동	서울
8월10일 10:00 ~ 12:00	어르신 말벗 봉사	아산 효 요양병원
8월17일 10:00 ~ 12:00	어르신 말벗 봉사	아산 효 요양병원
8월24일 10:00 ~ 12:00	어르신 말벗 봉사	아산 효 요양병원
8월31일 08:00 ~ 16:00	식사준비, 꽃동네 청소활동, 꽃동네 가족 돌보기	충청북도 꽃동네

박범수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가. 동기

봉사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처음엔 중학교 1학년으로써 봉사활동 실적을 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바 없었다.

처음 천안성정복지관을 찾아 갔을 때 거기에 기타를 배우고자 하는 중학생 형, 누나들이 있었고, 형, 누나들과 친해지면서 기타를 같이 치게 되었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타를 접하게 되어 중, 고급정도의 실력이 있었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복지관 선생님께서 도움을 받아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엔 쉬운 곡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았다. 왜냐하면 기타는 처음 배울 때 흥미를 가져야 지속적으로 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처음엔 쉬운 곡부터 시작하자 잘 못치던 형, 누나들도 매우 잘 따라왔고 한곡한곡 완성되면서 더욱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그 곡들 중 일부는 시민회관에서 실시한 청소년동아리 제1회 음악발표회 공연에서 활용하기도 하였다.

봉사활동의 주요내용은 동계회는 24주~28주까지 기본코드와 주법에서 sus4, major코드와 파워코드 순으로 체계적으로 작성, 실천하였고 최대한 많은 곡을 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나. 활동내용 및 실적 : (자원봉사확인서 별도 첨부)

2012. 09. 05 ~ 2013. 08. 31 : 총 30회(44.5시간)

- 재능기부(기타레슨)봉사 34시간
- 캠페인(해외 빈곤국가 어린이 식수지원) : 2시간
- 행사지원(공연지원) : 8.5시간

다. 활동평가 :

사실 기타레슨 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남의 도움만 받다가 남에게 도움 준다는 것이 이토록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줄 몰랐던 것이다. 사실 처음엔 봉사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고, 남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에 다소 어깨가 우쭐해지고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봉사를 하면 할수록 도움을 주면서 오히려 내가 형, 누나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과 남에게 베풀고 도와주는 것이 꼭 남에게 주는 것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을 하면서

시간에 맞추어 계획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봉사활동이란 큰 재능이 없어도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자그마한 재능일지라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로 인해 모두가 웃으며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사람들이 이 작은 실천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이라도 아끼지 말고 기부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라. 향후 활동계획 :

내 주변엔 의외로 기타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배움의 기회가 많지도 않으며, 그러한 공간들도 부족한 것 같다. 또한 이번처럼 기타로 재능기부에 참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내 실력도 봉사하면서 더욱 향상되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타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나는 성성중학교 동아리에서 밴드구성을 하여 밴드활동을 하고 있다. 이 음악 밴드는 통기타의 매력과는 다르다. 전자음악이며, 여러 구성원이 기타1, 기타2, 베이스기타, 키보드, 드럼, 보컬로 이루어져 한 음악을 표현하는 형태로 각 구성원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는 향후 이러한 부분을 잘 습득하고 연습하여 천안성정복지관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 무한도전 틴스클럽의 멤버들과 함께 재능기부를 실천하면서 공유할 계획이다.

■ 봉사활동 실천내용

개 인	성명 : 박 범 수 (천안 성성) 중학교 2 학년	
주요활동요약	통기타 레슨(여가활동 및 교육지원), 캠페인 등	
활 동 일 시	주요활동내역	활동장소
2012년 9월 5일 17:30 ~ 19:3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10월 10일 18:00 ~ 20: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11월 7일 17:10 ~ 19:4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11월 9일 17:00 ~ 19:3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11월 12일 18:00 ~ 21:00	행사지원(공연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12월 6일 16:30 ~ 20:00	행사지원(공연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2013년 1월 16일 17:00 ~ 18:3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3월 09일 10:00 ~ 11: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3월 23일 10:00 ~ 11: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3월 30일 10:00 ~ 12: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4월 06일 10:00 ~ 11:3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4월 20일 10:00 ~ 11: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4월 27일 10:00 ~ 11: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5월 04일 10:00 ~ 11: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활 동 일 시	주요활동내역	활동장소
5월 11일 10:00 ~ 11: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5월 25일 10:00 ~ 11: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6월 01일 10:00 ~ 11: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6월 15일 10:00 ~ 11: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6월 22일 10:00 ~ 11: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6월 29일 10:00 ~ 11: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7월 06일 10:00 ~ 11: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7월 13일 10:00 ~ 11: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7월 20일 9:00 ~ 10: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7월 27일 9:00 ~ 10: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7월 27일 10:00 ~ 12:00	캠페인활동(식수지원캠페인)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8월 10일 10:00 ~ 11: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8월 24일 10:00 ~ 11: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8월 31일 10:00 ~ 11: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9월 14일 10:00 ~ 11:00	통기타 레슨(교육지원)	천안 성정종합 사회복지관

배예니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꿈을 가져다드리고 경험을 나누어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It's You

중학교 시절 저는 경찰차 닦기, 도서관 정리, 쓰레기 줍기 등 1년에 20시간 채우기를 위해 단기적인 봉사만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우연히 ‘봉사란 무엇인가?’ 라는 교육을 듣게 되었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봉사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영어에 가장 큰 자신감과 흥미를 가지고 있던 저는 영어교육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재능 나눔 봉사 잇츄(It's You)’라는 이름을 짓고 어떤 학년 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짰습니다. 대상이 초등생들이다 보니 초등학생들에겐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고민하며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문법위주가 아닌 회화 위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총 2시간 중 1시간은 How much is it?, How is the weather today? 등의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생활 위주의 수업을 하며 단어, 문장 면에서 응용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나머지 1시간은 매주 다른 영어 동요를 가르치고 그 날 배운 회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게임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영어에 대한 반감을 해소 해주기 위해 이런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학생이 직접 찾아와 영어수업 또 듣고 싶다며 ‘다시 신청할 테니까 다음에 만나요~’ 라는 말을 할 때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봉사활동은 다른 봉사와는 다르게 저의 지식을 공유하고, 저 자신을 더욱 성장 시키는 기회였던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의존만 하다가 제가 주도자가 되어 수업계획, 수업 방향을 짜다보니 선생님들과 사회의 리더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란 과목은 빈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집의 학생들은 교액 과외를 하거나 유학을 가는 등의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는 재미없어, 힘들어’ 등의 생각을 갖곤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 저는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실력이 향상 될 수 있게 저의 경험을 활용해서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교육기부 봉사활동이 많아지게 된다면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식의 격차를 완화 시킬 수 있고, 서로 가르치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마련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변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다양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아이들의 참여도나 봉사자들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며 영어교육 봉사활동을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 봉사활동 실천내용

개 인	성명 : 배예니 (충남외국어)고등학교 2 학년	
주요활동요약	영어 회화 및 동요 게임을 가르치며 초등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영어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줌	
활 동 일 시	주요활동내역	활동장소
1월 12 일 9 ~ 11	자기소개 및 친구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짐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어학실
1월 19 일 9 ~ 13	Is this your cap?의 주제를 통해 자신의 소지품을 소개하고 대답하는 방법을 가르침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어학실
1월 26 일 9 ~ 13	What time is it?의 주제로 시간에 대해 묻고 답하기와, 늦었을 때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어학실
2월 2 일 9 ~ 13	런닝맨 게임을 통해 알파벳 맞추기를 하였고, 아이들의 적극성을 높여줌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어학실
2월 16일 9 ~ 13	Sorry I can't 의 주제로 사과를 하는 내용을 가르침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어학실
2월 23일 9 ~ 13	피아노를 치며 Twinkle twinkle little star의 노래를 가르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어학실
3월 2 일 9 ~ 13	라퐁젤 연극으로 아이들이 직접 연극을 하도록 유도함, 노래는 The muffin man을 가르침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어학실
3월 9 일 9 ~ 13	What a nice day라는 주제로 날씨에 관한 표현과 문장을 가르침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어학실
3월 16일 9 ~ 13	How are you today?를 통해 기분에 관한 표현과 말하기를 가르침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어학실
3월 23 일 9 ~ 13	Can you join us?에 대해 수업하며 다양한 장소에 갔을 때 말하는 표현을 익힘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어학실
3월 30 일 9 ~ 13	Where are you from?이라는 주제로 여러 나라의 이름을 말하고 자신의 국적을 표현하는 문장을 가르침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어학실
4월 6 일 9 ~ 13	분기의 마지막 수업으로 한글자막 없이 외국 영화 '업' 시청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어학실
4월 27일 12 ~ 6	아산시 성웅 이순신 축제 외국인 영어 통역 활동	온양 온천역
5월 4 일 9 ~ 13	형제서점에 들려 학생들을 가르칠 책을 선정하고 새로운 수업계획 짜	온양 형제서점, 아산시 청소년 문화센터 어학실
6월 1 일 9 ~ 13	샌드위치 만드는 방법을 영어로 배우며 만들고 난 뒤, 야외수업을 통해 날씨 표현법을 익힘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어학실
6월 8 일 9 ~ 13	The weather이라는 노래를 배우고 날씨 관한 단어를 가르침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어학실
6월 15 일 9 ~ 13	I like Donuts라는 노래를 배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에 관한 단어를 익힘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어학실
6월 22일 9 ~ 13	길 묻고 답할 때를 주제로 건물이름과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침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어학실
8월 17일 9 ~ 13	우리가족 소개를 해보며 가족구성원을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과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짐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어학실
8월 24일 9 ~ 13	문방구에서라는 주제로 물건을 살 때와 물건의 이름을 영어로 가르침	아산시 청소년 교육문화 센터 어학실

김지아

대천여자중학교

밥 먹듯이 자원봉사도 골고루 편식 하지 않고 하는 습관!

1. 동기

요즘 제 친구들은 ‘봉사활동’ 이라고 하면 단순히 학교 봉사활동 시간만 채우려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중학교1학년 때만해도 그냥 시간만 채우는 단순한 활동이라 생각하였지요. 하지만 중학교2학년이 되고부터 점점 제 마음이 변하는 것 이였어요. 그때 부터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며 느꼈던 것은 저 한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웃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원봉사가 중요하고, 기쁜 일 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뿌듯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자원봉사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의 힘이자 삶의 원동력 이였습니다. 마치 ‘피로회복제’ 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부모님의 영향력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다니셨던 저의 부모님은 현재도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모님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던 게 아니라 저의 흥미를 제가 스스로 찾고 자원봉사가 저의 특기가 되었 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도록 흥미와 적성을 찾아 주신 것이 부모님이라 생각 합니다. 제 앞에서 모범적인 것을 많이 보여주시고, 봉사활동도 가족끼리 함께 나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보령시 자원봉사 센터’ 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 센터에서근무 하시는 만큼 저에게 많은 봉사기회와,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도 늘 봉사활동을 하고, 자원봉사교육 등을 하며 직장 일을 하십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적십자, 방범대, 새마을 지도자 등 많은 봉사단체에 들어가셔서 정말 많은 봉사를 하십니다. 따로 직장을 다니시고 힘드실 것 같으신데 주말과 쉬는 날을 이용해서서 많은 봉사를 하시고 가끔 저를 데리고 다니시며 자원봉사의 참을 알게 해주십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무진사’ 라는 절에 가서 음식 만들기 등을 도와 드렸습니다. 그땐 저와 어머니아버지와 함께 가서 일손을 돕고 음식 장만 하는 것을 도와 드렸습니다.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한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봉사의 첫가르침은 부모님께서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한마디로 독 ‘봉사해라’ 이것이 아닌 직접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시고 흥미를 갖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선 한 가지 봉사가 아니라 여러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보통 한가지의 봉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찬 만들기 봉사면 반찬 만들기 봉사만, 집짓기 봉사면 집짓기 봉사만 등 이렇게 한 가지씩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한 가지만 열심히 하다보면 그 일을 더 잘하고 나만의 특기가 되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은 좀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밥을 먹을 때를 보면 먹기 싫은 것은 안 먹고 맛있는 고기, 햄 등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일종의 ‘편식’ 보다는 모든 것을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하고 자기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자원봉사도 자신이 하고 싶은 봉사만 하고 하기 싫은 봉사는 안한다? 이걸 밥을 먹을 때 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면 오히려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맛보면서 저에게 맞는 봉사를 찾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것 자체가 신나고 재있지만 아직 저에게 맞는 봉사가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좋으니까 커 나가면서 저에게 맞는 봉사가 뭔지 제대로 알 것 같고 저의 적성도 함께 찾을 수 있겠죠?

나. 활동내용 및 실적

다. 활동평가

2013년,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된 후 시작한 봉사는 바로 ‘환경정화’ 이었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나서 어디 다른 곳에 놀러가는 것 보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 의미를 것 같아서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근무하시는 ‘보령시 자원봉사 센터’에 가서 비닐과 집게를 얻은 후 대천의 시내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쓰레기 봉지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들이 무심코 바닥에 버린 쓰레기가 이렇게 모이니 정말 많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자주 시내에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주워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령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소속인 ‘청소년활동대’와 ‘보령시 자원봉사 센터’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벼룩시장’이라는 두 개의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벼룩시장은 조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번, 주로 ‘대전초등학교 효 공원’이라는 곳에서 열립니다. 매월 벼룩시장을 할 때 마다 버는 수익금의 절반은 기부를 하고 나머지 받은 조별로 모아 두었다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다음 벼룩시장을 위해 그 돈으로 리본을 사서

리본아트를 해서 주로 팝니다. 매월 직접 만들어서 파는 물건의 종류도 바뀌고 가지수도 늘어갑니다. 장이 열리기전에 저희끼리 모여서 상의도 하고 의견도 나누며 다음 장에 뭘 팔까라며 의논을 하며 장을 기다리기에 저희 조가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하는 것도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아니 었습니다. 제가 저희 조의 조장 인데, 조원과 항상 의견이 안 맞고, 갈등도 많이 생기며 저 혼자 늘 고민만 쌓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저희 옆조가 판매 수익금도 많고, 조원들, 조장들 끼리 의견이 잘 맞는 것을 보고 저는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하면 조원들과 의견이 잘 맞고 좋은 벼룩시장을 열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씩 조원들의 마음도 이해하면서 저 혼자 했던 고집을 반성하면서 벼룩시장을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좋은 성적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많은 선생님 들께 혼도 많이 났지만 자원봉사란 기다림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원봉사를 하는 이 순간 순간이 모두 행복합니다.

라. 향후 활동계획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저는 골고루 많은 봉사를 맛보고, 저에게 맞는 봉사를 찾아 가기 위해 나아 갈 것입니다. 저 혼자 행복해지는 봉사 말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봉사를 하는 자원 봉사자가 되는 것이 제 꿈이자 장래희망이듯이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저 스스로 계획을 짜서 직접 주도하는 봉사, 저의 완벽한 특기, 취미 등이 모두 자원봉사가 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세상의 모든 자원봉사자 분들을 롤모델 삼아 저도 그런 멋진 사람이 될 그날을 위해 하루하루 힘차게 나아갑니다.

■ 봉사활동 실천내용

개 인	성명: 김지아 (대전여자) 중, 고등학교 3학년		
동아리	동아리명 : () 중, 고등학교		
주요활동요약			
활동일시	주요활동내역	활동인원	활동장소(담당자, 연락처)
03월 14일 16:00 ~ 18:00	환경정화활동 (대전 시내 주변 돌아다니며 쓰레기줍기)	2	대전 시내
04월 01일 : 학교 앞길 (1:)	봉사활동 소양교육	대전여중 학생 전체	학교
04월 06일 13:00 ~ 15:00	청소년 베품사랑 운영교육	50	보령시 공도면(
04월 20일 09:00 ~ 12:00	봉사활동 사전교육 (쿠키만들기, 간식만들기) *구워 만들어서 모양은 어른들이 드리기	10	보령시대안마을파자메이팅 (wee)
05월 02일 학교 앞길 (2:)	환경 정화 활동	대전여중 학생 전체	보령산(
05월 04일 09:00 ~ 17:00	문화행사 지원 및 봉사	20	북진사
05월 05일 09:00 ~ 17:00	문화행사 지원 및 봉사	300	북경 공도운동장
05월 10일 20:00 ~ 22:00	행년 안전 예방 활동 (캠페인)	30	대전시내
05월 17일 14:00 ~ 17:00	문화행사 지원 및 봉사	3	청소년문화의집
05월 23일 20:00 ~ 22:00	청소년 안전 예방 활동 (캠페인)	30	대전시내
05월 25일 13:00 ~ 16:00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캠페인 활동	청년활동대 (10명)	대전시내
05월 27일 10:00 ~ 17:00	2013 인터넷 성범죄 예방대회 행사 보조활동	4	보령시청년문화의집
05월 28일 10:00 ~ 16:00	문화 행사 지원 및 봉사	2	북경시청년문화의집
05월 29일 ~ :	교통 안전 관련 봉사 (캠페인)	30	대전시내
05월 31일 ~ 22:00	지역내 안전 모니터링 활동 (위험지역, 예방 예방)	30	대전시내

개 인	성명: 김지아 (대전여자)중·고등학교 3학년		
동아리	동아리명: ()중·고등학교		
주요활동요약			
활동일시	주요활동내역	활동인원	활동장소(담당자, 연락처)
07월 05일 과제작성(두시간)	환경정화 활동 (보령시 청소년센터 및 교내환경정화)	대전여자 전체	학교
07월 13일 13:00 ~ 17:00	문화행사 지원 및 봉사	50	대전천변
08월 05일 14:00 ~ 17:00	전문 자원봉사 교육	30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08월 06일 14:00 ~ 17:00	전문 자원봉사 교육	30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08월 07일 14:00 ~ 17:0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30	"
08월 08일 14:00 ~ 17:0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30	"
08월 09일 14:00 ~ 17:0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30	"
08월 12일 14:00 ~ 17:00	전문 자원봉사 교육	30	"
08월 13일 14:00 ~ 17:00	전문 자원봉사 교육	30	"
08월 22일	청소년보호 캠페인 활동	보령시 청소년 센터 (시내)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활동일시	4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5:00 7월 13:00
활동일시	#2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7월 14:00

2. 동아리 봉사활동

여성가족부장관상

- 희망공감 (정안중학교)
- 크레용(CRAYON) (천안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지사상

- 친따꿈따 (천안시자원봉사센터)
- 두드림(Do Dream) (예산여자고등학교)

충청남도교육감상

- 3H를 실천하는 반포지효 봉사단 (기민중학교)
- ConGo (북일고등학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사장상

- 해피투게더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 온여베이크 (온양여자고등학교)

희망공감

정안중학교

동아리 대표 : 문민수 지도교사 : 현정호

제 목 : 희망 공감 - 할머니, 행복하세요!

봉사활동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나의 동네와 할머니 동네를 설명해야할 것 같다. 우리 동네는 사곡면에 속하지만 정안중학교에 다닌다. 면의 경계지역에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는 사곡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7명밖에 안 된다. 할머니는 월산리에서 갈라져 산성리 제일 끝자락 산 밑에 사신다. 우리 동네에서 할머니 댁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월산리 갈림길에서 내려 다시 한 시간 정도 걸어가야 한다.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는 반대로 할머니 댁에서 버스를 타고 월산리 갈림길에서 내려 또 한 시간 걸어가야 집에 도착한다. 삼각형의 두 꼭지점에 우리 마을과 할머니집이 있다. 버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쪽 버스시간에 맞춘다. 부모님이 집에 계실 때는 운 좋게 차를 이용하지만 일을 나가시기 때문에 대부분 버스와 도보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간다. 할머니는 산 밑 외딴집에 혼자사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은 거의 우리가 유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그나마 눈이 올 때면 버스도 다니지 않는 곳에 할머니는 외롭게 사신다.

중학교에 입학하여 선생님이 우리 동네 친구들과 할머니를 결연 맺어 주셨다. 격주로 한 번씩 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음식을 만들고 서로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게 하셨다. 한 달에 두 주는 봉사활동, 두 주는 스포츠 동아리활동 하는 날이다. 처음 할머니 댁을 방문하였을 때 엄청 떨렸다. ‘할머니께서 우릴 싫어하시면 어떻게지?’ ‘도와드리러 갔다가 괜히 실수해서 폐를 끼치면 어떻게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할머니께서 마당에서 우리를 반겨주셨다. 할머니께서 내 손을 잡으시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면서 내가 했던 걱정거리는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께서 우릴 반갑게 맞아주시니 나의 마음도 열리는 듯 했다. 무엇보다도 혼자사시는 할머니와 말동무가 되어 드리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임을 깨닫게 되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할머니가 우리를 너무나 반겨주셨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머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신기했고 가슴 벅찼다.

처음 신발을 벗고 할머니 댁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의 손과는 달리 할머니 댁은 냉랭한 한기가 돌았다. “할머니 왜 보일러 안 키고 계세요?” 라고 여쭙보자 할머니께서 “그렇게 춥지 않으니깐 괜찮아”라고 말씀하셨다. 너무 춥게 주무시는 거는 아닌지 걱정이 돼서 이불안을 들여다보니 전기매트가 깔려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렇게 걱정만 하다가 서너 시간이 지나가버렸다. 벌써 갈 시간이어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

의 첫 봉사활동이 끝났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기다리고 계실 할머니가 궁금하고 건강이 걱정되어 걸음이 빨라지기 일쑤였다. 어색하지 않게 할머니와 친하게 되어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일 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된 나는 봉사활동 가는 것이 걱정되지는 않고 설렘이 앞섰다. 2학년이 되고, 내가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웠다. 이번에는 무엇을 도와드리지 등 많은 생각을 가지고 버스에서 내려 힘차게 걸어갔다. 걱정과 달리 경력이 있는 3학년 누나가 우리를 리드해 주었다. 나와 민정이가 채소를 다듬고, 누나가 어려운 일은 손수 했다. 나는 매일 엄마가 차려주신 밥상에 반찬이나 숟가락, 젓가락을 놓는 것 밖에 안 했는데, 봉사활동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 짙게 느낄 수 있었다. 이젠 3학년 드디어 내가 우리봉사동아리의 장이 되었다. 내가 그동안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치고 싶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우리 학교 봉사선생님이 우리 조에 오시면 ‘너희 동아리가 제일 사람 사는 맛이 난다’라고 칭찬해주셨다. 우리는 할머니와 정말 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에 자부심이 생겼다. 다음은 우리가 할머니께 드린 편지글이다.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우리는 할머니가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는 정안중학교 손자손녀예요. 3년 전 개나리꽃 피던 무렵 처음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밝게 웃고 계신 모습이 마치 친할머니처럼 포근했어요. 잔뜩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할머니를 위해서 서툰 솜씨로 음식을 만들 때 힘들고 어설프었지만 그럴 때 마다 웃음으로 음식 만드는 걸 알려주시고, 숟가락에 서로 음식을 올려주며 더 먹으라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정말 가족 같았고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새로 생겼으니까요. 할머니께서도 우리가 손자손녀라고 손잡고 웃어주실 때 정말 가슴 뿌듯했어요.

할머니랑 웃놀이 할 때 웃가락이 옆치락뒤치락 부딪치며 서로 자기편을 응원하고 우기기 도하며 보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 팀이 노래도하고 춤추며 이렇게 보낸 시간이 벌써 3년째가 되었네요. 할머니도 많이 웃어 주셨지요. 함께 있는 자체가 즐거웠어요. 할머니와 더 함께하지 못해 아쉽기만 해요.

가을이 되어 푸릇푸릇했던 나무가 물들어 노랗고 붉은 옷으로 갈아입고 있네요. 앞으로 쌀쌀한 바람이 많이 불어도 가족같이 서로에게 더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이제는 우리를 친 가족처럼 사사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요. 할머니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해주세요. 건강하셔야 돼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는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싫어하고 의무감에 마지 못해하는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의 좋은 점을 알려주고 같이 봉사활동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짙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공부하는 일등 못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쁜 봉사는 일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이 되도 할머니는 기름을 아끼시려고 전기 매트만 키고 계신다. 불쌍하다!

■ 봉사활동 실천내용

동아리	동아리명 : 희망 공감 정안중학교		
동아리 명단	문민수(동아리대표, 3학년), 박주혁(2학년), 임선미(2학년), 박주원(1학년), 김찬형(1학년), 임유화(1학년), 최보미(1학년)		
주요활동요약	<p>홀로사시는 할머니와 3년째 결연을 맺고 2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있다. 음식재료를 준비하여 맛난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며 가족의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할머니는 우리가 유일한 말벗이기에 우리는 할머니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뿌듯함과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할머니를 효 잔치에 3번째 초대하여 모처럼 나들이도 하였으며, 부모님의 도움으로 반찬과 건강식을 챙겨드리고 있다. 부모님과 소망공동체 봉사활동과 결연노인분 집 고쳐드리기도 하였다.</p>		
활동일시	주요활동내역	활동인원	활동장소
2012. 09월 1일 5시간	독거노인과 음식 만들어 먹기	4	산성리 할머니댁
09월 13일 1시간	봉사활동 독후감쓰기대회	전교생	산성리 할머니댁
09월 28일 2시간	독거노인 송편 및 내복 선물	4	산성리 할머니댁
10월 13일 6시간	고구마 캐기 및 축제 도우미	14	공주소망공동체
11월 03일 4시간	독거노인과 음식 만들어 먹기	4	산성리 할머니댁
12월 01일 4시간	독거노인과 음식 만들어 먹기	4	산성리 할머니댁
12월 19일 5시간	제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도우미	4	정안면선거관리위원회
12월 24일 2시간	소망공동체에서 공연, 케익 만들기 및 풍선아트	전교생	공주소망공동체
2013.3월 22일 1시간	봉사활동 소양교육	전교생	정안중학교
03월 23일 4시간	독거노인위문(샌드위치만들기)	4	산성리 할머니댁
04월 05일 1시간	식목행사	전교생	정안중학교
04월 20일 4시간	독거노인위문(음식함께만들기)	4	산성리 할머니댁
05월 03일 1시간	어버이날 꽃 만들기	전교생	정안중학교
05월 04일 4시간	독거노인위문(말벗, 점심함께 만들어 먹기)	4	산성리 할머니댁
05월 11일 4시간	시설 프로그램 진행보조(쭈개떡 만들기, 풍선아트)	20명	공주소망공동체
06월 08일 4시간	독거노인위문(자장면 함께 만들기)	4	산성리 할머니댁
06월 10일-07월 15일 4시간	굿프렌드지역아동센터 희망나눔 캠페인 활동		
06월 22일 4시간	독거노인위문(떡볶이 함께 만들기)	4	산성리 할머니댁
07월 05일 2시간	사제동행 결연노인돕기	4	산성리 할머니댁
07월 18일 1시간	방향맞이 교내외 자연보호	전교생	정안중학교

크레용(CRAYON)

천안여자고등학교

동아리 대표 : 서예원 지도교사 : 정은순

‘크레용 나비효과’

‘크레용’을 통해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세요!

▶ 다문화에 대한 관심의 첫 시작 (계기)

“어머, 저 사람은 뭐야? 왜 저런 사람이 여기 있는 거야?”

매주 어머니와 함께 목욕탕을 가던 저는 그날따라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의 계속해서 수군수군 대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엄마와 사우나에 들어가려던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곳엔 우리보단 조금 더 어두운 피부색과 조금 큰 체형을 가진 베트남 여자가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다문화가정 사람이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그 여자를 계속해서 힐끗힐끗 쳐다보았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근처에 가는 것을 꺼려하시는 눈치셨습니다. 전 그 상황이 영화 ‘완득이’에서 보았던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상황을 실제로 보게 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에도 사람들이 다문화사람을 불쾌하게 쳐다보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일이지만 저는 목욕탕에서 있었던 일 이후 다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목욕탕에서처럼 다문화가정 사람들은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이 과연 맞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 ‘다문화 백과사전’ (결심을 하게 된 이유)

다음날, 학교 도서관에 가서 다문화에 관련한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다문화’를 주제로 쓴 책들을 찾던 중 ‘다문화백과사전’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다문화 백과사전? 이게 뭐지? 사전인가?’하며 궁금증을 가득 안은 채 책을 펼쳤습니다. 책에선 한국에서 살아가는 다문화가정아이들의 인터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문화가정을 불쌍하게 바라봐서 제가 가난한 줄 알아요.”하며 심정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다문화가정이 늘어

나는 것을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가 잘못된 건가요?”하는 등 아이들의 진심 어린 글들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느껴봤을 감정이나, 느낌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던 세계, 아이들의 말들이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나오는 아이들처럼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다문화가정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느끼는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바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기 전 느꼈던 감정처럼 다문화사람들을 낯설게 여기는 사람들, 목욕탕에서 다문화사람을 보면서 눈치를 주었던 아주머니들의 시각을 바뀌고 싶었습니다.

▶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해 줄 수 있는 건?

저는 학생인 신분에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다문화에 관련된 책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관련 기관들을 알아본 결과 저는 아산시에 다문화가정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관련 기관을 찾아본 뒤 ‘아산시 다문화가정센터’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다문화가정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기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매주 봉사를 와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다문화가정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만 봉사를 하기엔 벅찰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다문화 봉사동아리를 만들기로 결심 했습니다. 교내에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가 있었지만 봉사동아리는 없었던 터라, 처음 개설 당시에 많은 친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의 관심 속에서 동아리 회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지원한 가운데 다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진로희망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크레용’이라는 동아리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 동아리 ‘크레용’이라는 이름의 의미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크레용’이 모여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듯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편견 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뜻을 담아 우리 동아리는 ‘크레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크레용 나비효과’

처음 동아리 부원들과 동아리계획을 세우던 날, 부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다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나며, 제가 목욕탕에서 겪었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동아리 부원중 하나가 “나는 버스에 타고 집에 가던 중에 어떤 다문화가정아가 버스에 올라탔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아이를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 아이는 그 시선이 싫었는지 바로 내리는 거야. 불쌍했어.”등등. 모두가 각자의 경험을 말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다문화가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비록 저희는 작은 동아리일 뿐이고, 힘없는 고등학생들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마치

나비의 날개 짓 같은 작은 변화를 주어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일컫는 ‘나비효과’처럼 비록 작고 어린 학생들이지만 저희가 다문화에 대해 알리고, 사람들에게 다문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주어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낮설고 꺼려하는 모습에서 다양함을 인정하고 하나로 어우러지고자 하는 시선을 갖게 하고자 ‘크레용 나비효과’를 일으켜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 봉사 전 계획과 준비와 도움

저희는 봉사를 가기 전,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우선 아이들이 부모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배우는 외국어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어를 배우는 저와 친구 한명이 한 팀, 일본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한 팀, 영어는 공통으로 가르치고, 베트남어 등 분야별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에 사용할 교재들을 주문했고, 그 책으로 수업을 나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방과 후엔, 미술이나 음악을 수업을 통해 다방면에서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 주리라 결심했습니다. 문득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권도를 가르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학원이나 강사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위 태권도 학원의 관장님께서 함께 아이들의 지도를 맡아주시겠다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관장님 또한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태권도를 배우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수업자료들을 준비해 가면서 어서 빨리 봉사를 갈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 두근두근 첫 봉사 (기대와 당황 그리고 고민)

기대되는 첫 봉사 날, 저희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이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울’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나라가 같은 나라인 아이들끼리만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선생님께도 말을 걸지 못해 혼자 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저희를 보았을 때, 저희도 다른 봉사자들과 다르지 않은 ‘단순히 기관청소 등을 하며 봉사시간을 채우러 온 봉사자’라고 생각했는지, 별 관심이 없어보였습니다. 저희에게 관심조차 없어 보이는 아이들을 보며 저희는 많이 난처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놀아주고 재밌는 영상을 틀어주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을 눈길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첫 봉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맛있는 사탕이나 재밌는 영상이 아닌,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봉사할 때에만 일시적인 관심과 애정이 아닌, 진심이 담긴 지속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두 번째 봉사 (다가서기)

두 번째 봉사를 가던 날 저희는 첫 봉사와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아이들을 동아리 부원 당 3~4명씩 맡아 아이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말을 거는 게 귀찮다고 투정부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이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며 아이들과 최대한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당황해 하는 눈치였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얼굴을 맞대고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함께 손잡고 다니며, 책을 읽어줄 때도 효과음도 크게 내며 아이들이 저희에게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봉사를 하면서 철칙을 몇 가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둘째, 아이들과 더 많이 얘기하고 들어주기. 셋째, 아이들을 부를 때 이름 불러주기 등 여러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애야, 아가야, 저기.....”라고 부르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며 눈을 바라봐주는 저희의 모습이 좋았는지 자꾸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당황해하거나 눈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자며 말을 걸기도 했고, 서로의 이름도 외우는 좋은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저희는 아이들이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모둠활동으로 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둠 별로 세계전통의상을 입고 아이들이 모둠활동을 통해 아이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얘기를 건네면서 함께 노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수업 시간

첫 중국어 시간,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가 나오는 ‘중국어배우기’영상을 준비했던 것이 꽤 인기를 받았습니다. 새 교재를 받아서 신이 난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했고, ‘뽀로로’ 덕분에 아이들은 중국어단어를 잘 따라 해주었고, 그렇게 아이들과의 중국어수업은 성공적 이었습니다. 중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일본어나 베트남, 영어 수업들도 아이들이 잘 따라주워서 수업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하는 수업 이었던 터라, 많이 미흡하고 전 날 아이들에게 수업할 때 말하려고 외웠던 것들을 제대로 말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저희를 따라 수업에 집중하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잊히질 않습니다. 그렇게 일본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나라의 언어수업들을 오전에 수업 한 후 방과 후에는 아이들에게 미술과 음악을 가르쳐주었습니다. 항상 공책과 연필만 가지고 수업을 했던 아이들에게 색연필과 물감은 새로 왔었나 봅니다. 아이들은 물감이 신기했던지 만지작만지작 거리더니 스케치북 한 장을 그림으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모둠으로 나누어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은 서로의 그림을 보며 얘기를 나누었고, 그림 그리다가 의문점이 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직접 저희에게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말을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고, 아이들 또한 저희를 잘 따라 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아이들은 그 날 미술수업 했던 게 계속 기억에 남는지, 매번 올 때마다 그림을 그리자며 조르기도 하고 저희에게 애교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이들에게 언어 수업은 물론, 미술과 같은 예체능 분야에서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가족사랑 가족행복 축제' 참가!)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이들과 '가족사랑 가족행복 축제'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충청남도 내에 있는 다문화가정센터에서 모여 지역의 센터별로 몇 팀씩 나와서 장기자랑을 보여주는 행사였는데, 저희는 아이들과 비밀리에 진행했던 것을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장기자랑을 할지 고민하던 중 기관 선생님들께서 난타 용품들을 구입해 놓으셨지만 악보도 없었고, 가르치기엔 아이들도 제대로 치려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희는 그 난타로 아이들을 빛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봉사 전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할 난타수업을 위해 동요나 가요 등 악보를 복사해가 아이들과 난타로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축제 날 아이들이 가장 잘 치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주제로 아이들을 무대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수업 하면서 아이들은 자신들 키만 한 난타를 치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불평 없이 수업을 따라오는 아이들이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무대에 오르고 아이들은 처음에 긴장한 눈치였지만, 점점 노래가 절정에 이르자 아이들은 웃으면서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다른 기관 직원 분들께서도 아이들이 직접 즐기면서 난타를 치는 모습이 귀엽다고 칭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대회가 끝나기 전, 아이들은 대회에서 1등 부럽지 않은 2등이라는 상을 받아왔습니다. 상을 받으며 저희를 안아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저희는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아이들과 더 가까워 질 수 있었고, 저희의 노력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따라 와주고 끝내 상까지 받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대회 이후로 더 친하게,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 2012년 우리들의 일 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만남은 계속된다)

그렇게 작년 한해를 아이들과 보내고 말 쫘 크리스마스에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 줄 수 있냐는 부탁과 다음해에도 계속해서 봉사를 와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었고, 아이들 역시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봉사 확정이 되자 아이들은 저희와 함께 한다는 말을 듣자 기뻐하면서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크리스마스에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다음해도 함께 잘 해보자는 의미로 또 같이 하게 되어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따라주고 마음을 열어 주어서 고맙다는 의미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날 아이들과 재미있게 요리도 하고, 난타도 치면서 지난 일 년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아이들은 저희가 봉사를 올 때면 저희를 향해 "어? 사과누나 왔다!"하면서 마치 아빠가 회사 퇴근하시고 오실 때 현관 앞까지 가서 아빠를 반겨주는 것처럼 저희를 맞아줍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다른 봉사자와 달리 저희를 조금이라도 더 기억해주었으면 해서 항상 앞머리를 분수처럼 묶었던 것이 아이들에겐 사과처럼 보였는지 '사과누나!'라며 부르곤 합니다. 저희들이 아이들과 함께 했던 이 봉사를 통해 저희가 많은 것을 얻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저희의 모습이 소중한 하고 값진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 아이들에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 2013년 좀 더 힘찬 날개짓으로 도약하기

- 봉사를 통한 우리들의 변화

처음 시작은 그저 다문화가정아이들에게 도와주고 싶어 시작했던 마음에서, 점차 다문화가정아이들을 통해 저희가 성장하고 있었고, 그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소중한 아이들이 사회에서 상처받지 않길 바랐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문화가정을 보는 시선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고 느꼈습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저희는 학교친구들이 다문화가정아이들을 바라보는,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학교 친구들도 다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젝트’(교내)

우선 저희는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책이나 영화들을 프린트해 학교 화장실이나 교실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이게 뭐냐며 관심 없던 친구들도 차근차근 내용을 읽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프린트 새로 언제 바뀌는 거냐며 빨리 다음 내용도 보고 싶다고 재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활동뿐만 아니라, 매달 급식실 앞에 '다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를 붙여 놓아 아이들의 생각 변화를 보았습니다. 처음 저희가 봉사를 시작할 때에는 별 댓글도 없었습니다. 단지 다문화는 사회책에 있는 정도로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달 붙여 놓는 다문화 책이 소개되어 있는 공지와 저희가 그 옆에 붙여 놓았던 아이들의 사진이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 같아요. 당연히 그 다름을 존중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등등 다양한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학교 친구들이 다문화를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비빔밥을 만들 때 계란 지단 하나가 들어간다고 해서 비빔밥이 완성되는 게 아니듯이, 세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서 잘 비벼져야 비빔밥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소개했던 것이 인상 깊었다며 아이들도 점차 다문화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젝트’(교외)

이렇게 학교 친구들이 다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던 것을 기반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봉사기관이 있는 아산 시내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다문화에 관련 된 책들을 요약해 사람들에게 전단지로 나누워 주었습니다. 사람들도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매주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어느 날은 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같이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센터 선생님께서 그 일을 아시고는 고맙다며 함께 돕기로 하셨습니다. 저희는 센터에 있는 세계전통의상으로 센터 앞에 칸막이를 설치해 전시를 했습니다. 처음엔 "우와 신기하다?"하

면서 보던 시민들의 모습이 "이게 바로 일본 전통의상 기모노야. 애들이 잘 봐두렴!"하면서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보러 오시는 분들도 생기셨습니다. 매주 했던 지라 한 번 보았던 사람들은 그 장소를 기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고, 점점 다문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문화 알리미'로 시민들에게 불리게 되는 찬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갈 때나 아산 시내를 지나가게 되던 날 저희를 알아보고 인사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세계전통의상을 보여주며 전시해왔던 모습이, 저희가 다문화를 알리는 모습이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았나 봅니다. "오늘은 전시 안 합니까? 또 보러왔어요!"하면서 말을 걸어 주실 때면 저희는 웃으면서 항상 반기는 저희는 '크레용'입니다.

▶ '크레용' 활동을 통해 얻은 값진 보람과 성과

'크레용'은 단순히 교내 봉사동아리가 아닙니다. 저희는 교내친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 이전엔 다문화에 대해 낯설었던 저희였지만, 다문화가정아이들을 통해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다문화 사회가 어우러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입니다. 알게 된 많은 것들 중 무엇보다 다문화가정아이들이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주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비록 작은 학생일 뿐이었던 저희의 이런 노력이 지금의 '크레용'을 만들었고, 학교 친구들과 시민들에게 '크레용'을 통해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을 달라진 것을 보면 참 보람차다고 생각합니다. '크레용'을 통해 동아리 부원 모두들에게도 소중한 경험이 생겼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 (크레용의 날개 짓은 계속된다!)

2학기에 교내동아리 축제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보여드렸던 전통의상들을 친구들도 보면서 각 나라별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교내에 세계전통의상과 다양한 문화들의 축제나 음식 등을 전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 다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회의를 통해 '다문화 백과사전'을 필독도서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책으로 교내 독서 골든 벨을 열어 주신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교내에 매달 정기적으로 홍보물을 붙여 놓는 공지와 다문화가정센터 앞 전시해 놓는 세계전통의상들을 시민들에게, 친구들에게 변함없이 보여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다른 학교에도 동아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다문화 교육봉사동아리'크레용'에 궁금해 한다고 합니다. 저희학교에서 시작해, 옆 학교로 소문이 나게 되고, 주변 학교에도 소문이 퍼져 다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 저희는 비록 작은 동아리였지만, 지금은 학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시선을 바꿔 준 저희는 '크레용 나비효과'를 이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크레용과 같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저희는, '크레용'동아리입니다.

우리가 누구? 크레용! 크레용처럼 다양한 색깔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듯이 우리도 다문화가 보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파이팅!

■ 봉사활동 실천내용

동아리	<p>● 동아리명 : 크레용(CRAYON) - 다양한 색들로 구성된 크레용이 만나 하나의 멋진 그림을 완성하듯이, 다양한 나라의 다문화 아이들을 인정하고 모두의 특성을 살려서 다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통하고자 하는 동아리입니다. ● 학교 : (천안여자)고등학교</p>		
동아리 명단	서예원(동아리대표, 2학년), 허가연(2학년), 오성해(2학년), 강주희(2학년), 윤혜진(2학년), 김수진(1학년), 강주진(1학년)		
주요활동요약	<p>※ 아이들끼리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모둠활동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 ※ 중국어 수업(3회), 일본어 수업(2회), 베트남어 수업(2회) - 다양한 언어들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익히고 말할 수 있도록 활동.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우고 관심을 갖는 계기 마련. - 주로 PPT로 시청각자료를 만들어 수업자료로 사용. ※ 태권도, 난타 수업(항상), 미술수업, 요리수업(2회) :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이 폭 넓고 여러 분야의 재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활동.</p>		
활동일시	주요활동내역	활동인원(명)	활동장소
2012년도			
2012년 2월 25일 9:30 ~ 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회원 모집하기, 동아리 창설 ▶ 태권도 배우기, 난타수업 ▶ 중국어 수업 - 아이들과 만두 만들기 - '중국어로 가족호칭 말하기' 	7	<p>● 아산시 다문화 가정센터</p> <p>● 아산시합기도연무관 (태권도, 합기도)</p>
3월 24일 9:30~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 배우기, 난타수업 ▶ 일본어 수업 - '일본하면 떠오르는 것은?'을 주제로 그림그리기 		
4월 28일 9:30~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 배우기, 난타수업 ▶ 베트남어 수업 - 베트남어로 자기소개하기 - 베트남에 대해 알아보기 		
5월 26일 9:30~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 배우기, 난타수업 ▶ 중국어 수업 - '삼국지'와 '초한지'읽고 독후감쓰기 - 중국역사에 대해 알아보기 		
6월 23일 9:30 ~ 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 배우기, 난타수업 ▶ 난타수업 - 난타 치는 법과 기본적인 동요를 통해 율동배우기 		
7월 28일 9:30 ~ 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 배우기, 난타수업 ▶ 중국어수업 - '중국어로 과일을 말하는 법을 배워보아요.' 		
8월 25일 9:30 ~ 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 배우기, 난타수업 ▶ 일본어수업 - 기모노를 입고 아이들과 다도 하는 법을 배우기, - 일본어로 인사말 배우기 		
9월 22일 9:30 ~ 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요리 대회', 태권도 배우기, 난타수업 ▶ 요리 만들기 - 엄마와 함께 요리 만들기 (특별로 각 나라의 고유 전통음식 만들기) 		
10월 27 일 9:30 ~ 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 배우기, 난타수업 ▶ 미술수업 - '장래희망'을 주제로 그림그리기 		
11월 24 일 9:30 ~ 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 배우기, 난타수업 ▶ 베트남어 수업 - 베트남어 선생님과 함께하는 월남쌈 만들기 		

<p>주요활동요약</p>	<p>※ 아이들끼리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모둠활동들 위주로 수업을 진행.</p> <p>※ 중국어 수업(3회), 일본어 수업(2회), 베트남어 수업(2회)</p> <p>- 다양한 언어들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익히고 말할 수 있도록 활동.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우고 관심을 갖는 계기 마련.</p> <p>- 주로 PPT로 시청각자료를 만들어 수업자료로 사용.</p> <p>※ 태권도, 난타 수업(항상), 미술수업, 요리수업(2회)</p> <p>-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이 폭 넓고 여러 분야의 재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활동.</p> <p>※ '가족사랑, 가족행복 축제'참여(다문화축제)</p> <p>- 충남도청 문화회관 및 야외광장 (충남도청 개최)</p> <p>※ '교내동아리 보고대회'참가 (천안여자고등학교 개최)</p> <p>※ '다문화인식개선 프로젝트'실시</p>								
<p>활동일시</p>	<p>주요활동내역</p>	<p>활동인원(명)</p>	<p>활동장소</p>						
<p>2013년도</p>									
<p>2013년 3월30일 9:30 ~ 2 :30</p>	<p>▶ 태권도 배우기, 난타수업 ▶ 독립기념관 방문 - '역사의 아픔'에 대해 인식하기</p>	<p>7</p>	<p>◎ 아산시 다문화 가정센터</p>						
<p>4월 27 일 9:30 ~ 2 :30</p>	<p>▶ 태권도 배우기, 난타수업 ▶ 일본어수업 - 히라가나, 가타가나 읽고 쓰기</p>			<p>◎ 아산시합기도연무관 (태권도, 합기도)</p>					
<p>5월 25 일 9:30 ~ 2 :30</p>	<p>▶ 태권도 배우기, 난타수업 ▶ '가족사랑 가족행복'축제 참가 - '강남스타일'노래에 맞춰 난타공연 - '우리가족 사랑나무', '경극 만들기' 등 체험 활동부스운영 -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 볼거리 제공</p>				<p>◎ 충남도청 문예회관 및 야외 광장</p>				
<p>6월 29 일 9:30 ~ 2 :30</p>	<p>▶ 태권도 배우기, 난타수업 ▶ 중국어 수업 - '중국어로 곤충이나 직업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볼까요?'</p>					<p>◎ 충남도청 문예회관 및 야외 광장</p>			
<p>7월 27 일 9:30 ~ 2 :30</p>	<p>▶ 교내 '동아리 보고대회'참가 - 2013년도 상반기 동아리 활동 보고서 작성 - 동상(3위) 수상 ▶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젝트 실시 - 교내 '인식개선 프로젝트'실시 ◆화장실, 급식실 등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다문화를 주제로 쓴 책이나 영화 내용 붙이기 ◆ 다문화관련자료 시청 ◆ 다문화를 주제로 독후감쓰기 ◆ '다문화에 대한 생각적기 나무'활동 등</p>						<p>◎ 충남도청 문예회관 및 야외 광장</p>		
<p>8월 24일 9:30 ~ 2 :30</p>	<p>▶ 태권도 배우기, 난타수업 ▶ 일본어 수업 - '일본어로 가족 호칭 배우기'</p>							<p>◎ 충남도청 문예회관 및 야외 광장</p>	
<p>8월 24일 9:30 ~ 2 :30</p>	<p>▶ 태권도 배우기, 난타수업 ▶ 베트남어 수업 - 베트남어로 과일 부르기'</p>								<p>◎ 충남도청 문예회관 및 야외 광장</p>

친따꿈따(재능기부 미술영재동아리)

천안시자원봉사센터

동아리 대표 : 김시환 지도교사 : 나요환

미술재능기부 동아리 「친따꿈따」 봉사활동 실천 사례
벽화에 아로새긴 재능 나눔·행복 터치



I

우리들의 미미한 시작은 이렇게

1. 충남예술영재교육원에서 만난 우리들

천안시 원성동에 소재한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설립한 충남예술영재교육원이 있다. 2011년 추웠던 12월에 우리들은 미술에 대한 열정 하나로 예술영재교육원의 입학시험을 치르러 모였었다. 그 때는 사실 누가 누구인지 몰라서 너나 할 것 없이 견제하며 긴장 했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들은 영재시험에 합격하고 2012년 1년 동안 영재교육원 동기로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꿈틀꿈틀 주체할 수 없는 끼와 새로운 것을 접하고 배우는 기쁨으로 행복한 1년을 보냈다.

특히, 영재교육원에서 했던 많은 활동 중에 영재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사명감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았다. 영재는 특별한 재능을 타고 났기 때문에 그 재능을 잘 계발하여 사회와 나라를 위해 훌륭하게 쓰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천안의료원으로 영재교육원 식구들 모두가 봉사활동을 떠나게 되었는데 우리들은 그곳에서 아픈 환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해 페이스페인팅을 해 주었고 한지에 시원한 그림을 그려서 만든 부채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 때 우리보다 어린 꼬마 환자들과 노인 환자분들께서 특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의 재능이 아직 보잘 것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정말 가슴이 뿌듯했었다.

1년의 짧은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영재교육원을 수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형제가 헤어지는 것처럼 아쉽고 또 아쉬웠다. 수료식 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우리 연락하고 지내자며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다.

2. 재능 나눔.행복 터치

2013년 3월, 우리들 6명은 중학생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 우리가 만나서 한 첫말은 “미술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심심해!”였다. 중학교에 적응하느라고 공부만 하다 보니 우리들 재능을 펼쳐볼 시간이 없이 가슴 깊은 곳에만 껍뚱 눌러 놓고 있자니 심심하고, 자꾸만 마음이 간질간질해졌다. 우리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동안, 작년에 봉사활동 나갔을 때의 그 뿌듯함과 즐거웠던 미술 작업들이 떠올랐고, 드디어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우리들의 미술 재능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어 우리들과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활동을 시작해 보기로 마음을 모으게 되었다.

3. 이름부터 정하자!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모였고, 활동을 하기로 했으니 모임 이름이 필요하였다. 브레인 스토밍으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지만,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끼리 모였기 때문에 시환이가 아이디어를 낸 “친구따라 꿈따라”라는 말을 줄여서 “친따꿈따”라고 정하였다.

4. 어떻게 시작하지?

우리들의 재능인 미술을 통하여 어떻게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동안 생각해 온 구상들을 꺼내 놓았다.

작년처럼 병원을 다니며 환자들에게 페이스 페인팅을 해 주자는 의견, 수제 그림엽서를 만들어 판매하여 난치병 어린이를 돕자는 의견 등 각자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내었다. 그 중에서 현지가 집 근처 작은 도서관(KYC 소속 꿈나래 도서관)이 있어서 동생과 함께 주말마다 도서관을 가는데 도서관 벽이 모두 하얗기만 해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찾아올 수 있는 벽화를 그려 넣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마침 현지 어머니께서 꿈나래 도서관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섭외 문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벽화라... 그것 참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일단 규모가 크고 한 번 그려 놓으면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쳐다볼 거라고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뿌듯했다. 하지만, 잘못하면 어찌지? 벽화는 어떤 물감으로 그리지? 비가 와서 젖으면 다 지워지나? 이런 저런 걱정과 막연함으로 우린 자신감이 급 추락하기 시작했다.

5. 선생님, 도와주세요!

작년에 충남예술영재교육원 선생님들이 항상 도와주시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던 기억이 나서 우린 복일고등학교 나요환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다. 벽화 작업을 하며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하니 선생님께서는 선뜻 도와주시겠다고 **환잡음**



II

‘친따꿈따’의 봉사활동은 이래요.

1. 함께 한 친구들

순	이름	소속 학교 및 학년
1	구 현 지	천안새샘중학교 1학년
2	김 시 환	천안불당중학교 1학년
3	서 해 인	천안봉서중학교 1학년
4	이 가 영	천안불당중학교 1학년
5	이 예 진	아산배방중학교 1학년
6	허 윤 서	천안용곡중학교 1학년

2.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3년 3월 24일 ~ 현재까지
- 봉사활동 장소 1 : 천안시 용곡동 꿈나래 도서관 입구 및 실내복도
- 봉사활동 장소 2 : 천안시 불당동 현대아파트 내 주민탁구장 실내

3. 봉사활동 내용

- 공공시설의 벽화 그리기

4. 봉사활동 일지

날짜	활동 내용
2013년 3월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봉사활동 장소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YC 소속 꿈나래 도서관에 모여 벽화를 그릴 벽면의 크기와 출입구 등을 살펴봄.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방문함. (목천고, 온양고, 두정고, 백석중) ▶느낀 점: 미리 전화로 방문 허락을 받지 않고 곧바로 방문하니 퇴근 시간이 지나서 문을 열어 주지 않아 다시 찾아가는 어려움이 생겼다. 다음에는 꼭 방문 예약을 하고 가야겠다고 다짐함.
날짜	활동 내용
2013년 4월1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조사 및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어린이 도서관의 벽화 사진을 수집하여 봄. ▪ 꿈나래 도서관의 벽화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토의 ▶느낀 점: 우리들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이 너무 달라서 의견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음. 자칫 의견충돌이 심해지고 서운해지지 않을까 걱정됨.

날짜	활동 내용
2013년 4월28일	<p>▶벽화그리기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도서관 이미지에 맞게 동화 속 주인공을 그리기로 함. ■ 출입구, 현관, 복도 등 세 부분으로 장소를 나누어 구상도를 그려 오기로 함. <p>▶느낀 점: 실제로 그리기로 하고 장소에 맞는 이미지를 구상하려고 다시 장소를 살펴 보니 생각보다 무척 넓어서 다시 한 번 쉽지 않겠다는 살짝 두려운 생각이 듦.</p>
날짜	활동 내용
2013년 5월19일	<p>▶역할 분담 및 준비물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준비물을 조사하고 구입해야 할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관 측에 구입 요청함. ■ 3군데 장소별로 2명씩 3 팀으로 나누어 작업하기로 함. <p>▶느낀 점: 페인트와 붓 등 준비물 값이 매우 비싸다는데 놀랐고 다행이 도서관에서 구입을 해 주시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강해짐.</p>
날짜	활동 내용
2013년 5월26일	<p>▶밑그림 그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나눠진 구역에 준비한 동화 속 주인공들을 4B 연필로 밑그림 그림. ■ 검은색 페인트로 밑그림을 따라 라인을 그림. <p>▶느낀 점: 4B연필로 밑그림을 그린 후 너무 지저분해서 나중에 벽화가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됨.</p>
날짜	활동 내용
2013년 6월 2일 ~ 8월 4일	<p>▶채색 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원색을 배합하여 필요한 색깔을 만들어냄. ■ 밑그림대로 채색 작업함. <p>▶느낀 점: 3원색을 배합하여 적당한 색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음. 잘못 색 칠하여 벽에 묻으면 닦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조심하느라 무척 힘이 들었음.</p>
날짜	활동 내용
2013년 8월11일	<p>▶벽화 작업 마무리 및 평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깔끔하지 못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페인트칠을 수정 보완함. ■ 벽화 모서리에 우리들 싸인을 남김 ■ 락카를 뿌려 페인트가 지워지지 않도록 작업함. <p>▶느낀 점: 처음 작업이다 보니 모르는 점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음. 주말에만 잠깐 시간을 내어 조금씩 작업하므로 채색 작업에 오랜 기간이 걸림. 우여곡절 끝에 완성을 하고 나니 날아갈 듯 기쁘고 보람참.</p>
날짜	활동 내용
2013년 8월31일	<p>▶탁구장 벽화 작업 요청 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벽화가 입소문이 났는지 인근 주민자치 탁구장의 벽화 작업을 요청 받음. ■ 탁구장에 모여 답사를 하고 벽화 작업의 방법과 이미지를 협의함. <p>▶느낀 점: 방학 동안 잠깐 쉬었는데 그새 새로운 장소의 벽화 작업 요청을 받으니 우리가 마치 전문가가 된 듯 자부심이 생김. 도서관 벽화는 처음이라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이제 경험이 생겨 빠른 시간에 작업을 끝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벌써 우리가 유능해졌나 하는 뿌듯한 기분임.</p>



III

‘친따꿈따’ 동아리 활동을 되돌아보니

1. 힘들었던 순간들

가. 의견 조율의 어려움.

사실 벽화작업은 우리들 중 누구도 해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나요환 선생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지도해주셨지만, 선생님은 주도권을 우리에게 넘겨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셨다. 어떤 이미지로 작업할 건지, 어떤 장소에 어떤 그림을 넣을 건지를 토의할 때는 모두가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서 성향이 강한 친구가 주도권을 잡고 결정하려고 하면 내성적인 친구들은 소외감을 느낄까봐 조심스러웠다. 또, 채색을 할 때도 그 부분에 그 색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친구가 덩석 채색하기 시작하자, 그 색이 아니라고 지적하면 상처가 되고 마음 상해서 도중에 봉사활동을 그만둘까 고민하기도 했었다.

나. 실수 또 실수

벽면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도화지에 연필로 그리는 것과 다르다. 연필은 지울 수 있지만, 페인트는 지울 수가 없다. 면을 채색하는 것은 그나마 쉽지만, 채색 작업 후에 검은색으로 라인을 그리는 작업은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전문가처럼 잘 해 낼 수가 없었다. 아차하면 페인트가 벽에 튀고, 조금만 붓에 페인트가 많이 묻어 있어도 잘 칠하고 나서 줄줄 흘러내렸다. 그 때마다 놀라서 물걸레로 닦고 또 닦아냈지만, 자국이 남았다. 결국, 1주일 쯤 기다려서 잘못 칠해진 부분이 완전히 마른 후에 밀 바탕색 페인트로 전부 덮어버리고 새로 시작한 부분도 꽤 있었다. 휴-

2.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

벽화 작업을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참 재미있었다. 우리들끼리 만나서 작업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다. 그러다보니 웃고 떠들고 작업의 속도가 나질 않았다. 도서관 직원분들은 어린 학생들이 주말마다 와서 봉사활동 하는 것이 기특하고 대견해서 뭐라 말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쉬고 우리가 너무 오랜 기간(3개월) 동안 작업하느라, 도서관 측에서는 늘 정리되지 않은 벽면을 보는 것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봉사는 우리가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야겠다는 반성이 들었다.

나. ‘열심히’로는 부족하다.

세상 일이 결과보다는 열심히 하려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배워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재능을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와 나누려고 시작한 봉사활동이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가 하는 벽화 작업만큼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했다. 왜냐하면 벽화는 한 번 그려 놓으면 그 장소의 일부분이 되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이다. 벽화는 한 공간의 이미지가 되어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시각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간과 잘 어울려야 하고 좋은 느낌을 주어야 했다. 열심히 했다고 하여 잘 어울리지 않고 불쾌감을 주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선한 의미의 봉사가 아니라, 강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잘해야’ 했다.

3.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가. 색깔은 필요한 만큼 만들어 놓고 쓰기

중간에 페인트 색깔이 모자라서 다시 색깔을 만들게 되면 처음과 똑같은 색을 만들 수가 없다. 처음엔 그 사실을 모르고 조금 만들어서 쓰고 모자라면 다시 만들어서 칠했다. 그랬더니 색깔이 부분 부분 달라서 애를 먹었다. 이제는 처음부터 필요한 색을 필요한 만큼 만들어 놓아야겠다.

나. 물감 통은 뚜껑 있는 유리병 사용하기

필요한 색은 많고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물감 통을 하나씩 들고 사용하게 되자, 점점 물감 통이 많아져서 50여개나 되었다. 우리들은 종이컵에 덜어 쓰고 나서 다 쓰면 휴지통에 버리면 될 줄 알고 종이컵을 사용했더니 한 번에 다 쓰지 못하고 남겨서 다음에 다시 써야 하므로 불편한 문제가 생겼다. 페인트가 굳지 않으려면 밀봉을 해야 하는데 종이컵은 밀봉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쉬운 대로 비닐 팩을 씌우고 고무줄을 돌려 밀봉을 했지만, 종이컵이 단단하지가 않으니 구겨지고 손에 페인트가 다 묻었다. 다음에 쓸 때 비닐 팩을 벗기다가 또 묻고 구겨졌다. 다음번에 뚜껑이 있는 유리병을 각자 집에서 수집해 놓았다가 사용해야겠다.

4. 주민들이 불러주는 ‘친따꿈따’ 동아리

가. 지역 신문에 난 ‘친따꿈따’ 동아리 기사

2013년 5월 27일 충청매일신문에 우리들 기사가 났다. 충남예술영재교육원 수료생들이 봉사동아리를 만들어 지역 도서관에 벽화작업을 한다는 기사였다. 물론 우리들 작업 모습도 멋지게 사진으로 실렸다.

나. 입소문을 타고 벽화 작업 요청이 들어옴.

도서관 벽화가 참 예쁘게 잘 나왔다. 우리 스스로도 정말 만족스러웠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어린 동생들이 새 집에 들어온 듯 정말 좋아했다. 그래서인지 옆 동네 주민분들이 우리들에게 주민자치 탁구장에 벽화를 그려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들은 정말 신났다. 연락을 받고 즉시, 탁구장으로 달려가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회의에 들어가 전체적인 이미지와 작업 방식, 역할분담까지 한 자리에서 일사천리로 진행하였다.

IV

앞으로 우리는...



■ 봉사활동 실천내용

동아리	동아리명 : 친따꿈따 - 재능기부 미술영재동아리 (천안 불당중외)		
동아리 명단	김시환(동아리대표, 1학년), 구현지(1학년), 서혜인(1학년), 이가영(1학년), 이예진(1학년), 허윤서(1학년)		
주요활동요약	도서관 벽화 그리기		
활동 일시	주요활동내역	활동인원	활동장소
3월 24일 15:00~18:00	봉사활동기관탐방 및 선정	6	천안,아산지역
4월 14일 15:00~18:00	작업준비를 위한 사전조사 및 토의	6	꿈나래작은도서관
4월 28일 15:00~18:00	벽화그리기 계획 수립	6	꿈나래작은도서관
5월 19일 15:00~18:00	벽화주제, 역할분담 및 협의	6	꿈나래작은도서관
5월 26일 14:00~18:00	밑그림 및 색칠하기 등	6	꿈나래작은도서관
6월 02일 14:00~19:00	벽화 그리기 작업	6	꿈나래작은도서관
6월 16일 15:00~18:00	벽화 그리기 작업	6	꿈나래작은도서관
7월 14일 15:00~19:00	벽화 그리기 작업	6	꿈나래작은도서관
7월 21일 15:00~19:00	벽화 그리기 작업	6	꿈나래작은도서관
8월 4일 15:00~19:00	벽화 그리기 작업	6	꿈나래작은도서관
8월 11일 14:00~18:00	벽화 작업 마무리 및 평가회	6	꿈나래작은도서관
8월 31일 14:00~18:00	벽화 작업 계획수립 및 설계	6	불당아이파크탁구장

두드림(Do Dream)

예산여자고등학교

동아리 대표 : 김지현 지도교사 : 홍승희

드림을 실천하라! - 나눔과 배려의 청소년 봉사활동 -

1. 봉사활동 동기

본교가 위치하고 있는 충남 예산은 농어촌 지역으로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이나 문화생활, 봉사활동을 하려면 이웃 도시로 가야 하는데, 교통도 불편하여 이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2012년 3월,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우체국이나 기차역, 도서관, 읍사무소에서 청소 위주의 일손 돕기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나눔'이라는 봉사활동의 참 의미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시간 때우기식 봉사활동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봉사활동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멀리 다른 지역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실천하고, 우리처럼 어떻게 봉사활동을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친구들에게 우리의 봉사활동 결과들을 함께 공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두드림(Do Dream)'이라는 교내 봉사 동아리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두드림(Do Dream)이라는 동아리의 명칭에 '드림(봉사)을 실천한다(Do)', '꿈을 향해(Dream) 행동한다(Do)', '자신의 미래로 향하는 문을 두드린다'는 다소 크게 느껴지지만 참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보았습니다.

2. 활동 내용 및 실적

1, 2학년으로 구성된 동아리원들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내 기관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차 시간도 잘 맞지 않고, 얼마 되지 않는 봉사활동 기관은 이미 다른 학교들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것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우리의 봉사활동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일부 기관에서는 청소나 일손 돕기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셔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1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봉사활동에 자신감을 얻은 우리

들은 2013년의 동아리 활동은 청소년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 봉사활동의 실천,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캠페인 활동을 하기로 큰 틀을 잡았습니다. 봉사활동 기관이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닌, 우리 동아리가 주도가 되는 봉사활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우리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라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만한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공기가 좋은 한적한 곳에 노인 요양원들이 많은데, 한적한 곳이다 보니 버스도 하루에 3~4차례만 들어가고 1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부모님들이 차량 봉사를 해 주셨지만, 올해는 그것도 여의치 않아 봉사활동을 할 장소를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흔쾌히 저희들의 봉사활동을 받아 주신 곳이 임마누엘 요양원이었습니다. 이곳은 연세드신 어르신들께서 머물러 계신 곳으로,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거동을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상당수 계셨습니다. 우리는 매달 2, 4주 토요일 오전에 봉사활동을 하기로 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청소와 식사준비를 도왔는데, 크리스마스 공연 때 너무도 즐거워하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어르신들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동아리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봉사활동 아이디어를 모았는데 음악공연, 미술놀이, 인형극, 전통놀이, 손발 마사지, 요리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프로그램 계획표를 짜서 요양원의 복지사님과 함께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함께 하기 어려운 활동이나 청소년들로서는 하기 힘든 활동, 요양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을 빼고 연간 계획을 짰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도 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을 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청소년위주의 봉사활동을 권하더니,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며 적극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한 봉사활동은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함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작년 축제 때 우리 동아리에서 진행하여 좋은 호응을 보였던 소아암 환자의 가발 제작을 위한 모발기증 캠페인을 다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안경을 보내 주는 캠페인과 헌혈증을 기증하는 캠페인을 동시에 묶어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우리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효와 감사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스승의 날 은사님 찾아뵙기 캠페인과 어버이날 카네이션 만들어 달아드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 등 학생들의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생기는 학교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기 위해 친구와의 우정을 되살리는 프리허그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 세계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신생아들의 체온을 유지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축제 때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개발국 어린이들이 겪는 아동노동과 굶주림을 체험하는 기아체험 캠페인을 실시해 보기로 구상했습니다.

그밖에 우리지역에 살고 계신 독거노인을 위한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과 김장해드리기 봉사활동을 학교내 다른 봉사 동아리들과 연합하여 군청과 지역 자원봉사 센터의 도움을 받아 실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 봉사활동의 실천

◆ 공연 활동

봉사활동 프로그램 중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준비도 많이 해야 하지만, 가장 즐겁고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은 공연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바닥만 쳐다 보면서 노래만 불렀는데, 절로 흥이 나신 어르신들이 박수도 쳐주시고 함께 노래도 불러 주셔서 더 열심히 공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진 특기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있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탬버린과 리코더, 노래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아시는 동요와 민요, 트로트와 가곡 등 다양한 음악 목록을 정하고 간단한 율동도 짜 보았습니다. 동아리원들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마다 서로 만나서 연습을 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아 실수도 많았지만 어르신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기분 좋게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버이 날 우리가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면서 어머니 은혜 노래를 불러드렸더니 눈시울이 빨개지시면서 고맙다고 손을 잡아 주셔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기타 동아리 친구들과 연합을 하여 공연을 보여 드렸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 요양원까지 가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작은 사탕 한 봉지에도 기뻐하시던 어르신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1학년 학생들은 햇님 달님을 소재로 막대 인형을 만들어 인형극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도 작고 너무 빨리 이야기를 진행하여 어르신들이 잘 못알아 들으셨는데, 횃수가 거듭될수록 어르신들이 듣기 편하시게 옛날 이야기식으로 장단을 맞추어가며 흥겹게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층별로 한 번씩만 공연을 하기로 했지만 거동을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셔서 각 방마다 돌며 공연을 해 드렸습니다. 공연 시간동안 2학년 학생들은 어르신들 손마사지를 해드리면서 맛장구도 쳐드리고 흥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절로 힘이 났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 미술 놀이

어르신들 손마사지를 해 드리다 보면 손이 굳어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박수치기, 잼잼하기 등 간단한 손유희를 알려 드리면서 손의 근육을 풀어드렸습니다. 소근육 사용에는 미술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여 색종이 접기, 찢기, 붙이기, 색칠하기 등 미술놀이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색종이 접기는 우리가 준비해 간 것보다 어르신들이 더 잘 접으셔서 오히려 어르신들께 많이 배워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도 모르냐며 어린 손녀 취급을 하시면서 한복접기, 공접기 등 하나하나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어르신들 마음을 열게 해 드린 것 같았습니다. ‘옛날엔 이런 것도 접었었지’,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옛날의 기억을 떠

올리시면서 즐거워 하셨습니다.

미술 놀이는 한 친구가 서너분의 어르신들과 한 모듬 되어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서너분도 감당이 안되어 땀만 뻘뻘 흘리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이 테이블로 모여들었습니다. 요양원의 선생님들께서 어르신들이 우리와 미술놀이 하는 시간을 무척 즐거워하신다고 귀뜸을 해 주셔서 힘들었지만 더욱 힘을 내어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색칠하기, 색종이 찢어 붙이기 등 우리가 준비해 간 종이에 집중해서 작품을 완성시키실 때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머금어지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릴 때마다 초등학교생처럼 좋아하시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 요리 놀이

어르신들은 물론 요양원 선생님들께도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요리 놀이였습니다. 작업을 하면서도 먹고, 작업을 하고 나서도 먹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활동이었습니다. 커다란 전지에 과자를 늘어놓아 사람 얼굴 만들기, 동물 얼굴 만들기, 자연풍경 만들기, 집 모양 만들기 등을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끊임없이 생각하시면서 과자를 배열하시며 활동하시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하는 활동이라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 좋을 것 같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에 절로 힘이 났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과일을 준비해서 화채 만들기를 했습니다. 플라스틱 칼로 드시고 싶은 과일을 잘게 잘라 음료수를 넣어 만든 화채는 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무가당으로 된 음료수를 준비하거나 달지 않은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재미있게 만드시고서도 드시지 못하는 모습에 봉사활동을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의 상황도 배려를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손발 마사지

작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강사님이 나오셔서 손마사지 교육을 받았고, 올해는 선배 언니들이 손마사지 교육을 해 주어서 어르신들께 손발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언니들이 손마사지 교육을 해 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과 발을 만지면서 깜짝 놀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끼리 실습을 할 때는 고등학생이라 피부가 보들보들하지만 어르신들은 각질도 많고 뻣뻣하기도 하고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은 손발이 많이 험하다고 했습니다.

처음 마사지를 해 드렸을 때 긴장된 맘으로 ‘마사지를 해 드리겠다’고 하니 손발이 많이 거칠어서 보여주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손발을 끌어다 열심히 마사지를 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묵묵히 마사지만 해드렸는데, 점차 익숙해지면서 어르신들과 눈도 맞추고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두 분이 마사지를 받기 시작하시니 다른 어르신들도 나도 해달라며 다가오셨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이면 손발이 저리시라며 마사지를 즐겨 하시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선생님들께서는 토요일에 오는 우리들을 위해 어르신들께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열심히 씻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드리러 봉사활동을 오는 것인데, 오히려 어르신들이 우릴 위해 많은 것을 배려해 주시고 신경써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께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집에 와서도 부모님께 마사지를 해드리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하다며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봉사활동은 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집에 계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께 더 잘해드리게 되었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 전통놀이

어르신들이 좋아하실만한 활동들을 생각해 보던 중 전통놀이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릴 적 놀던 윷놀이와 딱지치기, 비행기 날리기, 콩주머니 놀이 등 누가누가 잘하나 편을 갈라 놀았더니 더 흥겨워하시고 서로 응원도 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느질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학교에 모여서 콩주머니를 만들어 갔습니다. 초등학교 체육대회 때 박터뜨리기를 하면서 본 적은 있지만 만들어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느질이 서툴러 손가락이 부르터가며 만들었지만 색색의 콩주머니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에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콩주머니를 만드는 모습을 지나가시던 교장선생님께서 보시고 콩주머니 던지기 시범을 보여 주셔서 친구들과 열심히 연습을 해갔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논다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전통 놀이를 통하여 함께 웃으며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들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는데 딱지치기를 하면서 많이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승부욕이 발동하셔서 열심히 딱지를 치시던 개구쟁이 소년같은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어르신들이 조금만 더 건강하시다면 제기차기도 하고 투호놀이도 하고 훌라후프 돌리기도 하고 야외놀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식사 도우미

우리의 봉사활동이 끝날 즈음은 어르신들의 점심식사 시간이 됩니다. 간다고 인사를 드리면 마음이 안좋아지셔서 식사를 안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몰래 돌아오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르신들과 많이 친해지고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은 온다는 것을 아시고 난 후, 어르신들은 프로그램이 끝나면 “잘 가고 또 와”라며 먼저 인사를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믿음이 생기신 것 같아서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요양원 선생님들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르신들 식사 도우미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과 아닌 분, 같은 음식을 드시는 분과 일반 식사를 하시는 분을 나누어 식사를 담는 일을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혼자서 식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먹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이 흘리시고 가끔 토하시는 분들도 있어 여학생들에게는 잘 시키지 않는다고 하셔서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 드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시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어린 아기처럼 받아 드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입가에 묻히거나 흘리실 때마다 깨끗이 닦아드리며 먹여드렸습니다. 남기지 않고 열심히 다 드시는 모습,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 캠페인 활동

◆ 은사님 찾아뵙기 캠페인

스승의 날을 맞아 은사님 찾아뵙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요즘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모아 스승의 날 유래와 스승의 은혜 노래 가사, 카네이션의 유래 등을 홍보물로 만들어 일주일간 복도에 전시를 했습니다. 보충수업에 야간 자율학습까지 해야 하는 고등학생인지라 선생님들을 찾아 뵈는 시간이 없었는데, 중간고사 기간과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가 많은 기간을 이용하여 스승님을 찾아뵙자는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선생님들도 기특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캠페인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찾아 뵈는 때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카네이션 만들기 캠페인도 시행해 보자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 카네이션 만들어 달아드리기 캠페인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만들어 달아드리기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당연히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드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쑥스러워서, 잊어버려서, 학원가느라고 어버이날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미리 인터넷을 보고 만들 카네이션을 선정하고, 재료를 잘라 세트로 준비하고, 미리 만들어 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신청자를 미리 받았는데도 예상보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 주어서 교실을 2개로 나누어 카네이션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약 88명의 학생들과 5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특히 공부하느라 바빴던 3학년 언니들이 좋은 기회라며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함께 만들었는데도 여기저기서 도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1개만 하고 2개씩 만드는 친구들도 있어서 재료도 부족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드릴 것, 선생님들께 드릴 것, 요양원의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릴 것 등 100여개 넘게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 달아드리니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생각이 커졌다면 기뻐하시는 부모님, 역시 딸이 최고라는 부모님들의 칭찬에 캠페인을 진행한 우리도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요양원의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들께도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습니다.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주시는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부르튼 손이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카네이션쯤이야 돈으로 쉽게 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직접 만들어서 드리니 받는 분들의 감동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온다는 생각에 무척 보람되었습니다.

◆ 우리도 기부천사 캠페인

작년 축제 때 우리 동아리가 주도가 되어 실시했던 소아암 어린이 가발 제작을 위한 모발기증 캠페인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도 기부천사'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어른들은 돈을 모아 기부활동을 할 수 있지만, 청소년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부활동을 찾아보던 중 모발기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아암 환자들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들

의 정서 안정을 위해 가발을 제작해 주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 기관에 모발을 기증하여 가발을 기부해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생명처럼 여기는 여학생들에게 모발을 기증하자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발 기증의 의미를 홍보하고 뜻이 있는 친구들에게 장기기증 서약처럼 ‘모발기증 서약’을 받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염색이나 퍼머를 하지 않은 건강한 모발이 필요한 만큼 뜻이 있는 친구들은 먼저 모발기증 서약을 한 후 모발을 건강하게 길러 자신이 기증하고 싶을 때 기증을 하는 방식으로 해 보자고 했습니다. 강압적인 방식은 오히려 거부감을 줄 뿐이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아주세요’라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안아주세요란 ‘안경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보내 주세요’라는 의미로 쓰지 않는 안경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에 보내주는 기부활동이었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서 눈이 보이지 않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혈증 기증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헌혈로도 기부활동이 되지만, 헌혈증을 필요로 하는 백혈병, 소아암 환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혈증도 모아서 기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이틀간 모발, 안경, 헌혈증을 기증받았습니다. 약 43명의 학생들이 모발기증에 동참을 했고, 48명의 학생들이 모발기증 서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3명의 학생들이 150여개의 안경을, 13명의 학생이 31장의 헌혈증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도 함께 동참을 해 주셔서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모발은 한국백혈병 소아암 협회에 기증을 했고, 안경은 안아주세요 협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헌혈증은 본교의 1학년 학생의 사촌오빠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 기증한 친구들의 뜻을 모아 직접 기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증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들이, 어른들이 하는 것이라고만 여겼었는데, 내겐 쓸모없는 작은 것들도 남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부하자’라고 하면 ‘왜하는데?’라며 반문하는 친구들에게 일일이 기부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기부하면 뭐 줄건데?’라며 대가를 바라던 친구들이 설명을 듣고 난 후 고개를 끄덕이며 기부활동에 동참을 해 주어서 무척 보람이 컸습니다.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의 참 의미를 모르는 또래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에 자부심도 커졌습니다. 또 나만 혼자 기부를 했다면 이렇게 많은 참여를 얻기 힘들었을 텐데 선후배들, 선생님들, 부모님들까지 함께 동참을 해 주었다는 것에 캠페인의 효과와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 기아체험 캠페인

올해는 교내 축제기간을 통해 기아체험 캠페인을 진행해 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래는 월드비전에서 주관하는 기아체험 24시간을 운영해 보자고 했지만, 준비과정도 만만치 않고 축제기간에 24시간을 굶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을 기약하며 간단하게 기아체험만 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기아체험을 해보기 위해 어떤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좋

을지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 여고생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길기 체험과 아동노동 체험, 식량부족 체험 3가지 코너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각 코너에서는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설명한 후 체험하고 스탬프를 받아 3가지 모두 통과를 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물길기 체험은 생수통 나르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km를 걸어서 물을 길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물을 낭비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물을 얻는지 체험을 했습니다. 왕복 30m도 되지 않는 짧은 거리를 힘들게 생수통을 나르며 사진 속의 작은 어린이들의 고통을 함께 체험했습니다.

아동노동 체험은 모래 상자에서 작은 구슬을 찾아 실에 꿰는 작업이었습니다. 아주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친구들은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손도 떨리고 눈도 보이지 않는다며 공부하는 우리나라가 훨씬 낫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축구공 바느질, 카카오 농장의 노동, 사금 광산의 노동 등 다른 나라의 아동노동 사례를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식량부족 체험은 아이티의 진흙쿠키 기사를 동영상으로 보고 직접 진흙쿠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먹어도 되는 최고급 황토로 진흙쿠키를 만들었지만, 저개발국의 아이들은 오염된 진흙쿠키를 먹으며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실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준비한 옥수수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나름대로 버터와 설탕을 많이 넣었지만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친구들은 식량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체험이 많아서 체험하러 오는 친구들이 적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지만 약 143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체험을 해주셨습니다. 알차게 프로그램을 잘 짰다고 칭찬도 받고 친구들도 축제 프로그램 중 가장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3. 활동 평가

아직 올해의 활동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작년의 활동에 비해 체계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적용함으로써 청소년이나 일손돕기 위주의 단순한 봉사활동 이외에도 청소년으로서 나눔과 배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더 즐겁게 해 드릴 수 있지?’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끊임없이 생각하며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봉사활동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하고 싶은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으로 발전되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생활 태도가 생겼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나의 도움이 필요한지 늘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학교나 집안에서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페인 활동은 우리의 활동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우리 동아리가 모이기만 하면 “이번 주에는 어떤 활동하니?”라며 우리 동아리의 봉사활동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만의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은사님 찾아뵙기’나 ‘부모님께 카네이션 만들어 달아 듣이기’와 같은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어서 무척 보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기부천사’ 캠페인이나 ‘기아제험’ 캠페인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멀게만 생각했던, 청소년인 우리가 감히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백혈병 소아암 환자를 돕고 멀리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잘라서 버리는 머리카락이 누구에게는 소중한 가발이 될 수 있고, 한 장으로는 별다른 쓰임새가 없었던 헌혈증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4. 향후 활동 계획

우리의 봉사활동 경험을 토대로 2학기에는 교내 다른 봉사 동아리와 연합하여 봉사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내 음악 동아리와 연합을 하여 요양원에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음악 활동이 부족한 우리 동아리와 봉사 활동이 미흡한 음악 동아리가 함께 연합을 한다면 더 멋진 공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내 독거노인들을 위한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과 김장해드리기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시기를 놓쳐서 할 수 없었던 봉사활동인데 군청과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아 실시할 계획입니다.

봉사활동 캠페인으로는 ‘아프리카 아시아의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을 주관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모여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미있는 봉사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경험을 살려 친구들에게 모자뜨기 지도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구들간의 우정을 되돌아 보는 ‘프리허그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친구들을 따돌리는 일이 종종 생기고, 우리 학교에서는 거의 볼 수 없지만 학교폭력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고 서로를 보듬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힘은 작고 미약하여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들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힘을 합친다면 어렵고 힘든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봉사활동을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가 구심점이 되어 진정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청소년 봉사활동의 꽃을 피워보고 싶습니다.

■ 봉사활동 실천내용

동아리	동아리명 : 두드림 (Do Dream) 예산여자고등학교		
동아리 명단	김지현(동아리대표, 2학년), 김대영(1학년), 홍운재(1학년), 박빛으로(1학년), 정유진(1학년), 최서연(1학년), 최인경(2학년), 허윤경(2학년), 정다운(2학년), 성혜지(2학년), 정지우(2학년)		
주요활동요약	1.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2. 지역 요양원에서의 정기적인 봉사활동 실천 3. 캠페인 활동을 통한 봉사활동의 참여와 확산		
활동일시	주요활동내역	활동인원	활동장소
10월 27일	2012세계식량의 날 기념행사 - 식량키트 만들기 봉사	4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12월 25일	예산군 노인요양원 봉사 - 성탄위문공연 및 트리만들기	11	예산군 노인요양원
03월 09일	예산 요양의 집 봉사 - 손발 마사지, 레크레이션	5	예산 요양의 집
03월 16일	제1차 청소년 자원봉사 주말 프로그램-넙킨공예 및 후원	3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03월 23일	임마누엘 요양원 봉사 - 음악공연, 손마사지, 종이접기	11	임마누엘 요양원
03월 30일	예산군 노인요양원 봉사 - 어르신 말벗, 식사도움	2	예산군 노인요양원
04월 13일	임마누엘 요양원 봉사 - 인형극공연, 종이접기, 손마사지	9	임마누엘 요양원
04월 20일	예산군 노인요양원 봉사 - 어르신 말벗, 식사도움	2	예산군 노인요양원
04월 27일	임마누엘 요양원 봉사 - 종이접기, 인형극공연, 말벗	11	임마누엘 요양원
04월 29일 ~05월03일	은사님 찾아뵙기 캠페인	16	예산여자고등학교
05월 08일	카네이션 만들기 캠페인	16 (88명참여)	예산여자고등학교
05월 11일	임마누엘 요양원 봉사 - 음악공연, 카네이션 달아 드리기	9	임마누엘 요양원
05월 25일	임마누엘 요양원 봉사 - 푸드테라피(요리놀이), 손마사지	9	임마누엘 요양원
06월 03일 ~06월 04일	우리 모두 기부천사 캠페인 - 모발, 안경, 헌혈증 기증	16 (157명참여)	예산여자고등학교
06월 08일	임마누엘 요양원 봉사 - 전통놀이(웃놀이, 실뜨기)	6	임마누엘 요양원
07월 13일	임마누엘 요양원 봉사 - 전통놀이(공주머니 놀이, 웃놀이)	7	임마누엘 요양원
07월 27일	임마누엘 요양원 봉사 - 푸드테라피(요리놀이), 손마사지	11	임마누엘 요양원
08월 10일	임마누엘 요양원 봉사 - 미술놀이, 손마사지	5	임마누엘 요양원
08월 23일	기아체험 캠페인 - 물고기, 아동노동, 식량부족체험 및 모금활동	11 (143명참여)	예산여자고등학교

3H를 실천하는 반포지효 봉사단

기민중학교

동아리 대표 : 유창우 지도교사 : 박태돈

하나의 밀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봉사단

1. 동기

초등학교와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눈으로 보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핵가족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보다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어 가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봉사활동을 많이 했지만 남을 위하는 진정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을 항상 하면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학년 말에 언론매체와 주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점점 소외되어 가고 있고,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양로원에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노인 분들 중에는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시거나 표현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물론 그들의 자녀들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자신들의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해 외로움을 많이 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주변에 드러내기를 꺼리면서 생활하는 장애인도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직접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중점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른품성5운동의 하나인 '공경'과 '봉사'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 여러 명을 모아서 봉사단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3학년이 된 지금도 동아리에서 봉사단장으로 중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2. 활동내용 및 실적

우리 구성원들은 활동이 있을 때마다 사전에 활동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활동 장소에 모여서 활동을 할 내용을 전달하고 활동에 임했습니다. 단체 봉사활동이었으므로 개인 또는 조를 나누어서 각 구역을 배정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썬뽕요양원에서는 실내외 청소를 하였고 할머니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할머니 어깨 주물러 드리기, 빨래하고 널기, 할머니 발 씻겨드리기, 화단 및 밭에 있는 잡초 제거하기, 분리 수거 등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소는 맡은 구역을 주로 쓸고 닦는 일이 주가 되었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청소를 해야 하는 일이나 손이 미치지 않는 창틀 청소를 할 때는 힘이 들기는 했지만 같은 단원들끼리 힘을 합쳐서 하니 즐겁고 보람있는 봉사활동이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 '이 정도는 운동이지'라고 생각하며 더 힘을 내기도 했고 제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청소가 끝나 있었고 우리 봉사단원들은 모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할머니들을 친조모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니 즐겁고 보람은 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할머니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배웠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많았습니다. 특히 할머니들의 발을 씻겨 드릴 때에는 매우 흡족해하시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자주 와서 할머니들께 효를 실천해야겠다고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장애시설인 작은자의집에서는 장애우 식사 도우미, 장애우와 함께 하기, 휠체어 밀어주기, 실내외 청소, 빨래 널기, 설거지, 양파 까기 및 파 다듬기 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처음에 갔을 때는 거부감을 느끼는 단원들도 많았지만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장애우와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마음의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욕을 시켜주면서 어색한 면도 있었지만 활동이 끝난 후엔 장애우들의 밝아진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제 자신이 대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활동을 마치고 단원들이 서로가 느낀 점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봉사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았다는 점은 공통된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3. 활동평가

우리 단원들 모두는 성심성의껏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봉사활동에 보람을 느끼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도 해냈다는 성취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썬뽕요양원, 작은자의집에서는 우리들의 봉사활동으로 인해 부족한 일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무엇보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시는 할머니, 장애우들도 우리들의 봉사활동에 대해 많은 칭찬을 해 주셨으며 매우 만족해하신다고 말을 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역사회에 커다란 도움을 준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작은 실천이나마 몸소 해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봉사활동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신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고, 그런 활동이 놀뢰신문, 충남일보 등에서 기사화되어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충남교육청에서 주최한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에서 동아리부문(특선)으로 교육감상을 수상하였고, 2005년에는 청소년자원봉사박람회에서 동아리부문(봉사상)으로 충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상장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단순하게 점수를 따기 위한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나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희 봉사단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 자신도 많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학생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4. 앞으로의 계획

무더운 한여름, 야외에서 따가운 햇볕을 받아 가면서도 단원들과 함께 웃으며 잡초를 뽑고 밭에서 풀을 뽑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비록 힘들고 몸은 피곤했지만, 그것은 분명 단원들과 모두 함께 하는 봉사활동이었으며,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힘은 들었어도 우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모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손길이 필요한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고 뿌듯한 마음과 같은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구성원들 모두 떠들고 즐기며 노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 나름대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꾸준히 서로 도와가며 '나눔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원들 모두 남을 돕는다는 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성숙해질 수 있었으며, 봉사 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봉사단 활동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도 열정을 보이고 있는 후배들이 3학년들의 뒤를 이어 계속 할머니들과 장애우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잘 이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봉사활동은 저희 봉사단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참가했지만, 앞으로는 어디서든 연락을 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어디서나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심부름꾼이 되도록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나눔과 봉사, 희생이라는 단어를 책에서나 읽고 남의 얘기로 생각했던 것이 우리 단원 활동으로 나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다가오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봉사활동 실천내용

동아리 동아리명 : 3H(Humanism + Heart + Hope)를 실천하는 반포지효 봉사단(기민중학교)

동아리 명단 유창우(동아리대표, 2학년), 강건(2학년), 이강현(2학년), 김동혁(2학년), 송재원(2학년), 박병주(2학년), 이정음(2학년), 오한준(3학년), 이동규(3학년), 이연복(3학년), 김규래(3학년), 이재원(3학년), 김명환(3학년), 배어진(3학년), 임창민(3학년), 김영국(3학년), 이영혁(3학년), 이훈행(3학년)

주요활동요약 - 썬뜰요양원에서 할머니 말 벗 해드리기 및 어깨 주물러 드리기, 실내외 대청소 등
- 장애시설인 작은자의집에서 장애우 말벗해주기 및 휠체어 밀어주기, 식사 도우미 활동 및 실내외 청소하기, 목욕봉사 등

활동일시	주요활동내역	활동인원	활동장소
9월 1일 09:30 ~ 11:30	-계단, 복도, 성당, 할머니 방 청소하기, 도서실 책장 정리 및 청소, 할머니 말벗 해드리기 및 안마 해드리기, 유리창 닦기, 옥상에서 빨래 널기 및 실외 청소	25	썬뜰요양원
9월 8일 14:00 ~ 17:00	-잡초 뽑기, 실내 청소, 유리창 닦기, 식당 안에서 장애우들의 저녁 식사 돕기	24	작은자의집
9월 15일 09:30 ~ 11:30	- 복도, 계단, 할머니 방 청소하기, 도서실 책장 정리 및 청소, 물휴지 분리 작업, 할머니 휠체어 밀어드리기, 옥상에서 빨래 널기	21	썬뜰요양원
10월 6일 09:30 ~ 11:30	-복도, 계단, 할머니 방 청소하기, 물휴지 분리 작업, 옥상에서 빨래 널기, 할머니 휠체어 닦아드리기 및 밀어드리기 등	24	썬뜰요양원
10월 21일 14:00 ~ 17:00	-실내외 대청소 및 잡초 제거 -할머니 안마해드리기 및 말벗 해드리기, 화장실 청소	13	작은자의집
11월 3일 09:30 ~ 11:30	- 빨래널기, 계단 및 복도 청소, 할머니 방 청소, 물티슈 분리수거하기, 외곽 청소	20	썬뜰요양원
11월 17일 09:00 ~ 12:00	-장애우 말벗 해 주기 -실내외 대청소 및 목욕시키기 -점심 식사 보조 및 설거지 하기	13	작은자의집
12월 1			

ConGo

북일고등학교

동아리 대표 : 이서호 지도교사 : 김주영

ConGo 자원봉사 동아리 실천사례

1. 동아리 설립 동기와 필요성

그룹홈은 50-60명 이상의 원생을 돌보는 복지시설과는 달리 지역사회 내 소규모 일반 주택에서 5-7명의 아동들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1-2명의 보육사와 함께 가정적 분위기에서 양육되는 형식으로 입양 등 가정보호와 고아원 등 시설보호의 중간 형태로 가정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지원 대안이다. 비록 위탁 가정이나 입양처럼 부모가 있지는 않지만 입양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룹홈 아동들은 시설아이라는 낙인감과 분리감에서 다소 벗어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룹홈들은 최소의 정부보조금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그룹홈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의거해 그룹홈 아동들이 시설아동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낙인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변에 그룹홈의 존재를 노출하지 않고 운영하다보니, 다른 복지 시설에 비해 봉사와 후원의 손길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ConGo 회원들은 전국에서 모인 북일고 국제과 1학년 학생들로, 2013년 1월 기숙사 입실 후 봉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천안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자 인터넷과 신문기사 검색, 충청남도 도청의 복지담당관에게 문의하는 등 여러 노력의 결과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그룹홈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의 '탈시설화'를 위한 새로운 이상적 대안인 그룹홈이 더욱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학생 주도적으로 ConGo라는 그룹홈 지원 자원봉사 동아리를 설립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ConGo는 그룹홈을 위한 봉사와 후원 등이 다각도로 활성화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2. 동아리 운영 목적

천안시 그룹홈 아동들의 학습 및 예체능지도를 위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통하여 소외 아동들의 학업능력, 특기.적성 및 정서함양에 기여한다.

그룹홈을 위한 다양한 후원, 홍보활동을 통하여 그룹홈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다. 시간 채우기 실적위주의 봉사에서 벗어난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져 어려운 환경에 처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자세를 배운다.
동아리 운영과 활동을 학생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 운영하여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업무추진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미래사회
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배운다.

3. 동아리활동 계획수립과 사전 준비

동아리 설립을 위한 사전활동

2013년 1월 북일고등학교 국제과 예비 신입생 이서호 학생은 기숙사 입실과 함께 천안
지역에서 봉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사전 조사활동을
시작하고 자원봉사 동아리 설립을 구상함.

인터넷과 신문기사 검색, 충청남도 도청의 복지담당관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룹홈에
대하여 알게 됨.

천안지역 그룹홈 현황조사와 연락처 정보를 수집한 후 천안지역 여러 그룹홈들에 개별적
으로 연락하고 방문하여,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3곳의 그룹홈에 봉사 및 후원활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자원봉사동아리 창설을 위한 운영계획을 세움..

그룹홈의 특징과 설립 목적, 가장 필요한 봉사와 후원에 대하여 조사함.

각 그룹홈 시설장님과 의논해 아동들의 학습 및 특기.적성 지도를 위한 재능 기부봉사와
경제적 후원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계획함.

각 아동들의 특징과 요구사항에 따른 수혜 아동별 맞춤형 봉사영역을 정함.

1:1 결연을 통한 경제적 후원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가 가능한 동아리회원
선정 계획 세움.

동아리회원 선정지침 및 준수사항 확립

그룹홈의 특징과 봉사취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홍보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봉사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선정한다.

봉사 수혜아동의 성별을 고려하여 동일 성별 봉사자로 결연이 가능하도록 선정한다.

봉사 수혜아동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봉사자를 선정한다. (자원봉사자 선정 예: 남
자 아동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경우 피아노 지도가 가능한 남학생 자원 봉사자 선정함.)

자원봉사자는 1:1 결연을 원칙으로 하며 결연된 아동에게 정기적인 후원을 실시한다.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방과후 2시간 이상 재능기부 방문봉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
이 한 경우 온라인 화상이나 전화통화를 통한 봉사를 실시하여 결연아동과 정기적으로
꾸준히 만나 믿음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연락 없이 봉사를 가지 않아 결연아동에게 상처를 주는 일, 또는 자원봉사자 준수 원칙
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2회 이상 연속해 반복될 경우 동아리 회원에서 강제 탈퇴된다.

봉사 수혜아동 사전 조사

봉사수혜 그룹홈 아동 총원: 15명 (남자아동 7명, 여자아동 8명, 2013. 7. 10. 현재)

아동별 학습욕구 조사

피아노 연주 지도 희망 남자 아동 1명
 드럼 연주 지도 희망 남자 아동 1명
 기타 연주 지도 희망 남자 아동 1명
 영어학습지도 및 음악 지도 희망 남자 아동 3명
 영어, 제과제빵 학습지도 및 음악 지도 희망 남자 아동 1명
 영어학습지도 및 음악이나 미술지도 희망 여자 아동 3명
 미술, 음악 학습지도 희망 지적장애 여자 아동 5명
 동아리회원 모집 및 자원봉사자 교육
 아동별 학습욕구를 자원 봉사할 동아리회원 9명 모집 완료(2013년 2월)
 지적장애 여자아동 꿈찬그룹홈의 봉사지원 요청으로 해당 아동들을 위한 봉사가 가능한 동아리회원 모집 공고 후 3명의 동아리회원 모집 완료(2013년 7월)
 자원봉사자 선정과 봉사자 교육 실시
 자원봉사자 선정 지침에 의거하여 동아리회원 선정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교육 실시(연2회 이상, 새 회원 합류 시 수시)
 그룹홈의 역사와 설립목적 현재 상황 등 그룹홈 전반적인 내용 교육(연2회)
 ConGo카페 등 온라인 활용활동을 위한 교육(연1회 이상, 새 회원 합류 시 수시)
 각 그룹홈 시설장애 의한 면대면 교육(연1회 이상, 필요시 수시)
 수혜 아동별 성장특징, 학습욕구, 지도방법 교육 (연1회 이상, 학부모 중 교육전문가 지원)

자원봉사자와 봉사 수혜아동과의 봉사 전 만남의 시간 추진
 실시일: 2013. 2. 15.(행복한, 참사랑, 성환그룹홈), 2013. 8. 25.(꿈찬그룹홈)
 봉사 전 1:1 결연을 맺은 자원봉사자와 그룹홈 아동과의 만남의 시간 가짐.
 자원봉사자와 결연 아동들 각각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친숙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간을 가짐.
 서로 취미와 특기 등 공통점 찾기 활동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서로 대화함.

동아리 인터넷 사이트 제작
 그룹홈 관련 교육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ConGo 웹 사이트 제작
 학습자료실, 봉사일지, 봉사아이디어제안, 회의자료실, 봉사앨범, 온라인화상 방법 소개, 홍보.모금위한 자료실 등에 다양한 자료 수시 업데이트
 인터넷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grouphomesvolunteer> (2013. 1. 29. 오픈:
 그룹홈 아동들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카페 앨범은 정회원 이상 공개되므로 전체
 적인 활동사진 검색을 원할 시 카페지기 학생대표에게 연락 요함)
 학습자료 준비
 아동들의 능력, 특성, 학습영역에 적합한 학습자료 조사 후 구입 및 제작 학습자료 중 영
 어학습지는 학생들이 자체 개발함(아동들 연령을 고려해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포함해 제작)
 영어나 음악자료 중 일부는 음성자료로 제작하여 카페에 탑재(예: 자체 제작된 영어동화
 학습지의 영어문장은 학생들이 직접 녹음한 자료 탑재함)
 밴드 연주를 위한 악기 대여 및 구입, 후원 준비

동아리 온라인 카페에 자료 수시로 업데이트 추진

봉사 장소 섭외 완료

행복한, 참사랑, 꿈찬 룩홈은 해당 그룹홈 거주지에서 실시

성환그룹홈 밴드연주지도: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 악기 및 연주장소 무료제공

위험요소 점검

동아리 학생들이 봉사 장소로 이동하는 환경 안전성 점검

이동시 안전한 운송수단 이용 : 학부모와 그룹홈 시설장 운송차량 제공

4. 동아리 봉사활동 세부 내용

그룹홈 아동들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도 봉사활동

활동일: 2013. 2. 15. (19:00~20:00) ~ 현재까지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영어동화 통한 영어능력 향상 학습지도(단, 초등 저학년 한글 익히기 지도 병행)

영어 학습지 및 음성 자료를 직접 제작 지원

수학, 과학, 사회 등 학교 교과 학습 지도

제과제빵 이론 시험 대비 학습 지도

도미도 게임을 활용한 영어, 한글, 세계사 교육 실시

아동과 봉사자와의 1:1결연을 통한 밀착지도로 유대관계 극대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 지도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학습자료 제공 및 메신저 이용 온라인학습 제공

그룹홈 아동들 특기.적성 및 정서함양을 위한 예능지도 봉사활동

활동일 : 2013. 2. 15. (20:00~21:00) ~ 현재까지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피아노, 드럼, 기타, 리코더, 멜로디언, 핸드벨, 팝송 등 아동들의 욕구, 특기, 적성을 고려한 악기연주 및 노래 지도

초등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미술 표현활동 지도

음악 연주 및 노래, 미술지도 위한 악기, 교재 및 수업 자료 지원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음악 자료 제공

아동별 맞춤형 재능기부 봉사활동 세부내용

1) 행복한 그룹홈 : 남자 아동 4명을 위한 봉사활동

남학생 봉사자 1:1 결연 (초등1학년, 초등3학년, 초등5학년, 중1학년 아동)

초등1, 3학년: 한글 익히기 지도 및 영어 동화책 읽어주기 학습 지도 활동

초등5학년, 중1학년: 영어동화책 시나리오학습지를 이용한 영어 학습 지도(자체 제작한 학습지 사용), 학교시험기간 내신대비 학습지도(영어, 수학 등), 제과제빵, 요리 자격 필기시험 준비 지도

도미노 게임을 활용한 학습 활동(한글, 영어, 연산, 세계사)

음악지도 : 리코더, 멜로디언 연주 지도(10월부터 핸드벨 연주 지도 계획 중)

미술지도 : 클레이 아트 작품 만들기 활동

학습 및 생활 관련 상담 및 멘토링 활동

2) 참사랑 그룹홈 : 여자 아동 3명을 위한 봉사활동

여학생 봉사자 1:1 결연 (초등2학년, 초등5학년, 중1학년 아동)

초등2학년: 영어 파닉스 및 동화책 활용 영어 학습지도, 피아노 연주지도

초등5학년, 중1학년: 영어동화책 시나리오 학습지를 활용한 영어 학습지도 (자체 제작 학습지 사용), 학교시험기간 내신대비 학습지도(영어, 수학 등)

노래지도: 팝송 배우기 통한 음악-영어 통합 지도

미술지도: 클레이 아트 작품 만들기 활동

도미노 게임 활용한 학습 활동(한글, 영어, 연산, 세계사)

학습 및 생활 관련 상담 및 멘토링 활동

3) 성환 그룹홈 : 남자 아동 3명을 위한 봉사활동

남학생 봉사자 1:1 결연 (초등3학년, 초등5학년, 중1학년 아동)

아동의 개인별 재능과 학습욕구에 따라 밴드활동과 연계한 악기 연주지도 활동

초등3학년: 드럼 연주지도

초등5학년: 기타 연주지도

중1학년: 피아노 연주지도

밴드연주와 함께 부를 수 있는 팝송 배우기를 통한 음악-영어 통합 지도

도미노 게임 활용한 학습 활동(한글, 영어, 연산, 세계사)

학습 및 생활 관련 상담 및 멘토링 활동

4) 꿈찬그룹홈 : 지적 장애 여자 아동 5명을 위한 봉사활동

장애아동 지도에 경험이 있는 여학생 봉사자 3명 선발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한 미술, 음악, 놀이 활동 봉사 계획

장애아동들 봉사를 위한 사전교육 실시 후 9월부터 봉사 시작 (자원봉사자 들은 장애아동 지도 전문가에 의한 사전 교육 연1회 이상 이수)

어린이날 행사활동

실시일: 2014. 5. 3.

동생들에게 편지쓰기, 동생들에게 선물 전달

어린이날 파티 : 케이크 및 과일 파티

칼라점토 공예 콘테스트 : 우수작품 선정 후 시상

ConGo 인터넷 카페 및 온라인 활용 활동

실시일: 연중 수시 및 토, 일요일, 공휴일

최신 자료, 학습자료 제작 및 업데이트 등 카페 관리

페이스북을 통한 회의 및 회의 자료 공유 활동

온라인 화상(네이트 온 메신저 이용) 및 유선전화를 활용한 수업 및 상담 제공

온라인 화상 상담 및 수업 제공

온라인 화상 또는 전화를 이용해 숙제 및 학습상황 점검

5. 그룹홈 홍보 및 지원을 위한 활동

교내활동(2013. 3월 이후 수시)

그룹홈 소개, 그룹홈 위한 기부의 필요성 안내 : 포스터 및 블러셔 제작하여 배부하며 홍보활동

그룹홈 아동과의 결연 추진 홍보활동

잔돈 모으기 캠페인('동전천사' 교내 캠페인: 2013. 4. 9.이후 계속)

교내 체육대회 시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홍보활동(2013. 5. 24.)

6. 교외활동

이웃, 가족, 친지들에게 그룹홈 홍보 및 동전천사 모금활동(2013. 5. 17. ~ 7. 12.)

교육기관, 지역단체 및 기업에 후원요청 편지쓰기(2013. 5. 18.~5. 20.)

인터넷 카페를 통한 홍보활동(2013. 3월 이후 수시)

교외 모금활동 금액 중 500,000원 꿈찬그룹홈 5명 아동들을 위한 자립금으로 기부
(2013. 7. 15.)

동아리대표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의회(2013. 8. 2.~8. 3.)' 보건복지부 부위원장에 선출
되어 그룹홈 홍보, 지원, 문제점 개선과 아동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대외활동을 실천 중
그룹홈 아동들이 겪었던 아동폭력, 방임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위한 활동 추진: 동아리
대표는 전국 청소년의원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발표 실시(2013. 8. 2.), 전국 청소년의원
온라인 회의를 통한 홍보활동 추진 (2013. 9. 14.)

그룹홈 지원 봉사활동 동아리 설립을 전국 고등학교로 확대하기 위한 홍보활동 추진 계획 중 추
석 오색송편 보내기 행사: 천안 4개의 그룹홈에 송편 보내기(2013. 09. 17.~9. 18. 배송예정)

'The ConGo TIMES' 동아리 신문 창간

ConGo 활동소식 제공과 교내외 홍보자료로 활용

학기별 연 2회 영문, 한글 버전 신문 동시 발간

창간호 9월 2일에 발간함(복일고등학교 국제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됨:

http://www.bugilacademy.org/jsp/news/magazine2_view.jsp)

그룹홈 아동들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추진 계획

성환그룹홈 아동들의 밴드연주회 11월 실시 예정 ((사)미래를 여는 아이들 공연 참가 예정)

크리스마스 작은음악회: 그룹홈아동들이 배운 연주로 교내 외 발표회 의논 중

그룹홈 후원 및 봉사 확대 실시위한 활동

한국 그룹홈 협의회 사이트와 행복한 그룹홈 시설장님을 통해 한국의 그룹홈 현황 및 현
재 당면한 문제점 파악

그룹홈 봉사 및 지원할 지역 확대와 그룹홈이 처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활동 추진
(동아리 대표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에서 활동 중)

World Share 세계 그룹홈 협의회에 후원 및 봉사 확대 실시를 위한 자문 메일 쓰고 답변 받음

7. 동아리활동 효과와 대상자 만족도

봉사활동에 대한 효과

천안시 그룹홈 아동들의 학업능력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

그룹홈의 경제적 지원 확대에 기여함.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봉사 사각지대의 그룹홈 지원 필요성 홍보에 기여함

동아리 구성원들은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배우고, 진정성 있는 봉사체험을 통해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

동아리운영과 여러 행사를 학생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을 통하여 동아리 구성원들의 자기 주도적 업무추진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함양됨.

동아리 구성원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 등 아동학대로 인해 그룹홈에 오게 된 아동들의 사연들을 알게 되면서, 소외계층 아동들이 처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함.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함.(동아리 대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보건복지 부위원장으로 소외아동 복지개선 활동 추진)

동아리 구성원들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과 성과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배우게 됨.

동아리 구성원들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그룹홈 설립과 지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미래사회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배우게 됨.

나. 대상자 만족도

‘만족도 조사지’와 ‘대상자 인터뷰’를 통한 평가 실시

실시일 : 2013년 5월 31일, 7월 12일(금)

조사 대상 : 봉사 수혜아동 10명, 각 그룹홈 시설장 및 간사 4명

만족도 조사 결과 1 (수혜아동 10명, 만족도 %)

조사내용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습 지도 활동	90%	10%
예체능 지도 활동	70%	20%	10%	.	.	.
멘토링 상담 활동	70%	30%
계속적인 봉사 요청	100%
그 외 의견	우수한 점	1. 친형, 누나가 생긴 것 같아 좋다. 2. 공부 방법을 잘 가르쳐 준다 3.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서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 4. 어린이날 파티와 영화관람, 볼링장체험이 너무 즐거웠다. 5. 화상 온라인 수업이 재미있다 6. 약속한 시간에 꼭 오는 형, 누나들이 좋다				
	개선점	1. 더 많은 야외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 2. 숙제는 작게 시험은 안치면 좋겠다.				

5) 만족도 조사 결과 2 (시설장3명, 간사3명, 만족도%)

조사내용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습 지도		83.3%	16.6%	.	.	.
예체능 지도		83.3%	16.6%	.	.	.
멘토링 상담 활동		66.6%	33.3%	.	.	.
계속적인 봉사 요청		100%
경제적 지원		100%
그 외 의견	우수한 점	1. 1:1 결연 후원 및 봉사, 수혜아동 중심의 봉사제공 2. 진정성과 책임감 있는 봉사 활동, 그룹홈 아동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보임 3. 그룹홈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봉사활동이 돋보임 4. 온라인 화상 수업, 온라인 카페 이용한 학습자료 제공이 창의적임 5. 그룹홈 홍보와 경제적 후원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추진 노력이 돋보임				
	개선점	6. 개선점 없음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봉사를 추진하는 모습에 매우 놀라웠고 감사함)				

8. 동아리 활동 평가

전체적인 평가

그룹홈 아동 맞춤형 학습.예능지도 봉사 및 멘토링 상담 활동 평가

현재까지 ConGo동아리 봉사활동에 대한 ‘봉사 수혜 대상자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약 90% 이상의 수혜아동들과 그룹홈 시설장, 간사님들이 학습.예능지도, 멘토링 상담 등 모든 항목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수혜 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1:1 결연 맞춤형 봉사 활동으로 운영되어 그룹홈 아동들과 봉사자간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어 봉사의 긍정적 영향이 극대화 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철저한 사전 조사활동을 통하여 봉사의 손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발굴해 봉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 봉사 실시 전 세부적인 봉사계획과 지침, 봉사활동 준수사항, 인터넷 사이트 제작, 온라인 학습자료 자체 제작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시작된 봉사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봉사 시간과 실적만을 추구하는 현 청소년 봉사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진정성과 책임감을 겸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온라인 화상 봉사, 인터넷 카페에 학습자료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창의적인 봉사방법 시도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동아리 활동들이 학생 주도적으로 준비되고 운영되었으므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가 높아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 덕택에 봉사 수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된다. 또한 고등학생 자원봉사를 꺼리던 다른 그룹홈에서도 현재 봉사 요청이 들어오는 현상이 이를 증명해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동들에게 다양한 야외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원봉사자인 ConGo의 회원들 모두 고등학생이고, 천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주말이나 휴일에는 기숙사를 나와 각자의 집으로 가야하며 또한, 운영비용이나 안전 문제 등으로 어린 아동들과의 다양한 야외활동을 자주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방학 전 실시한 ‘문화.예술.스포츠체험 야외활동’을 통하여 결연 아동들과 동아리 회원들이 서로를 더욱 많이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야외 체험 활동을 기획하여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교내외 홍보 캠페인 및 모금활동 평가

그룹홈이 처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룹홈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홍보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 관련 단체조차도 그룹홈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곳들이 있어 놀라웠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그룹홈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룹홈 아동들에게 긍정적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그룹홈 존재 자체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리 동아리 ConGo는 이런 그룹홈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지키면서 새로운 복지 대안인 그룹홈의 필요성을 알려, 다각적인 형태의 자원봉사와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ConGo의 인터넷 사이트에 제공되는 사진과 아동들의 이름들도 최대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했던 점이 그룹홈 시설장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교내외 홍보 활동을 위한 홍보자료는 한글과 영문으로 제작하여 국제과 외국인 교사들에게도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현재도 진행 중인 ‘동전천사’ 모금활동은 또래 친구들이나 교사들, 친지, 이웃사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었고 참여도도 비교적 높았다. 또한 ‘후원요청 편지쓰기’ 행사를 실시하여 40여개의 이웃과 기관들에게 그룹홈을 알리고 후원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실시하여 격려와 후원을 약속하는 여러 통의 전화 연락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후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존의 홍보 활동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홍보 및 모금활동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법들을 더 연구해 그룹홈 봉사활동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되새길 수 있었다.

9. 활동소감 및 발전방향

동아리 회원들은 그룹홈 지원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불우한 환경 속에서 겪은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치유하며 긍정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룹홈 아동들을 지켜보면서 더 많은 그룹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그룹홈에 오게 된 동생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통해, 생활고뿐 아니라 어른들의 지속적 폭행에 시달리는 아동들과 어른들에게 이용당하고 무책임하게 버려진 아동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 감춰진 아동학대와 방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동아리 회원들은 그룹홈 동생들이 과거의 아픈 상처에서 벗어나 밝고 명랑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진정성 있는 꾸준한 봉사가 과거의 상처를 잊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가는 동생들에게 작으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처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자세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앞으로 우리 ConGo 회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처럼 지속적이고 꾸준한 봉사 활동을 실천할 것이며, 그룹홈처럼 봉사의 혜택에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ConGo(Con스페인어로 '함께' + Go영어로 '가다'의 합성어)하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에게도 그룹홈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룹홈 지원 활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후원금 모금에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여 더욱 많은 후원과 모금 활동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천의 영역을 넓히는 데도 힘쓸 것이다.

지속적 운영방법(앞으로의 계획)

현재 봉사 중인 천안 그룹홈들의 아동지도 재능기부봉사를 매년 현재와 같이 꾸준히 실천한다.

그룹홈 아동들에게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스포츠 체험활동'을 계획해 추진한다.

현재 봉사 중인 천안지역의 그룹홈 외에 도움이 필요한 그룹홈을 발굴하고 봉사활동을 확대한다.

'동전천사' 모금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모금액은 도움이 필요한 그룹홈이나 그룹홈 관련 사업을 조사하여 기부한다.

전국에 있는 동아리, 학교, 각종 단체 등으로 그룹홈 봉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그룹홈을 돕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교내 축제 그룹홈 바자회 모금활동, 음악공연 캠페인 활동, 동전천사 모금활동 등 추진 계획)

아동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 포럼 등을 추진하여 문제인식과 해결법을 모색한다.

제 3 세계 국가들의 그룹홈 설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한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그룹홈 지원 및 봉사 홍보 활동을 확대 추진한다.

■ 봉사활동 실천내용

동아리	동아리명 : ConGo (북일고등학교)		
동아리 명단	이서호(동아리대표, 1학년), 정동섭(1학년), 이소정(1학년), 박민우(1학년), 김효식(1학년), 이종호(1학년), 신도연(1학년), 양서연(1학년), 조옥연(1학년), 김정훈(1학년)		
주요활동요약	1. 그룹홈 아동들을 위한 1:1 맞춤형 학습 및 예체능 지도 재능기부 봉사 2. 그룹홈 아동들을 위한 어린이날 행사, 문화, 스포츠 야외 행사 3. ConGo 인터넷 카페 및 온라인 활동 - ConGo 온라인카페(http://cafe.daum.net/grouphomesvolunteer), Facebook활용 활동 - 메신저(네이트온)프로그램 활용한 온라인 수업 4. 그룹홈 홍보 및 후원을 위한 다양한 교내외 활동		
활동 일시	주요활동내역	활동인원	활동장소
1월 15일 ~ 1월 18일	사전준비활동: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봉사단체 조사, 그룹홈 시설장님들과 연락해 봉사취지 소개, 봉사동아리 설립 사전 준비	3	교내
1월 19일 ~ 1월 21일	사전준비활동: 동아리 운영 계획 및 동아리 회원 선정 지침 마련, 1:1 결연 및 봉사수혜 아동별 욕구 조사	3	교내
1월 22일 ~ 1월 27일	사전준비활동: 교내게시판, 페이스북, 동아리 온라인 카페, 면대면 홍보를 통한 동아리 회원 모집	3	교내
1월 22일 ~ 1월 29일	사전준비활동: 인터넷 카페 제작, 학습자료 준비 제작, 화상 공부방 활용 방법 확립	3	교내
2월 8일 19:00 ~ 21:00	사전준비활동: 선정된 회원 자원봉사 교육	3	교내
2월 15일 19:00 ~ 21:00	사전준비활동: 선정된 동아리 회원과 봉사 수혜 아동 봉사 전 만남의 시간 가짐, 봉사활동 장소 섭외	3	교내
2월 25일 이후 계속	사전준비활동: 봉사 시 위험 요소 점검 및 대책 마련	3	교내
3월 7일 19:00 ~ 21:00	그룹홈 아동들 공부 및 악기 연주, 미술 작품 제작 지도, 멘토링 상담활동	8	행복한그룹홈, 참사랑그룹홈, 성환그룹홈
3월 8일 19:00 ~ 21:00	그룹홈 아동들 공부 및 악기 연주, 미술 작품 제작 지도, 멘토링 상담활동	8	행복한그룹홈, 참사랑그룹홈, 성환그룹홈
3월 9일 18:00 ~ 21:00	그룹홈 아동들 공부 및 악기 연주, 미술 작품 제작 지도, 멘토링 상담활동	5	행복한그룹홈, 참사랑그룹홈, 성환그룹홈
3월 10일 18:00 ~ 21:00	그룹홈 아동들 지도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ConGo 온라인 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8	교내 및 자택
3월 15일 19:00 ~ 21:00	그룹홈 아동들 공부 및 악기 연주, 미술 작품 제작 지도, 멘토링 상담활동	8	행복한그룹홈, 참사랑그룹홈, 성환그룹홈
3월 16일 18:00 ~ 21:00	그룹홈 아동들 지도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ConGo 온라인자료관리 및 업데이트	8	교내 및 자택
3월 20일	동아리 활동지원금 마련을 위한 공모전 참가	3	교내

활동일시	주요활동내역	활동인원	활동장소
3월 22일 19:00 ~ 21:00	그룹홈 아동들 공부 및 악기 연주, 미술 작품 제작 지도, 멘토링 상담활동	7	행복한그룹홈, 참사랑그룹홈, 성환그룹홈
3월 23일 18:00 ~ 21:00	그룹홈 아동들 지도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ConGo 온라인 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7	교내 및 자택
3월 29일 19:00 ~ 21:00	그룹홈 아동들 공부 및 악기 연주, 미술 작품 제작 지도, 멘토링 상담활동	10	행복한그룹홈, 참사랑그룹홈, 성환그룹홈
3월 30일 19:00 ~ 21:00	그룹홈 아동들 지도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ConGo 온라인 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10	교내 및 자택
4월 5일 14:00 ~ 16:00	온라인 메신저 통한 그룹홈 아동들 공부지도 및 학습자료 제작, 멘토링상담	7	교내 및 자택
4월 9일 18:00 ~ 20:00	그룹홈 후원을 위한 교내 홍보 및 동전천사 모금 활동	10	교내
4월 12일 19:00 ~ 21:00	그룹홈 아동들 공부 및 악기 연주, 미술 작품 제작 지도, 멘토링 상담활동	10	행복한그룹홈, 참사랑그룹홈, 성환그룹홈
4월 13일 19:00 ~ 21:00	그룹홈 아동들 지도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ConGo 온라인 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10	교내 및 자택
4월 19일 19:00 ~ 21:00	그룹홈 아동들 공부 및 악기 연주, 미술 작품 제작 지도, 멘토링 상담활동	10	행복한그룹홈, 참사랑그룹홈, 성환그룹홈
4월 20일 18:00 ~ 21:00	그룹홈 아동들 지도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ConGo 온라인 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10	교내 및 자택
4월 26일 19:00 ~ 21:00	그룹홈 아동들 공부 및 악기 연주, 미술 작품 제작 지도, 멘토링 상담활동	9	행복한그룹홈, 참사랑그룹홈, 성환그룹홈
4월 27일 19:00 ~ 21:00	그룹홈 아동들 지도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ConGo 온라인 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9	교내 및 자택
5월 3일 19:00 ~ 21:00	그룹홈 아동들 공부 및 악기 연주, 미술 작품 제작 지도, 멘토링 상담활동	10	행복한그룹홈, 참사랑그룹홈, 성환그룹홈
5월 4일 19:00 ~ 21:00	그룹홈 아동들 지도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ConGo 온라인 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10	교내 및 자택
5월 10일 19:00 ~ 21:00	그룹홈 아동들 공부 및 악기 연주, 미술 작품 제작 지도, 멘토링 상담활동	10	행복한그룹홈, 참사랑그룹홈, 성환그룹홈
5월 11일 19:00 ~ 21:00	그룹홈 아동들 지도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ConGo 온라인 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10	교내 및 자택
5월 17일 15:00 ~ 18:00	그룹홈 지원을 위한 동전천사 교외 모금 및 캠페인 활동	10	교내 및 자택
5월 19일 19:00 ~ 21:00	그룹홈 아동들 지도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ConGo 온라인 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10	교내 및 자택
5월 20일 19:00 ~ 21:00	그룹홈 지원을 위한 후원편지쓰기 캠페인 활동	2	교내 및 자택

활동일시	주요활동내역	활동인원	활동장소
5월 24일 19:00~21:00	그룹홈 아동들 공부 및 악기 연주, 미술 작품 제작 지도, 멘토링 상담활동	10	교내 및 자택
5월 25일 19:00~21:00	그룹홈 아동들 지도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ConGo 온라인 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10	교내 및 자택
5월 31일 19:00~21:00	그룹홈 지원을 위한 동전천사 교외 모금 및 캠페인 활동	6	교내 및 자택
6월 1일 14:00~16:00	온라인 메신저 통한 그룹홈 아동들 공부지도 및 학습자료 제작, 멘토링상담	1	교내 및 자택
6월 1일 19:00~21:00	그룹홈 아동들 지도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ConGo 온라인 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6	교내 및 자택
6월 7일 14:00~16:00	온라인 메신저 통한 그룹홈 아동들 공부지도 및 학습자료 제작, 멘토링상담	5	교내 및 자택
6월 8일 19:00~21:00	그룹홈 아동들 지도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ConGo 온라인 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5	교내 및 자택
6월 14일 19:00~21:00	그룹홈 아동들 공부 및 악기 연주, 미술 작품 제작 지도, 멘토링 상담활동	10	행복한그룹홈, 참사랑그룹홈, 성환그룹홈
6월 15일 18:00~21:00	그룹홈 아동들 지도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ConGo 온라인 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10	교내 및 자택
6월 28일 19:00~21:00	그룹홈 아동들 공부 및 악기 연주, 미술 작품 제작 지도, 멘토링 상담활동	9	행복한그룹홈, 참사랑그룹홈, 성환그룹홈
6월 29일 19:00~21:00	그룹홈 아동들 지도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ConGo 온라인 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9	교내 및 자택
7월 5일 19:00~21:00	그룹홈 아동들 공부 및 악기 연주, 미술 작품 제작 지도, 멘토링 상담활동	10	천안흥익볼링장
7월 6일 19:00~21:00	그룹홈 아동들 지도를 위한 학습자료 제작 및 ConGo 온라인 자료 관리 및 업데이트	10	교내 및 자택
7월 12일 16:00~18:00	그룹홈 동생들과 스포츠활동 지도봉사	10	행복한그룹홈, 참사랑그룹홈, 성환그룹홈
7월 13일 14:00~18:00	그룹홈 동생들과 문화예술 체험 및 꿈찬그룹홈에 모금액 기부활동	10	아우리스시네마, 신세계백화점, 꿈찬그룹홈
7월 28일 15:00~18:00	온라인 메신저 통한 그룹홈 아동들 공부지도 및 학습자료 제작, 멘토링상담	1	교내 및 자택
8월 4일 19:00~21:00	온라인 메신저 통한 그룹홈 아동들 공부지도 및 학습자료 제작, 멘토링상담	2	교내 및 자택
8월 11일 19:00~21:00	온라인 메신저 통한 그룹홈 아동들 공부지도 및 학습자료 제작, 멘토링상담	1	교내 및 자택
8월 30일 19:00~21:00	그룹홈 지원을 위한 동전천사 교외 모금 및 캠페인 활동	7	교내 및 자택

해피투게더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동아리 대표 : 강민정 지도교사 : 노윤분

행복 전도사 대천여상 해피투게더

I. 동기

1. 봉사활동을 하게 된 동기

대천여상의 해피투게더는 2007년에 설립된 봉사 동아리이다. 설립 목적은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 실천으로 이웃과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고, 지역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그 동안 해피투게더는 활발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인 충남정심원의 원생들을 위한 위문 활동(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진행)과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고, 보령시내 복지시설과 연계된 독거 어르신들의 말벗, 마사지 및 안마, 청소 및 빨래 등 일손 돕기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아동보육시설인 대천애육원의 원생들을 위한 '어린이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였다.

이처럼 해피투게더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행복 나누기 봉사활동을 통해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해피투게더는 우수 봉사 동아리로 선정되어 여러 번의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2년 2학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해피투게더의 활동이 잠시 중단되었다. 대천여상의 대표적인 봉사 동아리인 해피투게더의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의해 2013년 해피투게더의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 활동 계획(해피투게더 봉사단 운영계획)

가. 목적

- 1)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기른다.
- 2) 나눔과 배려의 봉사활동 실천으로 이웃과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른다.
- 3) 지역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 운영 방침

- 1) 면밀하게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 과정에서의 문제를 최소화 한다.

- 2)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계획과 실천을 존중한다.
- 3) 활동의 절차에 따른 사전 지도와 사후 평가에 역점을 두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

다. 활동 내용

1) 독거노인 돕기

가) 목적 : 행복 나누기를 통한 경로효친의 실현

나) 장소 : 독거노인 가정

다) 활동내용 : 말벗 해 드리기. 안마 해드리기 등과 같은 정서 지원 및 청소, 설거지, 빨래 등과 같은 일손 돕기

라) 기대효과 : 노인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노인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돕기

2) 장애인 돕기

가) 목적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행복 나누기의 실현

나) 장소 : 충남 정심원

다) 활동내용 :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과 생활반 청소 등 일손 돕기를 실천한다.

라)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인간 존중 의식이 고취될 것이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건강함을 비롯한 행복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 연간 세부 추진 계획

일시	활동 내용	장소	인원
4월	2회의 독거노인 돕기	독거노인 가정	14명
5월	2회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돕기	독거노인 가정, 정심원	14명
6월	2회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돕기	독거노인 가정, 정심원	14명
7월	1회의 독거노인 돕기	독거노인 가정	14명
8월	1회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돕기	독거노인 가정, 정심원	14명
9월	1회의 독거노인 2회의 장애인 돕기	독거노인 가정, 정심원	14명
10월	2회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돕기	독거노인 가정, 정심원	14명
11월	2회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돕기	독거노인 가정, 정심원	14명
12월	3회의 독거노인 돕기	독거노인 가정	14명

II. 활동내용 및 실적

1. 독거노인 돕기

해피투게더 봉사활동을 하게 될 독거노인 가정을 명천사회종합복지원을 통해 소개 받았다. 해피투게더 단원 14명이 이웃일촌 맺기로 4가정과 새로운 가족이 탄생된 것이다. 네 가정에 3-4명의 단원들이 한 조가 되어 한 달에 2회 금요일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봉사활동은 주로 청소, 설거지 등 집안 일손 돕기와 안마 및 말벗 해 드리기, 옷놀이, 산책 등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녀가 되어 외로움을 덜어 들릴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2. 충남 정심원 봉사활동

장애 복지 시설인 충남 정심원을 매월 1-2회 방문하여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충남정심원이 리모델링 등 공사 진행관계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8월 말 한 번의 봉사활동밖에 할 수 없었다. 9월부터는 한 달에 2번씩 방문하기로 약속해 놓은 상태이다.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같이 계획하고 준비물을 구입하였다. 함께 한 활동으로는 풍선 아트, 네일 아트, 색종이 접기, 색칠 공부, 그림 그리기 등이었다.

3. 캠페인 활동

서부장애종합복지관의 요청으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1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사전 교육을 복지관에 받았다. 그리고 4-5개의 조로 나뉘어 보령시내, 대형마트 등으로 이동하였다. 그 곳에서 학생들은 복지관에서 준비한 장애 예방 유인물과 기념품 등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장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쳤다.

명천사회종합복지관의 협조요청으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천해수욕장에서 머드축제기간 동안 미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 조는 우천관계로 캠페인을 할 수 없었다. 학생들은 시민들에게 ‘미아예방’ 문구가 쓰여진 풍선을 나누어 주고, 주소, 전화번호, 이름을 쓸 수 있는 명찰을 나누어 주었으며, 서명을 받았다.

III. 활동평가

1. 봉사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김○○ 할머니는 암 투병중이다. 그래서 갈 때마다 조금씩 체중이 줄어 들고 있어 안타가운 상황이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 시신이 부패되어 발견될까 봐’ 현관문을 늘 열어두고 주무신다고 하시는 분이다. 할머니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방문하면 ‘공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왔냐?’고 하시면서 쉬고 가라고 하시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다. 학생들이 청소를 하고, 안마해 드리면 고마움과 미안

함으로 ‘힘드니까 그만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데도 매번 요구르트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일반적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은 모른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한 번에 깬 분이시다. 할머니를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결한, 배려, 인정 등을 배우게 되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작은 사랑의 마음을 나누러 갔다가 도리어 할머니께 따뜻한 정을 듬뿍 받고 돌아오기까지 한다.

권○○ 할아버지는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신다. 그러나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할아버지는 의협심이 매우 강하신 분이시다. 할아버지는 산책을 나가시면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와 담배 궤초를 모두 줍고 돌아오신다. 그리고 대낮부터 술을 드시고 계신 이웃 주민들에게 훈계를 하신다. 그분들이 싫어하시고 화를 내도, 할아버지는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당당히 하신다. ‘대낮부터 술 마시지 마라. 쓰레기 버리지 마라’ 등등. 할아버지와 함께 활동하면서 학생들은 할아버지의 이웃 및 지역사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고 배우게 되었다.

2. 축제 같았던 충남 정심원 봉사활동

충남 정심원 봉사활동은 해피투게더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었다. 그 날 학생들은 17명 정도의 원생들을 상대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풍선 아트, 네일 아트, 색종이 접기, 그림 그리기 등을 실시하였다. 원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직접 하기도 하지만,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한다. 그 때 우리 학생들은 친절하고 성실하게 그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들어주었다.

풍선으로 칼, 강아지, 왕관, 꽃 등을 만들어 주었다. 원생들은 왕관은 머리에 쓰고, 꽃과 강아지는 서로 선물하기도 하고, 칼로 장난을 하면서 너무 즐거워했다. 색종이로는 배, 학, 하트 등을 접어 자랑하기에 바빴다. 한 원생이 스케치북에 초상화를 그려주어 ‘잘 그렸다’고 칭찬했더니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였다. 그 모습은 본 다른 원생들도 우리 학생들을 스케치북에 그리고 이름까지 그 옆에 써 주면서 친밀감을 표현하였다.

3. 어려웠던 점과 개선방향

봉사활동을 계획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봉사활동 장소 및 대상(독거 노인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몇 년 전에도 독거 노인들이 누추한 집에 낯선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을 꺼려하셔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정한 경험이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여러 기관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끝에 명천사회종합복지관을 통해 독거 노인 가정 4가정을 소개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명천사회종합복지관에서 연결해 주신 가정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학생들의 방문을 너무 좋아하시고 심지어 손꼽아 기다리시기까지 하신다는 점이 놀라웠다. 학생들이 방문하면 다정하게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친손녀처럼 대화하신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물어보시고, 또한 들려주신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독거

어르신들이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분들처럼 외로움에 말상대를 찾으시고, 청소와 같이 사소한 가사 일도 하기 어려우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처하신 독거 어르신들을 개인적으로 찾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활발하고 진정한 봉사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봉사를 받고 싶은 독거 어르신 가정과 활동 장소를 찾는 학생들을 연결해 주는 봉사관련기관 및 봉사활동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고 시급함을 깨달았다.

4. 개인의 변화(봉사활동 소감문)

가. 사례 1(2학년 윤상아, 독거노인가정)

학기 초 동아리에 가입한 후 우리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 사회복지관 이었다. 독거노인 분들에게 도움과 말벗을 해 드리는 게 우리의 일이었고, 그곳에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처음 봉사활동을 하러 간 날, 집에 도착했다는 우리의 연락에 양산을 쓰시고 병원에서부터 한걸음에 뛰어오시던 할머니를 기억한다. 아직 여름이 되기엔 이르지만 따뜻했던 늦은 봄. 날씨만큼 따뜻했던 첫 만남이었다. 몸이 편찮으신데도 집안은 깨끗했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었다. 깨끗하고 안락한 할머니의 작은집은 할머니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반가워하시며 요구르트를 하나라도 더 주려 하셨고, 우리는 그런 할머니가 좋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평소 허리가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청소를 해드리고 무거운 이불빨래를 들어드리며 안마를 해드리는 일이었다. 나는 허리, 친구는 다리 또 다른 친구는 팔. 자기가 맡은 곳을 열심히 주물러드리는 우리를 보고 할머니는 그때마다 많이 좋아하셨다. ‘시원하다고 무슨 여자애가 손힘이 이렇게 세냐고’.

우리는 거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데에 보냈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30분 동안 설 새 없이 이야기를 했다. 하루는 할머니의 어린 시절부터 일찍 시집을 가고 일찍 남편을 잃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해 주셨다. 듣는 내내 마음이 아프면서도 예쁜 사랑이었다. 할머니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전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때만큼은 서로 동화되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가 도움을 주려온 곳이었지만 도리어 우리에게 따뜻한 시간을 주는 곳이었다. 그곳은 언제나 따뜻했고 포근했다. 반년이 지나 몇 개월 채 남지 않은 시간이 남았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곳에서 더 배울 것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갈 것 같다.

나. 사례 2(2학년 윤상아, 충남정심원)

오늘 드디어 정심원에 가게 되었다.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었고 쉽게 갈 수 없었던 곳이었기에 기대되기도 했지만, 불안하기도 했다.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주면 어떡하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걸 알아서 더 걱정 되었고, 겁이 났었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원생들이 다 모이고 처음 보는 우리들을 보며 그들은 "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다가와 주었다.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마다 눈을 마주치며 웃어주고 좋아해주는 그들 덕분에 나도 자신감이 생겼고, 처음 만난 것이 무색할 정도로 계속 웃으며 그림도 그리고 종이 접기도 하고 옆에 앉아있던 분에게 매니큐어를 발라드리자 무척 좋아하시던 것이 기억에 남았다.

소년처럼 수줍게 웃고 있어 마치 동갑내기 친구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헤어질 시간이 되고 또 '언제 오느냐?'며 계속 되묻는 그들에게 '꼭 다시 만나러 온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꼭 다시 온다고 그렇게 말해주었고 그때서야 웃으며 잘 가라며 인사하는 그들이 보였다. 그런 그분들을 보며 많이 안쓰러웠고 한편으로는 웃으며 잘 가라 인사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이곳은 언제나 도움을 주러 온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공간이었다. 2년 전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밝은 그 모습은 나를 반성하게 되고 웃는 그 모습은 계속 기억에 남아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이 가고 더 많은 것을 받아 올 것을 알기에 기대되고 설레며 우리를 보며 웃는 그 모습을 다시 빨리 보고 싶다.

IV. 향후 활동계획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매우 많다. 즉,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필요한 봉사활동 스펙을 쌓기 위해 '시간 채우기'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봉사관련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주로 청소 및 정리정돈 등 '진정한 봉사의 기쁨을 누리기에는 부족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게 되면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았다. 학생들은 충남 정심원 원생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실질적이고 진정한 봉사의 보람과 기쁨을 충분히 맛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해피투게더의 의미 있는 봉사활동 내용을 홍보하여 봉사 동아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내년에는 학생들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어린이 컴퓨터 교실'도 운영하여 보령에서 가장 우수한 봉사 동아리로 성장시킬 것이다.

동아리	동아리명 : 해피투게더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		
동아리 명단	강민정(동아리대표, 2학년), 김지민(2학년), 이서진(2학년), 한소연(2학년), 이재연(2학년), 한예진(2학년), 김다희(2학년), 안다정(2학년), 양유림(2학년), 이연지(2학년), 조성희(2학년), 윤상아(2학년), 박미혜(2학년), 임반디(2학년)		
주요활동요약	독거 노인 돕기. 장애인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진행, 장애 및 미아 발생 예방 캠페인		
활동 일시	주요활동내역	활동인원	활동장소
4월 5일 13:00 ~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활동 소양교육 ○ 독거노인과 가족 맺기 행사 	14명	독거노인 가정
4월 20일 12: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교육 ○ 장애발생 예방 캠페인 활동 	10명	서부장애종합복지관 및 보령 시내
4월 26일 13: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벗 등 정서 지원 ○ 청소 등 일손 돕기 	14명	독거노인 가정
5월 30일 13: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벗 등 정서 지원 ○ 청소 등 일손 돕기 	14명	독거노인 가정
6월 21일 14: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벗 등 정서 지원 ○ 청소 등 일손 돕기 	14명	독거노인 가정
6월 28일 13: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벗 등 정서 지원 ○ 청소 등 일손 돕기 	14명	독거노인 가정
7월 22,23,25일 10: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아발생예방 캠페인 활동 ○ 풍선 및 명찰 나누어 주기 ○ 서명 받기 	9명	대천해수욕장 머드 광장
8월 30일 14: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벗 등 정서 지원 ○ 청소 등 일손 돕기 	12명	독거노인 가정
8월 31일 13: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 프로그램 진행 ○ 풍선 아트, 네일 아트, 	9명	충남정심원
2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회 독거노인 돕기 예정 ○ 6회의 장애인 돕기 예정 	10-14명	독거노인 가정과 충남정심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사장상

온여베이크

온양여자고등학교

동아리 대표 : 최혜림 지도교사 : 강영선

가. 동기 : 작년에 학업의욕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 나의 재능을 같이 즐기면서 아이들에게 좁게는 학교 생활의 즐거움을 찾고 넓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반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어서 반 아이들 중심으로 반을 편성하였습니다. 빵과 과자를 만드는 일은 여고생들이 흥미 있어 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라 많이 만들어 자기가 만든 것을 맛보기도 하고, 또 자신이 만든 것을 좋은 일에 기부하면 큰 보람을 느끼고 또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과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등 보람되리라 판단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노인정과 복지시설 및 관공서의 사회복지사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기부할 곳을 미리 몇 군데 정하고 빵과 과자 김치 등을 실습 과정을 통해 만들고 방문하는 위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다 올해는 지역아동센터나 애육원, 성모복지원 아이들과 같이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독거노인 댁을 직접 방문하는 계획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나. 활동내용 및 실적 :

1. 과자와 빵을 만들어 애육원,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한 봉사활동 9회 :

9월 15일, 10월 13일, 11월 3일, 11월 17일, 12월 22일, 1월 5일, 1월 12일, 3월 30일, 6월 22일

2. 복지시설 아이들과 어울리는 활동 9회 : 환희애육원 아이들과 케이크 만들기 2회(9월 22일, 8월 24일), 푸른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케이크 만들기 1회(12월 15일), 환희애육원 아이들과 샌드위치 만들기 1회(3월 23일), 성모복지원 아이들과 쿠키 만들기 1회(4월 13일), 푸른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주먹밥 만들기 1회(5월 4일), 환희 애육원 아이들과 주먹밥 만들기 및 다과 1회(5월 25일), 성모복지원 아이들과 케이크 만들기 1회(6월 1일), 라임하우스아이들과 오트밀 쿠키 만들기 1회(6월 15일)

3. 김치 만들어 어려운 이웃돕기 6회 : 9월 1일, 10월 20일, 4월 20일, 5월 18일, 7월 13일, 8월 31일 (용화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 협의하여 독거노인들께 주기적으로 나누어 드렸으며 아산상록회 무상급식에 도움을 줌.)

4. 독거노인 댁 방문하기 3회 : 아산시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노인, 우울증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외로움 해소를 통한 노인 자살예방 봉사활동으로 만든 음식을 갖고 방문함. 8월 24일, 8월 31일, 9월 7일

5. 추후 계획 : 9월 7일에 마들렌을 만들어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였으며 환희애육원 및 온양5동 희망복지추진단에 (장애인 가정 및 아동양육시설인 라임하우스에 전달)기부하였으며 10월에 김치 만들기 및 환희애육원 아이들과 식빵피자 만들기, 빵과 과자 만들어 독거노인 댁 방문하기 및 시설 방문하기를 계획하고 있음.

다. 활동평가 : 처음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아이들이 실습시간 내 시끄럽고 실습 후 뒷정리를 서로 미루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떼우고 같까 하는 학생들이 많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회의 시간 기회를 주어 느낀 점을 발표하게 하였더니 자연스럽게 잘못된 점, 개선해야 하는 점들을 찾아내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후 실습을 포함한 전체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과정과 개선점, 느낀 점, 바라는 점을 써 보며 추후 활동 지도를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고 교육적이었던 부분은 장애인들과 실습을 함께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릴 수 있었으며 장애인들도 정상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았으며 같이 어울리며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케이크 만들기 활동에서는 작년에 왔던 아이들을 기억하고 왜 안 왔느냐고 하고 제일 예쁘고 보고 싶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참외와 키위를 깎는데 칼 사용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같이 준비한 과일 접시를 선생님 드린다고 먼저 챙기는 모습에 몽클하기도 하였고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처음 환희 애육원 아이들과 함께 한 활동에서는 아이들의 상처를 염려하여 사전 정보를 주지 않아 아이들과의 소통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였지만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서먹함은 없어지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 핸드폰 번호를 주고받는 등 이야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사과 깎기 할 때는 꼭 자기가 해 보고 싶다고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다과상을 차려 음식을 먹을 때는 먹지 않는 등 소심함을 보였는데 시설로 돌아가서는 자기들이 만든 음식이라고 맛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같이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케이크 만들기를 할 때는 자기가 만든 케이크는 꼭 자기가 갖고 가기를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설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고 나를 표현하고 내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김치만들기 봉사활동은 한두 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종류를 달리하여 만들고 관공서인 온양5동 행복키움 추진단과 연계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가정을 정해 주기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함께 도와주신 학부모님이 주기적으로 김치를 담가 주거지 소재 독거노인 할머니 댁에 드린다는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으며 조별로 재료 다듬기, 썰기, 절이기, 양념하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김치만들기의 어려움도 알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되어 보람되었습니다 양파를 씻고 뿌리를 자르고 쪽파를 씻고 뿌리를 자르고 대파를 자르고 뿌리를 다듬으려고 하던 아이들이 여러 번의 김치 만들기 활동을 통해 이제는 재료만 갖다 놓으면 다듬고 썰고 절이고 야채 순서에 맞게 다듬고 씻고 자르고 내내 서서하는 활동이라 정말 힘이 들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스럽습니다.

독거노인 댁 방문 봉사활동은 아산시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독거노인 등 자살예방 및 청소년 인성발달을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아이들이 전화 드렸을 때는 누가 찾아오는 것이 귀찮다고 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시간 약속을 잡고 케이크를 들고 찾아갔는데 다른 분들께 자랑한다면서 냉장고에 넣어 둔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그 후에도 아이들이 직접 만든 마들렌과 김치를 갖고 방문하고 하다 보니 가끔은 집안의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털어놓으며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냉장고에 있는 낱짜 지난 우유를 아이들한테 따라주고 먹으라고 해서 거절할 수 없어 아이들이 먹고 탈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소양교육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교에 제과제빵 오븐, 발효기 등이 없어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했기 때문에 봉사일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와서 재료를 준비해 가고 하는 점이 어려웠으며, 가스 사용이 어려워 마들렌 만드는 과정은 전날 학교에서 반죽을 해두었다가 다음날 구워야 하는 등 시설 면에서 다소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 올해는 애육원이나 지역아동센터, 장애 복지시설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실습하는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서로의 시간 약속을 잡기가 어려웠고 당일 날 갑자기 다른 행사가 있다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웠지만 서로 어우러져 하는 활동이라 학생들과 지도교사 모두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라. 앞으로의 계획

빵과 과자를 만들어 위문하는 봉사활동도 좋지만 도와 줄 대상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는 봉사활동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1. 복지시설,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음식 만들거나 빵, 과자 만들어 나누어 먹는 활동을 통해 음식을 함께 만들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되리라 생각합니다.
2. 김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음식이지만 직접 만들기가 쉽지 않고 더구나 사 먹을 수도 없는 환경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김치 만들기 봉사 활동은 정말 좋은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한두 달에 한번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학생들에게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3. 학교 주변 주은아파트 노인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대접 하는 시간은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주어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나누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즐거움을 주는 활동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좋은 활동이라 생각되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봉사활동 실천내용

동아리	동아리명 : 온여베이커 온양여자고등학교		
동아리 명단	최혜림(동아리대표, 2학년), 박지원(2학년), 김규원(2학년), 이한나(2학년), 고영선(1학년), 권유정(1학년), 김주이(1학년), 박수현(1학년), 신동희(1학년), 심은영(1학년), 안은지(1학년), 이세인(1학년), 조우현(1학년), 이윤지(1학년)		
주요활동요약	아산상록회 무상급식에 김치 만들어 주기 및 독거노인 돕기, 지역아동센터나 애육원 아이들과 음식만들기, 빵 만들어 지역시설 방문하기 및 독거노인 댁 방문하기		
활동일시	주요활동내역	활동인원	활동장소
9월 1 일 08:00 ~ 14:00	김치 만들어 불우이웃돕기	15	기술가정실
9월 15 일 08:00 ~ 12:00	마들렌 만들고 포장하여 보육시설 방문하기	10	아산시자원봉사센터
9월 22 일 08:00 ~ 13:00	환희애육원 아이들과 케이크 만들기	17	기술가정실
10월 13 일 08:00 ~ 13:00	쿠키 만들어 보육시설 방문하기	11	아산시자원봉사센터
10월 20 일 08:00 ~ 13:00	김치 만들어 불우이웃돕기	11	기술가정실
11월 3 일 08:00 ~ 13:00	황남빵 만들어 복지시설 방문하기	4	아산시자원봉사센터
11월 17 일 08:00 ~ 13:00	빵 만들어 환희애육원 등 복지시설 방문하기	10	아산시자원봉사센터
12월15 일 08:00 ~ 13:00	푸른들 지역센터 아이들과 케이크 만들기	10	기술가정실
12월 22일 08:00 ~ 13:00	식빵 피자 만들어 복지시설 방문하기	10	성모복지원
1월 5 일 08:00 ~ 14:00	마들렌 만들어 복지시설 방문하기	7	아산시자원봉사센터
1월 12 일 08:00 ~ 14:00	단팥빵 만들어 복지시설 방문하기	8	아산시자원봉사센터
3월 23 일 08:00 ~ 13:00	환희애육원 아이들과 샌드위치 만들기	13	기술가정실
3월 30 일 08:00 ~ 14:00	버터스펀지케이크 만들어 노인 복지시설 방문하기	16	아산시자원봉사센터
4월 13 일 08:00 ~ 13:00	성모복지원 원생들과 쿠키 만들기	16	성모복지원
4월 20일 08:00 ~ 14:00	김치 만들기 봉사활동	14	기술가정실

제15회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수상작 모음집

인 쇄 2013년 11월
발 행 2013년 11월
저 자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발 행 인 이성진
발 행 처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31-96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766, 4층
Tel. 041)562-9003 / Fax. 041)552-1984
Homepage. <http://cnyouth.or.kr>
인 쇄 처 디자인 소통

발간관리번호 : CYDA-Act-2013-6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공식 SNS



트위터 <http://twitter.com/@cnbongsai>



페이스북 팬페이지 facebook.com/cnbongsai

[비매품]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공식 SNS



@cnbongsai



/cnbongsai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331-96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4층(두정동 진암빌딩)
Tel. (041) 562-9003 / <http://www.bongsai.or.kr>

